

국립국어원 2018-01-16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719-01

# 2018년 한국수어 문화 정보 해설 영상 자료 구축

연구 책임자 이상용



국립국어원

#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따라 「2018년 한국수어 문화 정보 해설 영상 자료 구축」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 기간: 2018년 4월 ~ 2018년 11월 30일

2018년 11월 30일

연구 책임자: 이 상 용

연구 기관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강원도협회

연구 책임자 이상용

공동 연구원 허인영, 이성혜, 손경애

보조 연구원 원태연

## [연구진]

연구 책임자	이상용	강원도농아인협회장
공동 연구원	허인영	춘천농인교회 담임목사 강원도농아인협회 수어연구위원회 위원
	손경애	강원도농아인협회 수어연구위원회 위원 강원도수어문화원 연구원
	이성혜	강원도농아인협회 부장
보조 연구원	원태연	강원도농아인협회 사무처장

## 〈국문 초록〉

# 2018년 한국수어 문화 정보 해설 영상 자료 구축

본 연구는 공공 문화 시설에 대한 문화 정보를 한국수어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농인의 문화 시설 이용 및 문화 정보 접근성이 향상된 환경을 구축하여 농인의 문화 향유의 기회와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연구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각 박물관의 소장 유물 중 선정된 유물(국립 나주 박물관 64점, 국립 춘천 박물관 60점) 총 124점에 대한 소개 자료(원문, 사진)를 전달받은 후 한국어 전문가에 의뢰하여 쉬운 국어 설명본으로 풀어내는 윤문 과정을 거쳤다. 이후 쉬운 국어 설명본을 토대로 연구진이 한국수어 해설문을 작성하였으며, 현장 감수를 맡은 연구진이 농인 수어 해설사 2명에게 일대일 교육을 통해 문화 정보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높인 후 동영상 촬영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한국수어 문화 정보 해설 영상 자료는 해당 문화 시설에 배포해 문화 시설을 방문한 농인이 한국수어 해설 영상 기기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손쉽게 관람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립국어원 웹 사전에도 제공하여 농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문화 정보를 편리하게 살펴보고 문화 정보 향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관련 전문 분야에서의 활용은 물론 특수 교육 기관에 보급하여 농아동을 위한 교육 자료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수어 해설사 및 수어통역사 양성을 위한 교육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는 문화 시설 이용에 제한적이었던 농인들이 한국수어 해설 동영상을 통해 문화 정보에 보다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하게 되어 농인의 문화권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끝으로 제언은 다음과 같다.

한국수어 영상 자료 구축 사업의 지속적 추진 필요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갖춘 수어 해설사의 양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구축된 영상 자료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실태 조사와 함께, 보다 많은 농인들이 문화 시설을 찾도록 유도하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하겠다.

**주요어:** 한국수어, 문화 정보, 농인, 국립 박물관

# 차 례

I. 연구 배경 .....	1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3
2. 연구의 특징 .....	15
3. 연구의 내용과 추진 방법 .....	17
II. 연구 결과 .....	19
1. 기존 연구 결과 검토 .....	21
2. 제1차 자문 위원회 .....	21
3. 한국수어 해설문 작성 .....	29
4. 수어 해설사 선발과 현장 답사 .....	30
5. 촬영 업체 선정과 계약 .....	30
6. 동영상 촬영과 현장 감수 .....	31
7. 2차 감수 및 재촬영 .....	34
8. 제2차 자문 위원회 및 완성 .....	35
III. 결론 및 제언 .....	37
1. 연구 요약 .....	39
2. 기대 효과 .....	40
3. 활용 방안 .....	40
4. 연구의 한계 및 제언 .....	41
□ 참고 문헌 .....	46
□ Abstract .....	47
□ 부록 <한국수어 문화 정보 해설 영상 자료 구축 원고> .....	49

## 표 차 례

<표 II-1> 제1차 자문 위원회 구성 .....	22
<표 II-2> 최종 선정된 문화 시설 .....	29
<표 II-3> 촬영 및 감수 진행 결과 .....	32
<표 II-4> 기타 촬영 일정 .....	32
<표 II-5> 수어 해설 영상 감수 목록 및 위원 명단 .....	34
<표 II-6> 재촬영 일정 .....	35
<표 II-7> 제2차 자문 위원회 구성 .....	36

## 그 림 차 례

[그림 I -1] 연구의 흐름도 .....	17
[그림 II-1] 2015년 샘플 영상: 국립 중앙 박물관 (감지금니묘법연화경 권제7) .....	22
[그림 II-2] 2016년 샘플 영상: 국립 경주 박물관 (굽다리 접시) .....	23
[그림 II-3] 2017년 샘플 영상: 부산 시립 박물관 (전차와 지하철 개통) .....	23
[그림 II-4] 2017년 샘플 영상: 국립 제주 박물관 (탐라순력도) .....	23
[그림 II-5] 국립국어원 누리집(홈페이지), 한국수어사전-문화 정보 수어 .....	24
[그림 II-6] 부산 시립 박물관 활용의 예 .....	24
[그림 II-7] 수어 해설사의 시선 .....	25
[그림 II-8] 자문 위원회, 측면 촬영 제안 영상 예시 .....	26
[그림 II-9] 자문 위원회, 배경 색상 예시 .....	27
[그림 II-10] 자문 위원회, 글씨체 예시 .....	27
[그림 II-11] 자문 위원회, 수어 해설사 의상 예시 .....	28
[그림 II-12] 연구 진행상의 주요 장면 .....	33
[그림 III-1] 누리집 탑재용 영상 예시 .....	43
[그림 III-2] 박물관 현장 관람용 영상 예시 .....	43

# I . 연구 배경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특징
3. 연구의 내용과 추진 방법



# I . 연구 배경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연구 목적

- 본 사업은 공공 문화 시설에 대한 문화 정보를 한국수어 동영상으로 제작·배포하여, 농인의 문화 시설 이용 및 문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된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문화 향유의 기회와 저변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문화, 역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 자료를 구축하여 농인의 교육 교재 및 각종 사전 편찬의 기초 자료를 마련코자 한다.

### 2) 필요성

- 농인은 청각을 통한 음성과 문자 습득의 제한으로 인해 도서관, 미술관, 과학관, 박물관, 공연장 등 문화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제한된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문화 시설과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향유하기 어렵다.
- 그러나 농인도 국민의 한 구성원으로서 정보 습득과 문화 향유를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문화적인 영역에서도 차별받지 않는다고 천명하였고(제11조), 「문화기본법」 또한 모든 국민은 신체적 조건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제4조).
- 「장애인차별금지법」 역시 장애인의 문화 예술 참여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이 모든 공공 기관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제21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인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6조 2항에는 장애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 건물 및 공공 이용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주에 대하여 안내 서비스와 수어통역 등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장애인으로부터 편의제공을 요청받은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위와 같은 법률들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농인은 접근 환경이 미비한 문화 시설을 이용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으며, 이용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국립국어원에서 진행한 「수어 기반 문화 정보 접근 환경 지원 기초 조사」(2014)에 따르면 농인들은 도서관과 미술관, 공연장, 청인 종교 시설과 같은 문화 시설은 방문한 경우가 드물었고, 유명 관광지, 유적지, 영화관, 체육 시설, 박물관, 과학관, 동물원, 식물원과 같이 여행이나 여가 생활 관련 문화 시설은 이용 경험이 있었으나 이 경우도 1~3회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이용자의 경우도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
- 그러나 문화 시설에서 농인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정보 접근 환경이 마련된다면, 모든 문화 시설을 더 자주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유명 관광지, 한국어 자막을 제공하는 영화관, 박물관, 체육 시설, 유적지, 공연장과 같이 여행 및 여가 생활 관련 문화 시설을 더 많이 이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따라서 농인 역시 자유롭게 이용하는 문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각 문화 시설의 문화 정보를 한국수어 동영상으로 해설하는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다양한 문화 정보에 대한 한국수어 해설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확대 제작, 보급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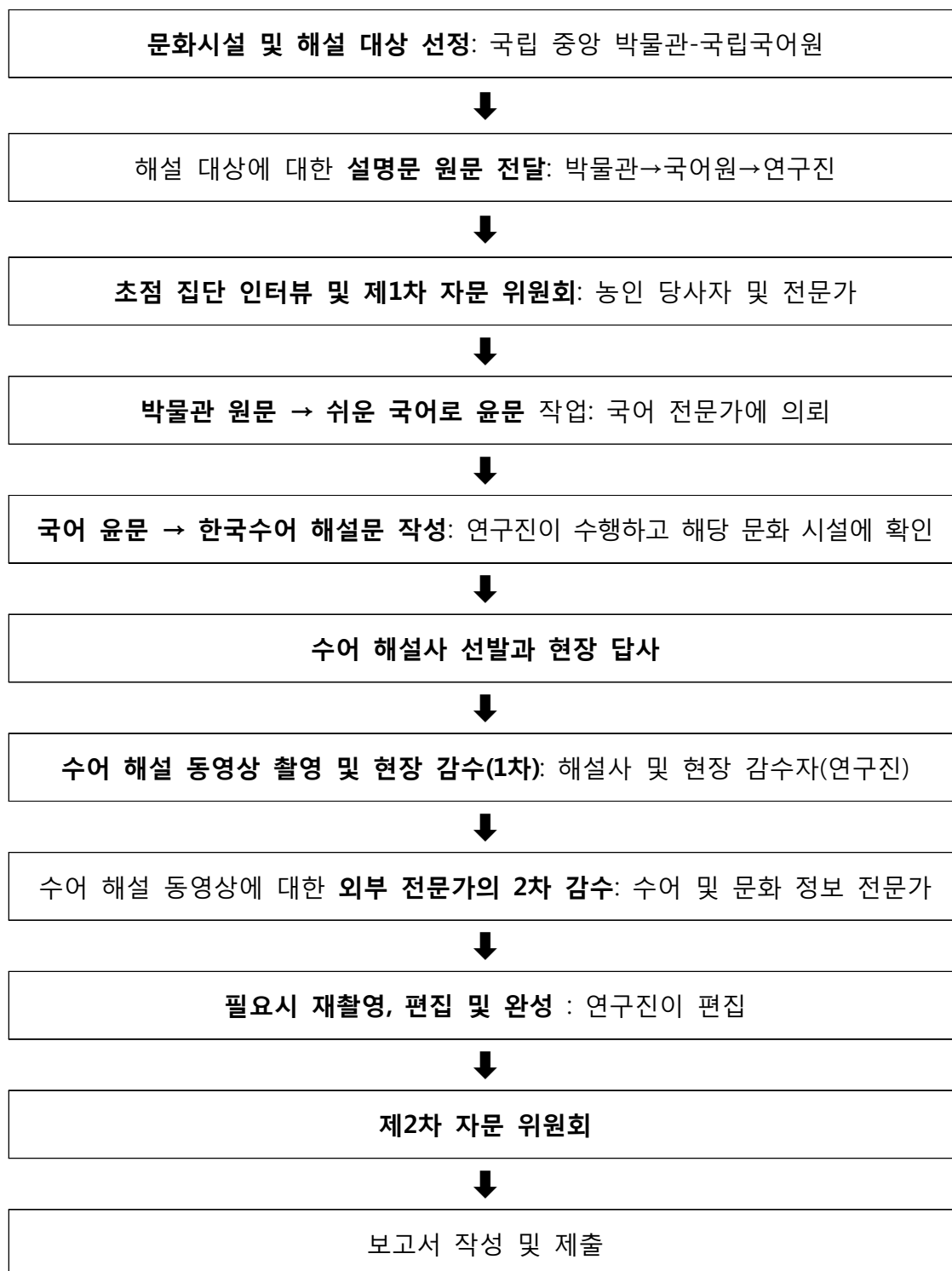
## 2. 연구의 특징

-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농인 당사자, 농 분야 전문가 등을 주축으로 연구진을 구성하였다.
- 시각 언어인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은 특유의 문화(=농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농문화는 농인들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관은 농인들의 행동 특성과 신념으로 농인으로 살아오면서 거듭되는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 이러한 농인의 행동 특성과 신념, 습관을 제대로 이해하며, 그들의 욕구를 가장 잘 알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농인 당사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어 및 농문화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농인 당사자 및 농인과 오랜 시간 함께해 온 농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다.
- 한국수어 관련 영상 사업 참여 및 제작 경험이 있으며,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 영상 제작 전문가(업체)를 섭외하여 영상 촬영과 편집을 맡겼다.
-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인터넷 대용량 저장소(네이버 클라우드)를 개설하여 영상 공유 및 편집 작업 등에 활용하였다.

○ 작업 과정의 정교화를 통해 사업 결과물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과정별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여 진행하였다.

- 초점 집단 인터뷰: 농인 당사자 의견 청취
- 사업 과정에 국어 전문가 참여
- 유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표현을 위해 해당 문화 시설 방문
- 한국수어 시나리오 작성 시 농인 연구자와 청인 연구자 간의 교차 검토
- 자문 위원회를 통해 농인 당사자 및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및 반영
- 한국수어 해설 동영상 촬영 시 수어 전문가의 현장 감수(1차)
- 한국수어 해설 동영상 촬영(원본)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2차 감수
- 사업 추진 기간 국립국어원과 상시 소통

### 3. 연구의 내용과 추진 방법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 II . 연구 결과

---



1. 기존 연구 결과 검토
2. 제1차 자문 위원회
3. 한국수어 해설문 작성
4. 수어 해설사 선발과 현장 답사
5. 촬영 업체 선정과 계약
6. 동영상 촬영 및 감수
7. 2차 감수 및 재촬영
8. 제2차 자문 위원회 및 완성

## II. 연구 결과

### 1. 기존 유사 연구 결과에 대한 검토 및 평가

#### 1) 이미 구축되어 있는 한국수어 문화 정보 및 문화 시설에 대한 검토

- 한국수어사전을 비롯한 기존 한국수어 문화 정보 해설 영상에 대한 조사, 검토, 평가를 통해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들은 참고, 반영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2. 제1차 자문 위원회

#### 1) 초점 집단 인터뷰(FGI)와 자문 위원회 통합 운영

- 본 연구 과제가 4개년 계속 사업임을 감안하여 초점 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와 자문 위원회를 통합·운영하였다.
- 초점 집단 인터뷰(FGI) 성격을 겸하는 점을 고려하여 문화 정보 한국수어 영상에 관심이 있거나 제작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농인과 농인의 문화권에 관심을 두고 활동해 온 청인 수어 전문가 등으로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표 II -1> 제1차 자문 위원회 구성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이현석	전 한국농아인협회 정보방송부장 / 전북수어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장	농인
2	송재림	전 경기도농아인협회광주시지회장	농인
3	박민호	한국농아방송 iDBN 앵커	농인
4	양흥석	평택시온성농인교회 목사 / 평택등대농문화센터장	농인
5	김학규	춘천계성학교 교사	농인
6	전성우	나사렛대학교 석사 / 강원도농아인협회정선군지회장	농인
7	함종만	강원도농아인협회 수어 연구 위원 / 횡성군수어통역센터장	농인
8	이미혜	서울수어전문교육원 강사	청인

- 자문 위원회에서는 연구진(허인영)의 진행으로 자문 위원 각각의 적극적인 참여와 구체적인 답변을 유도하였다.
- 먼저 본 사업의 개요와 함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구 성과들을 제시하여 올해 사업과 관련하여 최선의 안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II -1] 2015년 샘플 영상: 국립 중앙 박물관 (감지금니묘법연화경 권제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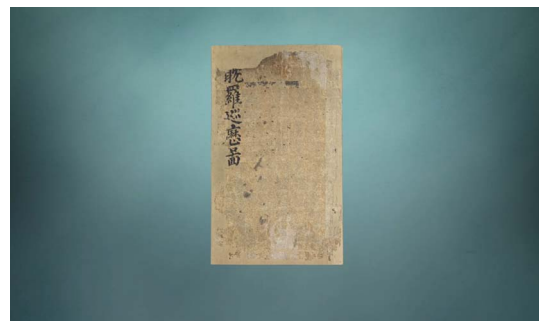




[그림 II-2] 2016년 샘플 영상: 국립 경주 박물관 (굽다리 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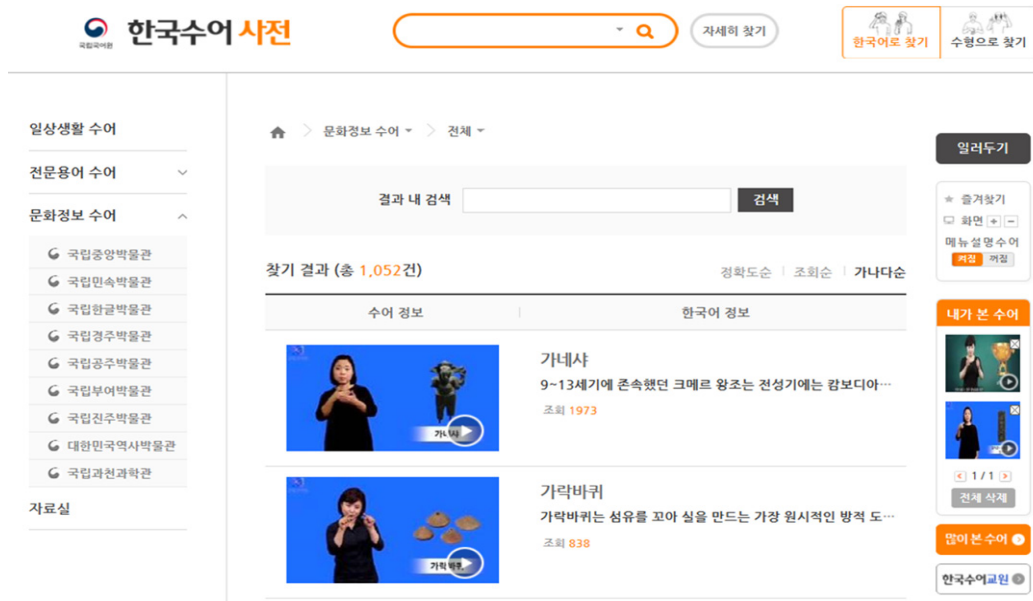


[그림 II-3] 2017년 샘플 영상: 부산 시립 박물관 (전차와 지하철 개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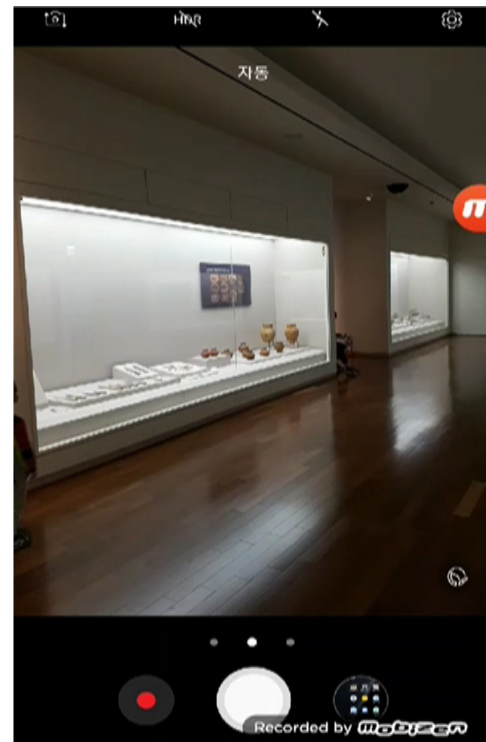
[그림 II-4] 2017년 샘플 영상: 국립 제주 박물관 (탐라순력도)

- 문화 정보 한국수어 해설 영상이 활용되는 사례를 제시하여 자문 위원들로부터 실제에 적용 가능한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그림 II -5] 국립국어원 누리집(홈페이지), 한국수어사전-문화 정보 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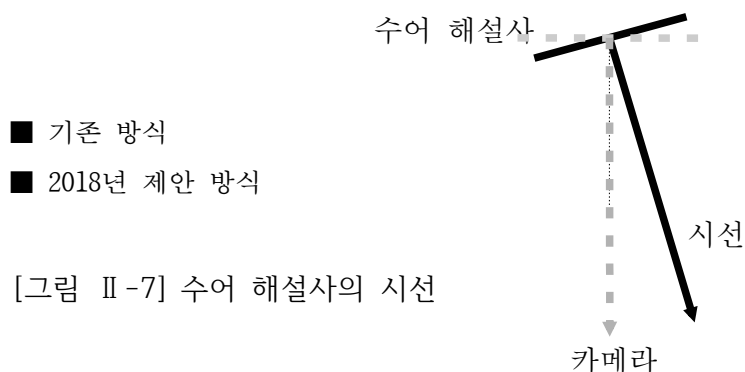
<박물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농인 교육 자료로 활용하거나 수어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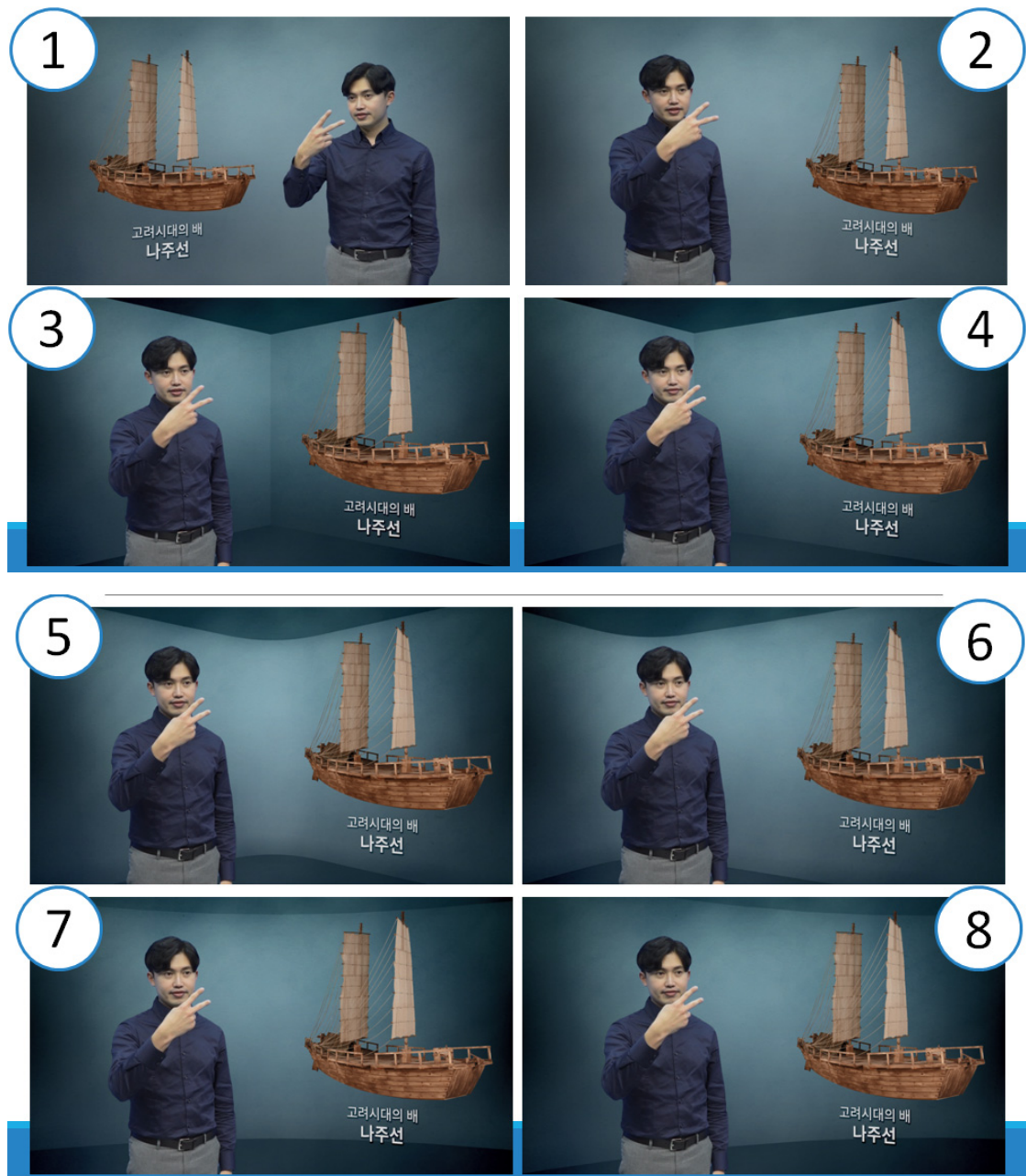


[그림 II -6] 부산 시립 박물관 활용의 예

<부산 시립 박물관 실제 활용 영상: 모바일 기기에 앱을 다운로드하여 정보 무늬(QR 코드)를 통해 해설 영상을 바로 볼 수 있으며, 유물 앞을 지날 때마다 해당 수어 해설 영상이 자동으로 변경된다.>

- 이후 연구진이 제안하는 새로운 형식의 화면 구성의 여러 예시를 자문 위원들에게 제시한 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토록 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회의 내용은 영상 녹화, 수기 등의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 자문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어 해설사 및 유물 사진의 위치와 배경 디자인
  2. 영상의 배경 색상
  3. 유물명 등 한글 자막의 글씨체
  4. 색상, 디자인 등 수어 해설사의 의상
  5. 농인의 문화권 신장을 위한 한국수어 문화 정보 영상 제작 전반에 대한 발전적 제안
- 위 자문 요청 사항 중 연구진이 제안한 중점 사항은 수어 해설사 및 유물 사진의 위치와 배경 디자인이었다.  
 기존 한국수어 문화 정보 해설 영상은 모두 획일적으로 수어 해설사를 정면에서 촬영했다. 이러한 촬영, 편집 방식에서는 정면을 응시하는 해설사의 손과 몸 사이의 간격이나 공간에서의 움직임(방향)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 이에 2018년도 사업에서는 해설사의 수어가 보다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하여 수어의 가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약 20도 각도로 측면에서 촬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유럽 등 여러 나라가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그림 II -8] 자문 위원회, 측면 촬영 제안 영상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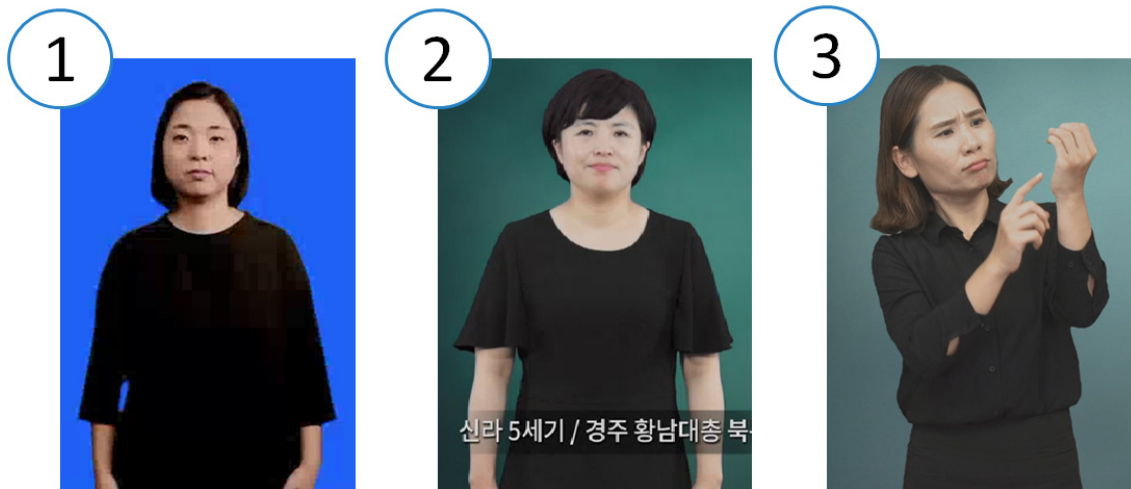




[그림 II-9] 자문 위원회, 배경 색상 예시

1. 고려시대의 배 나주선	4. 고려시대의 배 나주선	7. 고려시대의 배 나주선	10. 고려시대의 배 나주선
2. 고려시대의 배 나주선	5. 고려시대의 배 나주선	8. 고려시대의 배 나주선	11. 고려시대의 배 나주선
3. 고려시대의 배 나주선	6. 고려시대의 배 나주선	9. 고려시대의 배 나주선	12. 고려시대의 배 나주선

[그림 II-10] 자문 위원회, 글씨체 예시



[그림 II-11] 자문 위원회, 수어 해설사 의상 예시

- 자문 위원회에 제안하는 측면 촬영 및 편집 방식에 대한 샘플 영상은 4월 16일, 강원도 시청자 미디어 센터 중형 스튜디오에서 촬영하였다.
- 2018년 5월 15일(화) 14:00 ~ 16:00, 국립 춘천 박물관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1차 자문 위원회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수어는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것이 기본인데 시선을 다른 곳에 두니 집중하기 어렵다.’, ‘시선을 맞추지 않으니 예의가 없는 것 같다.’ 등의 이유로 자문위원 전원이 **측면 촬영을 반대했다**. 따라서 기존과 같이 **정면 촬영**으로 추진한다.
  - **배경 색상**은 2017년도 영상과 동일한 6번 색상으로 한다.
  - **글씨체**는 예시 중 11번(포천 오성과 한음체)을 사용한다.
  - 수어 해설사의 의상은 남녀 모두 7부 소매의 어두운 단색 계열의 목깃이 있는 셔츠를 착용하도록 한다.
  - 더불어, 단어 표현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 가급적 해설 전문을 외위 설명하는 형식으로 촬영해 농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 지문자는 얼굴 가까이에서 쓸 경우 비수지가 보이지 않거나 시야를 가릴 수 있으므로 가슴 앞에서 쓴다.
  - 농인이 한국수어 문화 정보 영상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에스엔에스(SNS)를 통한 홍보도 필요하다.

## 2) 문화 시설 선정

- 2018년 「한국수어 문화 정보 해설 영상자료 구축」 연구 과제 대상은 국립국어원이 사전 섭외한 국립 나주 박물관과 국립 춘천 박물관 2개 문화 시설이다.

〈표 II -2〉 최종 선정된 문화 시설

연번	문화 시설명	주소	누리집(홈페이지)
1	국립 나주 박물관	전남 나주시 반남면 고분로 747	<a href="http://naju.museum.go.kr">http://naju.museum.go.kr</a>
2	국립 춘천 박물관	강원도 춘천시 우석로 70	<a href="http://chuncheon.museum.go.kr">http://chuncheon.museum.go.kr</a>

## 3. 한국수어 해설문 작성

- 본 연구에서 수어 해설 영상 자료로 제작할 대상은 각 박물관의 소장 유물 중 국립 나주 박물관 64점, 국립 춘천 박물관 유물 60점으로 총 124편이 선정되었다.
- 국립국어원과의 기술 협상에 따라 박물관의 유물 해설 원문(原文)을 쉬운 국어 설명본(이하 윤문, 潤文)으로 다듬는 과정은 강원대학교 한국어문화원(원장: 한길 국어국문학과 교수)에 별도 의뢰하였다.
- 동영상 촬영 전까지의 작업 과정
- 국립국어원의 협조를 통해 본 사업 대상 문화 시설로부터 해당 문화 정보를 설명한 원문(原文)과 사진 자료를 받는다.
  - 국어 전문가(강원대학교 한국어문화원)에 의뢰하여 유물 등 해당 문화 정보에 대한 원문을 쉬운 국어로 다듬는다(윤문 작업).

- 윤문 작업한 설명문을 토대로 연구진(이성혜, 손경애)이 한국수어 해설문을 작성한다.
- 윤문과 한국수어 해설문은 작업 과정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누락, 왜곡되지 않도록 해당 문화 시설(박물관)의 검수를 반드시 거친다.
- 한국수어 해설 시나리오 작성 지침(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한다.

## 4. 수어 해설사 선발과 현장 답사

- 수어 해설사는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며, 한국수어와 한국어 문해 능력에 능통한 농인으로 선발하였다.
- 수어 해설사의 의상은 자문 위원회 제안을 반영하여 문화 시설 소개에 맞는 단색의 차분하고 어두운 색상으로 하되, 소매는 7부 정도의 셔츠로 정하여 진행하였다.
- 문화 정보에 대한 수어 해설사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내용의 학습 및 사전 숙지를 위해 수어 해설 시나리오와 유물 사진을 최대한 빨리 전달코자 하였으며, 촬영 2~3일 전에 현장 감수자(연구진)와 수어 해설사의 일대일 교육을 진행하여 완성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 유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표현을 위해 해당 문화 시설을 답사하였다.
  - 국립 나주 박물관: 5월 29일
  - 국립 춘천 박물관: 7월 11일

## 5. 촬영 업체 선정과 계약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한국수어 관련 영상 사업 참여 및 제작 경험이 있으며,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 영상 제작 전문가(업체)를 선정하여 촬영 및 편집을 진행하였다(손말미디어, 대표 이승수).



## 6. 동영상 촬영 및 현장 감수

- 제1차 자문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문화 정보 영상과 같이 정면 촬영을 진행하였다.
- 수어 해설사의 의상은 무늬가 없는 어두운 계열의 단색의 목깃이 있는 셔츠로 하고, 머리는 흑갈색으로 하며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고정하였다.
- 한국수어 문화 정보 동영상 촬영은 농인 감수 위원(연구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수어 해설의 오류를 줄이고 영상물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국수어 해설문 작성 팀(이성혜, 손경애) 1명 이상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 수어 해설사의 건강상 이유 등으로 인해 연구진의 당초 계획한 일정에서 다소 지연 추진되었다. 박물관별 촬영 결과는 다음 <표 II-3>과 같다.

〈표 II -3〉 촬영 및 감수 진행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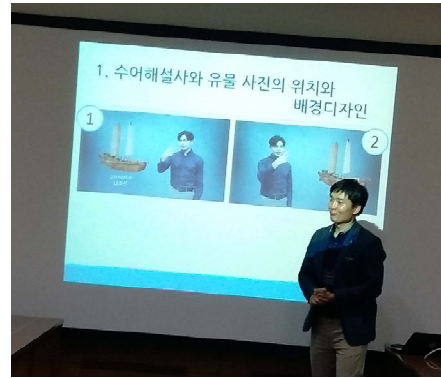
문화 시설명	유물 연번	수량	일정	해설사	현장 감수	현장 모니터링	비고
국립 춘천 박물관	1~20	20	8.29	이진호	허인영	이성혜	
	21~33	13	8.30	이진호	허인영	이성혜	
	34~39	6	9.3	이진호	허인영	이성혜	
	40~51	12	9.5	이진호	허인영	손경애	
	52~60	9	10.1	이진호	허인영	손경애	
국립 나주 박물관	33~39	7	9.3	박민호	허인영	이성혜	
	1~20	20	9.4	박민호	허인영	손경애	
	21~27 40~64	32	9.12	박민호	허인영	이성혜	
	28~32	5	9.13	박민호	허인영	손경애	

〈표 II -4〉 기타 촬영 일정

문화 시설명	유물 연번	수량	일정	해설사	현장 감수	현장 모니터링	비고
국립 나주 박물관	58	1	4.16	이진호	허인영	손경애 이성혜	자문위원회 샘플 영상



제1차 자문 위원회 - 1



제1차 자문 위원회 - 2



촬영 현장 - 1



촬영 현장 - 2

[그림 II-12] 연구 진행상의 주요 장면

## 7. 2차 감수 및 재촬영

- 국립 나주 박물관 유물 64점과 국립 춘천 박물관 60점 총 124점의 유물에 대한 동영상 촬영을 완료한 후 외부 전문가에 감수를 의뢰하였다.
- 2차 감수는 가편집한 동영상을 박물관별로 이동식 저장 장치(USB 메모리)에 옮겨 담고, 한국수어 해설 영상에 대한 감수 의견 기록 용지와 함께 반송용 봉투를 동봉하여 외부 감수 위원에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 수어를 감수할 외부 전문가는 수어를 제1언어로 하는 농인으로만 구성하였으며, 충실한 검토를 위해 감수 기간은 2주로 설정하였다.
- 2차 감수 결과, 한국수어사전에 등재돼 있지 않은 수어 어휘 사용, 지명에 대한 지문자 오류, 부정확한 수어 표현,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한국어 문장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할 것을 요청하는 지적, 주요 어휘(수어 표현) 누락 등의 의견이 있었다.
- 외부 감수 위원의 2차 감수 결과와 국립국어원의 검토 의견에 대해 연구진 회의를 거쳐 재촬영 대상을 결정하고, 재촬영을 진행하였다. 2차 감수 및 재촬영 일정은 <표 II -5>, <표 II -6>과 같다.

<표 II -5> 수어 해설 영상 감수 목록 및 위원 명단

연번	문화 시설명	수량	감수 위원	감수기간
1	국립 나주 박물관	유물 64점	손천식	10. 2 ~ 10. 10
2	국립 춘천 박물관	유물 60점	송재림	10. 2 ~ 10. 14

〈표 II -6〉 재촬영 일정

문화 시설명	유물 연번	편수	일정	수어 해설사	현장 감수	모니터링
국립 나주 박물관	15, 27, 41, 59 60, 62	6	11.7	박민호	허인영	이성혜
국립 춘천 박물관	6, 11, 21, 25 28, 31, 48	7	11.7	이진호	허인영	손경애

- 재촬영과 영상 편집을 마친 가완성본에 대해 연구진 검토를 실시하여 자막 오류, 띄어쓰기 오류, 사진 오류 및 누락, 출토지 및 연대 등 부가 정보 오류 또는 누락 등의 영상 편집상의 문제를 수정하였다.

## 8. 2차 자문 위원회 및 완성

- 2018년 10월 23일(화) 제2차 자문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2차 자문 위원회를 통하여 본 사업 결과물이 1차 자문 위원회에서 나온 농인 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농인이 이용하기에 적절하게 제작되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자문 위원 대부분은 제1차 자문 위원회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농인이 문화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새롭게 적용한 배경과 유물 사진 및 부가 정보 자막의 입체적 표현이 유물 해설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는 등 새로운 시도가 좋다는 평가가 있었다. 다만, 자막은 한 포인트 크게 하고, 유물 사진과 자막은 조금 위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II -7〉 제2차 자문 위원회 구성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이현석	전 한국농아인협회 정보방송부장 / 전북수어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장	농인
2	이은영	서울수어전문교육원 강사	농인 / 신규
3	김운식	원주시수어통역센터 농통역사 / 사진가	농인 / 신규
4	양흥석	평택시온성농인교회 목사 / 평택등대농문화센터장	농인
5	김학규	춘천계성학교 교사	농인
6	전성우	나사렛대학교 석사 / 강원도농아인협회정선군지회장	농인
7	함종만	강원도농아인협회 수어 연구 위원 / 횡성군수어통역센터장	농인
8	이미혜	서울수어전문교육원 강사	청인

- 제1차 자문 위원회 개최 이후 위원 2명이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제 2차 자문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새롭게 2명을 위촉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다.

## III. 결론 및 제언

---



1. 연구 요약
2. 기대 효과
3. 활용 방안
4. 연구의 한계 및 제언

### III. 결론 및 제언

#### 1. 연구 요약

- 본 연구는 공공 문화 시설에 대한 문화 정보를 한국수어 동영상으로 제작·배포하여, 농인의 문화 시설 이용 및 문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된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문화 향유의 기회와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본 연구는 국립국어원을 중심으로 국립 나주 박물관 유물 64점, 국립 춘천 박물관 60점 총 124점에 대한 각 박물관의 주요 유물들에 대한 소개 자료(원문, 사진)를 전달 받아 우선 한국어 전문가에 의뢰하여 쉬운 국어 설명본으로 풀어내는 윤문 과정을 거쳤다.
- 쉬운 국어 설명본이 원문의 내용을 왜곡이나 누락 없이 충실히 반영하였는지 박물관 학예연구사와 국립국어원의 검수 과정을 진행한 후 쉬운 국어 설명본을 토대로 연구진이 한국수어 해설문을 작성하였다.
- 작성한 한국수어 해설문은 다시 한 번 해당 박물관 학예연구사와 국립국어원의 검수를 거쳐 유물 사진 자료와 함께 농인 수어 해설사에게 전달하였다.
- 현장 감수를 맡은 연구진은 사전에 선발한 농인 수어 해설사 2명과 영상 및 대면 교육을 통해 문화 정보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높인 후 동영상 촬영을 진행하였다.
- 이후 한국수어 문화 정보 해설 영상 촬영분과 편집분에 대한 연구진의 1차 검토와 전문 감수위원의 2차 검토를 거쳐 일부 촬영분에 대한 재촬영을 진행하여 완성하였다.



## 2. 기대 효과

- 국립 박물관 전시 유물에 대한 문화 정보를 한국수어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문화와 역사 정보에 대한 농인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동안 문화 시설 이용에 제한적이던 농인들이 한국수어 문화 정보 해설 영상 자료를 통해 보다 자유롭게 문화 시설을 이용하게 되어 농인의 문화권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 문화 관련 전문 분야에 농인의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 향후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 문화 시설, 교육 시설이나 민간 영역에도 한국수어 영상 자료 구축에 대한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
- 전문용어 사전에 수록되지 않았으나 문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문화 관련 수어에 대한 새로운 어휘를 활용할 수 있다.
-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으로 국외 농인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시기에 한국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한류 문화에 기여할 수 있다.

## 3. 활용 방안

- 문화 시설(박물관 등)에 동영상을 배포해 시설을 방문한 농인이 한국수어 해설 영상 기기를 통해 관람 및 이용할 수 있다.
- 또한 모바일 기기용 근거리 통신 기술인 비콘(Beacon)이나 정보 무늬

(QR 코드) 제작과 연계해 농인들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관련 문화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 국립국어원 웹 사전과의 연계를 통해 농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문화 정보를 편리하게 살펴보는 등 문화 정보 향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다. 또한 국외 농인들에 한국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 접근 수준에 대한 홍보 효과도 거둘 수 있다.
- 향후 특수 교육 기관에 보급하여 농학생을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농인 관련 단체를 통해 농성인 대상 평생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 수어 해설사 및 수어통역사 양성을 위한 교육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다.

## 4. 연구의 한계 및 제언

### 1) 박물관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검증된 원문 제공, 학술적인 조언

연구진이 작성한 한국수어 해설문을 박물관에 보내 검토하는 단계에서 국립 나주 박물관으로부터 유물에 대한 주요 정보를 중심으로 간결하게 정리한 윤문을 다시 제공받게 되었다. 박물관 차원에서 전문가 팀을 꾸려 작성한 2차 윤문은 한국수어 문화 정보 해설 영상 자료 구축 사업의 수어 해설에 적합한 높은 완성도를 보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수어 문화 정보 해설 영상 자료 구축 사업 과정에서 유물과 역사 전문가 그룹(박물관 학예연구사)이 핵심 내용과 정확한 정보를 연구진에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역사적, 문화적인 정보를 1차적으로 제공하는 주체이면서 ‘쉬운 국어 설명본’ 및 ‘한국수어 해설문’에 대한 검수(검토, 수정) 권한을 갖고 있는 박물관

관(학예연구사)이 유물 정보를 한국수어로 번역하기 위한 기초 작업인 수어 해설문의 목적을 이해하고, 이에 맞게 ‘원문’, ‘쉬운 국어 설명본’부터 구체적인 표현 위주의 설명과 핵심 정보를 충실히 정리해 준다면 한국수어 해설문 작업의 한계를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 진행 중 연구진이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수어로 설명하기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물관(학예연구사)에 전화와 이메일로 자문을 구했다. 앞으로도 문화 시설이 검수 권한을 가진 1차 정보 제공자이자 문화 정보에 대한 조언자로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보다 완성도 있는 한국수어 해설 영상 자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진과 수어 해설사(모델)의 박물관 답사의 중요성

수어는 시각 언어이다. 유물을 설명할 때 형태와 사용 방법 등을 단순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시각화하거나 동작으로 구현한다. 따라서 사진이나 문자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수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따라서 충실한 수어 해설문 작성과 수어 해설사의 유물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국립 나주 박물관과 국립 춘천 박물관 현장 답사를 진행하였다. 현장 답사를 통해 유물 설명문 및 사진을 실제 유물과 비교하며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고 수어로 구체화시킬 수 있었다.

## 3) 외부 감수자의 감수 내용에 대한 지침 마련

2017년 사업에서 특별한 지침 없이 외부 감수를 요청한 결과, 내용의 전달과는 무관한 지엽적인 부분과 감수자 개인의 주관적 시각을 반영한 감수 의견이 상당수 있었다. 이에, 올해 사업에서는 ‘수어 단어 표현보다는 해설 내용의 의미 전달에 중점’을 두고 감수해 달라는 기준을 두고 요청한 결과, 그에 맞는 감수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더욱 충실한 감수와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외부 감수자에게 명확한 감수 지침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4) 문화 정보 수어의 연구 및 사전 등재 필요

박물관 유물 등을 수어로 설명하면서 사용한 어휘 중 일부가 한국수어사전(<http://sldict.korean.go.kr>)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농인들이 문화 정보 수어 콘텐츠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수년간 본 사업을 통해 유물을 설명하기 위해 표현된 수어 어휘를 별도의 연구 및 논의를 거쳐 한국수어사전에 등재함으로써 한국수어사전의 전문용어 수어를 확대하고, 한국수어 전문용어와 문화 정보 수어를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예: 고인돌, 구석기, 신석기 등)

#### 5) 박물관용 영상과 누리집(홈페이지)용 영상 구분

박물관에 방문하여 유물을 관람하면서 한국수어 문화 정보 해설 영상을 볼 때는 바로 눈앞에 실제 유물이 있으므로, 수어 해설과 함께 제시되는 유물 사진은 화면의 공간만 차지할 뿐 의미가 없다.

박물관 현장 관람용 영상은 누리집(홈페이지) 탑재용과는 달리 유물 사진과 자막을 삭제하고 수어 해설 영상만 크게 제공한다면 농인에게 더 만족스러운 관람이 될 것이다.



[그림 III-1] 누리집 탑재용 영상 예시



[그림 III-2] 박물관 현장 관람용 영상 예시

## 6) 박물관 관람용 수어 해설 기기 비치

부산 시립 박물관과 같이 개인 스마트폰으로 박물관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문화 정보 수어 해설 영상을 보는 방식의 경우 스마트폰에 따라 작은 화면으로 관람해야 하거나 관람 도중 전화가 오면 영상이 중단되는 등 불편함이 예상되므로 전용 기기를 활용하는 방식을 건의한다.

이미 거의 모든 박물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시 해설용 오디오 기기처럼 수어 해설 전용 기기를 박물관에 비치한다면 수어 영상 시청에 적합한 큰 화면으로 해설을 볼 수 있고, 스마트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농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 7) 수어 해설사(모델) 양성 필요

문화 정보에 대한 수어 해설을 하는 농인(수어 해설사)은 수어 표현 능력과 함께 상당한 수준의 한국어 문해력을 갖추어야 하며, 카메라 앞에 서야 하므로 상황에 맞는 행동을 취할 수도 있어야 하는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이다.

현재까지 이러한 양성 과정의 부재로 실력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몇몇 수어 해설사에 의존하는 상황이었으나, 그럴 경우 수어 해설사(모델)의 소진 현상으로 수어 해설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반복되는 모델을 보며 싫증을 느낄 수 있다.

앞으로 늘어날 수요에 맞추어 새로운 수어 모델을 발굴하고 양성한다면 보다 수준 높은 수어 해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8) 정부 차원의 홍보 및 활용 방안 모색

공공 문화 시설의 유물 등 문화 정보에 대한 수어 해설 영상 자료 구축 사업이 올해로 4년차를 맞았다. 그동안 수어 해설 영상 자료가 제작된 공공 문화 시설은 총 16개소에 이르지만 농인의 활용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

박물관 유물을 수어로 해설한 영상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어느 박물관에서 수어 해설 영상을 볼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 등의 매체를 통해 홍보한다면 농사회 구성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이 사업에 대해 알 수 있고, 민간 영역에 대한 긍정적 영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9) 문화 정보 영상 사업 대상 확대

국립 박물관을 대상으로 하는 본 사업이 농인의 문화 정보 접근권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농인의 욕구는 점차 증대되고 있다.

국립 박물관을 넘어 도립, 시립 박물관, 그리고 전국의 유적지 및 관광지에도 수어 해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부분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한국인이 꼭 가 봐야 할 한국 관광 100선’을 소개할 때, 수어해설을 제공하는 등 농인의 정보 접근성에 대한 책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 참고 문헌

국립국어원·한국농아인협회(2014). 「수어 기반 문화 정보 접근 환경 지원 기초 조사」.

국립국어원·한국농아인협회(2014). 「한국수어 연구 자문 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서」.

국립국어원·한국농아인협회(2015). 「한국수어 전문용어, 문화 정보 구축 결과 보고서」.

국립국어원·한국농아인협회(2016). 「문화 정보 해설 한국수어 영상 자료 구축 결과 보고서」.

국립국어원·한국농아인협회(2016). 「문화 정보 해설 한국수어 영상 자료 구축 결과 보고서」.

김칠관·윤병천(2014). 『농문화 입문』. 대구: 정림사.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http://sldict.korean.go.kr>

국립 나주 박물관. <http://naju.museum.go.kr>

국립 춘천 박물관. <http://chuncheon.museum.go.kr>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문화재청. <http://www.cha.go.kr>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Abstract>

## The Production of Korean Sign Language Video Materials to Increase Access to Cultural Information

This study set out to make Korean sign language videos on cultural information about public cultural facilities, thus creating an environment of better access to cultural facilities and information for deaf people and increasing their cultural rights.

The investigators made Korean sign language videos based on the materials(original texts and photographs) about the selected artifacts of museums belonging to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materials covered total 124 artifacts including 64 from the Naju National Museum, 60 from the Chuncheon National Museum. The materials were then rewritten in easy terms by a Korean expert. The investigators wrote expository texts for the materials in Korean sign language. Two deaf sign language models were selected, increased their understanding and sensibility of cultural information in a one-on-one education session with a field supervisor, and participated in the video making process.

Through this study,

First, the Korean sign language cultural information video materials should be distributed to the concerned cultural facilities so that deaf people visiting those facilities can watch and use them easily by using Korean sign language explanation video equipment or smartphone. The video materials should also be connected with the web dictionary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so that deaf people can look up cultural information conveniently any



time, any place and participate in the activities to enjoy cultural information vigorously.

Secondly, the video materials can be utilized in the concerned expert fields and distributed to special education institutions where they can be put to various uses as educational materials for deaf children and serve as educational content to bring up sign language models and interpreter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made expository Korean sign language cultural information videos for deaf people with limited access to cultural facilities, helped them access and use cultural information more freely, and promoted their cultural right and quality of life.

Finally, the study made the following suggestions:

Given a need to carry out a project on Korean sign language videos in a continuous manner, it is required to produce sign language models with professionalism, as well. It is also needed to investigate the actual uses of such video materials in the field and come up with promotional plans for more of deaf people to visit cultural facilities and make use of materials.

**Keywords:** Korean sign language, cultural information, the Deaf, national museum

# 2018년 한국수어 문화 정보 해설 영상 자료 구축



---



부록: 2018년 한국수어 문화 정보 해설 영상 자료 구축 원고







## 부록: 2018년 한국수어 문화 정보 해설 영상 자료 구축 원고



### (1) 국립 나주 박물관 (64편)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1	주먹 도끼 手斧 나주 도민동 / 구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돌로 도구를 만들어 동물을 사냥하여 생활하였습니다. 주먹 도끼는 구석기 시대 전기의 대표적인 석기로, 손에 쥐고 사용하기 좋은 모양입니다. 주먹 도끼는 주로 동물을 사냥하거나 사냥한 동물을 해체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생김새는 전체적으로 타원형을 이루거나 끝이 뾰족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먹 도끼는 손에 쥐는 부분은 날을 만들지 않고 자연 돌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유물은 구석기 시대의 대표 석기입니다. 주로 동물을 사냥하거나 사냥한 동물을 해체할 때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 주먹 도끼는 한쪽 면만을 가공한 경우가 많으며, 손잡이 부분을 중심으로 자연 면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단면은 석기 재료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 줍니다.	이 유물은 구석기 시대의 대표 석기입니다. 주로 동물을 사냥하거나 사냥한 동물을 해체할 때 사용했다. 우리나라 주먹 도끼는 한쪽 면만을 가공한 경우가 많으며, 손잡이 부분을 중심으로 자연면이 많이 남아 있다. 단면은 석기 재료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 준다.	
2	찍개 兩面器 나주 금곡리 용호 / 구석기 시대	찍개는 자갈돌의 한쪽 면이나 양쪽 면을 때려 날을 만든 석기입니다. 찍개는 비교적 만들기가 간단하며 대부분의 구석기 유적에서 확인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주먹 도끼와 비슷한데, 예를 들어 타원형의 석재를 전체적으로 다듬으면 주먹 도끼가 됩니다. 구석기 시대의 보편적인 석기인 찍개는 나무 가공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나주 용호 유적에서 출토된 이 찍개는 양쪽 면에 날을 만든 양날 찍개입니다.	이 유물은 양쪽 면에 날을 만든 찍개입니다. 찍개는 자갈돌의 한쪽 면이나 양쪽 면에 날을 만듭니다. 나무를 가공하거나 사냥에 사용하였습니다.	이 유물은 양쪽 면에 날을 만든 찍개입니다. 찍개는 자갈돌의 한쪽 면이나 양쪽 면에 날을 만듭니다. 나무를 가공하거나 사냥에 사용하였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3	<p><b>되맞춘 몸돌</b></p> <p>附合石核</p> <p>곡성 오지리 / 구석기 시대</p>	<p>곡성 오지리에서 출토된 이 몸돌은 몸돌에서 떼어진 격지를 접합한 것으로 몸돌에서 돌을 떼어내는 과정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돌날 기법은 몸돌에서 연속적으로 돌날을 떼어 내는 기술입니다. 몸돌에서 떼어진 돌날은 날카로운 날이 있으며 길이가 너비보다 두 배 이상 긴 격지를 말합니다. 돌날은 그 상태로 사용되거나 다른 석기를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p> <p>돌을 떼어 내어 석기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뿔이나 돌로 된 망치를 이용하여 돌을 때는 방법이 있는데, 손으로 직접 때리거나 모루돌에 대고 때립니다. 그리고 몸돌과 망치 사이에 끝이 뿔죽한 썰기를 대고 때리기도 합니다. 한편 손으로 눌러 돌을 때는 방법이 있으며, 누름 도구로 배·가슴 등 신체 일부분의 힘을 이용하여 눌러 떼는 방법도 있습니다.</p>	<p>이 유물은 원석에서 돌을 떼어 내는 과정을 알 수 있는 석기입니다.</p> <p>돌을 떼어 내 석기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p> <p>첫째, 뿔이나 돌로 된 망치를 이용해서 떼는 방법입니다. 손으로 직접 때리거나 받침돌에 대고 때립니다.</p> <p>둘째, 몸돌과 망치 사이에 끝이 뿔죽한 썰기를 대고 때리는 방법입니다.</p> <p>셋째, 손으로 눌러 돌을 떼거나 누름 도구로 배나 가슴 등을 이용해 눌러서 떼는 방법도 있습니다.</p>	<p>이 유물은 원석에서 돌을 떼어 내는 과정을 알 수 있는 석기이다.</p> <p>돌을 떼어 내 석기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p> <p>첫째, 뿔이나 돌로 된 망치를 이용해서 떼는 방법이다. 손으로 직접 때리거나 받침돌에 대고 때린다.</p> <p>둘째, 몸돌과 망치 사이에 끝이 뿔죽한 썰기를 대고 때리는 방법이다.</p> <p>셋째, 손으로 눌러 돌을 떼거나 누름 도구로 배나 가슴 등을 이용해 눌러서 떼는 방법도 있다.</p>	
4	<p><b>갈판과 갈돌</b></p> <p>礪石 · 礪石捧</p> <p>신안 가거도, 여수 송도 / 신석기시대</p>	<p>갈판과 갈돌은 곡식의 껍질을 벗기고 가루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확인되는 갈판과 갈돌은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갈판과 갈돌은 처음에는 도토리 등에 사용되었으나 농사를 지으면서 점차 곡식을 가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조와 수수의 재배가 많았으므로 당시의 갈판과 갈돌은 가루를 내는 용도보다는 껍질을 벗기는 데 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평한 갈판의 가운데 부분은 사용으로 인하여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청동기 시대까지도 사용된 갈판과 갈돌은 절구와 공이가 등장하며 점차 농경 도구에서 자취를 감춥니다.</p>	<p>이 유물은 곡식의 껍질을 벗기거나 가루로 만드는 도구입니다.</p> <p>갈판과 갈돌은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확인되며 당시 사람들의 식생활 모습을 보여 줍니다.</p> <p>청동기 시대까지 사용되었지만 이후 시기에 절구와 공이가 등장하며 점차 사라졌습니다.</p>	<p>이 유물은 곡식의 껍질을 벗기거나 가루로 만드는 도구이다.</p> <p>갈판과 갈돌은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확인되며 당시 사람들의 식생활 모습을 보여 준다.</p> <p>청동기 시대까지 사용되었지만 이후 시기에 절구와 공이가 등장하며 점차 사라졌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5	<p><b>흑요석</b> 黑曜石</p> <p>여수 안도 · 송도 / 신석기 시대</p>	<p>흑요석은 유리질의 화산암으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백두산과 일본의 화산 지대에서 나오기 때문에 매우 귀합니다. 흑요석은 얇게 떼어 내면 날카로운 날을 얻을 수 있어 도구 제작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흑요석은 여수 안도와 송도 조개무지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특히 송도에서 출토된 흑요석의 원산지는 일본 규슈(九州) 지역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남해안 지역과 일본 규슈 지역 간 교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p>	<p>이 유물은 흑요석으로 만든 석기입니다. 흑요석은 유리로 된 화산암으로, 주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발견됩니다.</p> <p>여수 송도에서 출토된 흑요석은 일본 규슈 지역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과 일본 규슈 지역 간에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p>	<p>이 유물은 흑요석으로 만든 석기입니다. 흑요석은 유리로 된 화산암으로, 주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발견된다.</p> <p>여수 송도에서 출토된 흑요석은 일본 규슈 지역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과 일본 규슈 지역 간에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p>	
6	<p><b>조가비 팔찌</b> 貝釧</p> <p>여수 안도 / 신석기 시대</p>	<p>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조개 · 동물의 이빨과 뼈, 돌, 흙 등을 가공하여 몸을 치장하였습니다.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는 조가비로 만든 팔찌가 많이 확인됩니다. 특히 여수 안도 조개더미 유적에서는 사람 뼈에 끼워진 상태로 출토되어 팔찌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팔찌에 사용된 조개의 종류는 대략 10여종으로 한정되는데, 투박 조개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조가비 팔찌는 바다와 멀리 떨어진 내륙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흑요석과 더불어 당시 사람들이 교류에 사용하였던 중요한 물품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조가비 팔찌에는 신석기시대 사람들의 예술성과 사회성이 담겨있습니다.</p>	<p>이 유물은 조가비(조개껍데기)로 만든 팔찌입니다.</p> <p>조가비 팔찌는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여수 안도 조개무지에서는 무덤에서 사람 팔에 끼워진 조가비 팔찌가 발견되었습니다.</p> <p>조가비 팔찌는 흑요석과 더불어 당시 사람들이 교류에 사용하던 중요한 물품이었습니다.</p>	<p>이 유물은 조가비(조개껍데기)로 만든 팔찌이다.</p> <p>조가비 팔찌는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많이 발견된다. 여수 안도 조개무지에서는 무덤에서 사람 팔에 끼워진 조가비 팔찌가 발견되었다.</p> <p>조가비 팔찌는 흑요석과 더불어 당시 사람들이 교류에 사용하던 중요한 물품이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7	이음낚시 結合式釣具 針 완도 여서도 외 / 신석기 시대	주로 강가나 바닷가에 살았던 신석기 시대 사람들에게 물고기는 중요한 식량 자원이었습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그물이나 낚시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특히 낚시는 신석기 시대에 보편적으로 사용된 고기잡이 방식입니다.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는 다양한 모양의 낚시 바늘이 많이 출토됩니다. 특히 낚시 바늘을 따로 만들어 낚시 허리에 결합시켜 사용한 이음낚시는 고기잡이 기술의 발전을 보여줍니다. 이음낚시는 주로 동물의 이빨이나 뼈로 만들었는데, 간혹 돌로 된 것도 확인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음낚시는 우리나라의 남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이 확인됩니다.	이 유물은 뼈로 만든 낚시바늘입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낚시바늘을 따로 만들어 결합시켜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음낚시는 고기잡이 기술이 발전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이음낚시는 주로 동물 이빨이나 뼈로 만들었지만 가끔 돌로 만든 것도 발견됩니다.	이 유물은 뼈로 만든 낚시바늘이다. 신석기 시대에는 낚시바늘을 따로 만들어 결합시켜 사용하였다. 이러한 이음낚시는 고기잡이 기술이 발전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음낚시는 주로 동물 이빨이나 뼈로 만들었지만 가끔 돌로 만든 것도 발견된다.	
8	간 돌검 磨製石劍 여수 적량동 외 /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의 간 돌검은 규모가 큰 집자리나 고인돌, 돌널무덤 등의 무덤에서 출토됩니다. 간돌검은 처음에는 사냥 도구나 무기 등 실용적으로 사용되다가 점차 권위를 상징하는 도구로 변해갑니다. 특히 무덤에서 출토되는 손잡이가 넓은 간 돌검은 실용성이 없으며 껍묻거리(副葬品)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간 돌검은 칼과 자루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것과 자루를 따로 만들어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루를 따로 만들어 사용하는 간 돌검은 나무 등으로 자루를 만들었습니다.	이 유물은 간 돌검입니다. 간 돌검은 규모가 큰 집자리나 고인돌, 돌널무덤 등에서 출토됩니다. 간 돌검은 지위를 상징하는 도구로 해석됩니다. 손잡이가 넓어 실용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 돌검은 칼과 자루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것과 자루를 따로 만들어 합친 것이 있습니다. 자루를 따로 만든 간 돌검은 주로 나무로 자루를 만들었습니다.	이 유물은 간 돌검이다. 간 돌검은 규모가 큰 집자리나 고인돌, 돌널무덤 등에서 출토된다. 간 돌검은 지위를 상징하는 도구로 해석된다. 손잡이가 넓어 실용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간 돌검은 칼과 자루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것과 자루를 따로 만들어 합친 것이 있다. 자루를 따로 만든 간 돌검은 주로 나무로 자루를 만들었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9	<p><b>볍씨 자국이 있는 민무늬 토기</b></p> <p>無文土器</p> <p>함평 월산리 / 청동기 시대</p>	<p>청동기 시대에는 쌀, 보리, 콩, 조, 수수 등 다양한 곡물이 재배되었는데, 잡곡농사와 더불어 벼농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벼농사의 증거는 청동기 시대 유적에서 출토되는 불에 탄 쌀과 볍씨 자국이 있는 민무늬 토기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물은 함평 월산리 유적에서 출토된 볍씨 자국이 있는 민무늬 토기입니다. 토기 바닥의 볍씨 자국은 토기를 빚을 때 바닥에 묻은 볍씨가 구워지며 그 흔적이 남는 것입니다.</p>	<p>이 유물은 볍씨 자국이 있는 민무늬 토기입니다.</p> <p>토기 바닥의 볍씨 자국은 토기를 만들 때 바닥에 묻은 볍씨가 함께 구워져 흔적이 남은 것입니다.</p> <p>청동기 시대 유적에서 출토되는 불에 탄 쌀이나, 볍씨 자국이 있는 민무늬 토기 등의 예를 통해 벼농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p>	<p>이 유물은 볍씨 자국이 있는 민무늬 토기이다.</p> <p>토기 바닥의 볍씨 자국은 토기를 만들 때 바닥에 묻은 볍씨가 함께 구워져 흔적이 남은 것이다.</p> <p>청동기 시대 유적에서 출토되는 불에 탄 쌀이나, 볍씨 자국이 있는 민무늬 토기 등의 예를 통해 벼농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p>	
10	<p><b>세모 돌칼</b></p> <p>三角形石刀</p> <p>영암 장천리, 나주 영평리 / 청동기 시대</p>	<p>세모 돌칼은 반달 돌칼처럼 곡식의 이삭을 자르는 도구입니다. 중앙에는 손을 고정하는 끈을 연결할 수 있도록 2개의 구멍이 뚫려있습니다. 삼각형의 두 변에 날이 있는데, 한쪽 면의 날과 다른 면의 날의 방향이 엇갈리는 엇날입니다. 이러한 세모 돌칼은 반달 돌칼보다 기능이 뛰어나 벼농사가 성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청동기 시대 중기 이후에 서남부 지역에서 유행하였습니다.</p>	<p>이 유물은 세모 돌칼로, 곡식의 이삭을 자르는 도구입니다. 청동기 시대 중기 이후 서남부 지역에서 유행한 종류입니다.</p> <p>중앙에 있는 구멍은 돌칼을 손에 고정시키기 쉽게 끈을 넣기 위함입니다.</p>	<p>이 유물은 세모 돌칼로, 곡식의 이삭을 자르는 도구이다. 청동기 시대 중기 이후 서남부 지역에서 유행한 종류이다.</p> <p>중앙에 있는 구멍은 돌칼을 손에 고정시키기 쉽게 끈을 넣기 위함이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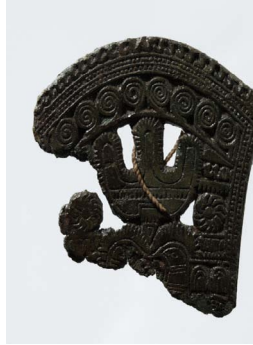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11	<p><b>돌도끼</b></p> <p>石斧</p> <p>장흥 송정리 / 청동기 시대</p>	<p>돌도끼는 주로 나무를 자르고 다듬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돌도끼는 한쪽 끝에 날이 있고, 다른 한쪽 끝에 자루를 끼워 사용하였습니다. 도끼의 날은 양쪽 날로 된 것과 한쪽 날로 된 것이 있습니다. 양쪽 날 돌도끼는 주로 나무를 베는데 사용되었고, 한쪽 날 돌도끼는 벌목한 나무를 가공하는데 사용되었는데 자귀·홈자귀 등이 있습니다. 홈자귀는 자루가 끼워지는 부분에 홈이 있는 자귀입니다. 돌도끼는 원하는 모양으로 돌을 대략 떼어낸 후 숫돌에 갈아 완성하는데, 청동기 시대의 돌도끼는 신석기 시대의 돌도끼에 비하여 잘 갈려져 있습니다.</p>	<p>이 유물은 한쪽 끝에 양날을 만든 돌도끼입니다.</p> <p>도끼는 양면 모두 날로 된 것과 한쪽만 날로 된 것이 있습니다.</p> <p>양쪽 날 돌도끼는 주로 나무를 베는 데 사용되었고, 한쪽 날 돌도끼는 나무를 가공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p>	<p>이 유물은 한쪽 끝에 양날을 만든 돌도끼이다.</p> <p>도끼는 양면 모두 날로 된 것과 한쪽만 날로 된 것이 있다.</p> <p>양쪽 날 돌도끼는 주로 나무를 베는데 사용되었고, 한쪽 날 돌도끼는 나무를 가공하는 데 사용하였다.</p>	
12	<p><b>요령식 동검</b></p> <p>遼寧式銅劍</p> <p>여수 적량동 외 / 청동기 시대</p>	<p>요령식 동검은 청동기 시대 전기의 대표적인 청동기입니다. 한반도를 비롯하여 중국 요령 지역에서 많이 출토되어 요령식 동검이라 하며, 모양이 비파(琵琶)를 닮아서 비파형 동검이라고도 불립니다. 요령식 동검은 칼과 자루를 따로 조조한 후 조합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인돌과 돌널무덤에서 주로 출토되며, 청동거울, 옥 꾸미개와 함께 나오기도 합니다. 요령식 동검 가운데 습베에 홈이 파여진 것은 중국에서는 보이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도 중부 이남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형식입니다.</p>	<p>이 유물은 요령식 동검으로, 청동기 시대 전기의 대표 유물입니다. 한반도뿐 아니라 중국 요령 지역에서도 많이 출토됩니다. 모양이 비파라는 악기를 닮아 비파형 동검이라고도 합니다.</p> <p>요령식 동검의 특징 중에서 습베(자루에 박히는 뾰족한 부분)에 홈이 파인 것은 중국에서는 없는 우리나라 중부 이남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종류입니다.</p>	<p>이 유물은 요령식 동검으로, 청동기 시대 전기의 대표 유물이다. 한반도뿐 아니라 중국 요령 지역에서도 많이 출토된다. 모양이 비파라는 악기를 닮아 비파형 동검이라고도 한다.</p> <p>요령식 동검의 특징 중에서 습베(자루에 박히는 뾰족한 부분)에 홈이 파인 것은 중국에서는 없는 우리나라 중부 이남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종류이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13	<p><b>돌 화살촉</b></p> <p>石鏃</p> <p>나주 장동리 외 / 청동기 시대</p>	<p>돌 화살촉은 화살의 앞부분에 끼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화살은 먼 거리에 서도 목표물을 맞힐 수 있어 사냥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전쟁에서는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돌 화살촉은 화살대와 연결되는 부분에 슛배가 있는 것과 슛배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고인돌이나 돌널무덤 등 청동기 시대의 무덤에서는 길이가 긴 돌 화살촉이 다발로 발견되기도 하는데, 길이가 긴 돌 화살촉은 무덤에 넣는 껴묻거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p>	<p>이 유물은 돌 화살촉입니다. 돌 화살촉은 화살대와 연결되는 부분에 슛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p> <p>고인돌이나 돌널무덤 등 청동기 시대의 무덤에서는 길이가 긴 돌 화살촉이 여러 개 발견되었습니다. 집터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아 의례용으로 특별히 만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p>	<p>이 유물은 돌 화살촉이다. 돌 화살촉은 화살대와 연결되는 부분에 슛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p> <p>고인돌이나 돌널무덤 등 청동기 시대의 무덤에서는 길이가 긴 돌 화살촉이 여러 개 발견되었다. 집터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아 의례용으로 특별히 만들었을 것으로 보인다.</p>	
14	<p><b>곱은옥</b></p> <p>曲玉</p> <p>무안 월암리 / 청동기 시대</p>	<p>선사 시대 사람들은 아름다운 돌을 다듬어 몸을 치장하였습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곱은옥(曲玉), 대롱옥(管玉), 구슬옥(丸玉) 등 다양한 모양의 옥 꾸미개가 등장합니다. 곱은옥은 시(C) 자 모양으로 구부러져 있는 옥으로 한쪽 끝에 구멍을 뚫려 있고, 천하석제(天河石製)로 만들어진 것이 많습니다. 곱은옥은 고인돌이나 돌널무덤 등 무덤에서 많이 나오며, 무덤에서 출토되는 위치로 보아 주로 목걸이나 귀걸이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곱은옥은 무안 월암리 고인돌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곱은옥과는 달리 구멍이 2개 뚫려 있는 점이 독특합니다. 이러한 모양의 곱은옥은 청동검과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소유자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p>	<p>선사 시대 사람들은 아름다운 돌을 다듬어 몸을 치장했습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곱은옥, 대롱옥, 구슬옥 등 다양한 모양의 옥 장식이 발견됩니다.</p> <p>곱은옥은 고인돌이나 돌널무덤 등에서 발견되며, 무덤에서 발견되는 위치로 보았을 때 목걸이나 귀걸이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p> <p>이 유물은 천하석제 곱은옥으로, 무안 월암리 제1호 고인돌에서 석촉, 숫돌, 청동편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천하석제 곱은옥은 주로 세형 동검과 함께 출토됩니다. 동시기에 출토되는 곱은옥들과 달리 구멍을 2개 뚫은 점이 독특합니다.</p>	<p>선사 시대 사람들은 아름다운 돌을 다듬어 몸을 치장했다. 청동기 시대에는 곱은옥, 대롱옥, 구슬옥 등 다양한 모양의 옥 장식이 발견된다.</p> <p>곱은옥은 고인돌이나 돌널무덤 등에서 발견되며, 무덤에서 발견되는 위치로 보았을 때 목걸이나 귀걸이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p> <p>이 유물은 천하석제 곱은옥으로, 무안 월암리 제1호 고인돌에서 석촉, 숫돌, 청동편과 함께 발견되었다. 일반적인 곱은옥들과 달리 구멍을 2개 뚫은 점이 독특하다. 이 곱은옥은 주로 세형 동검과 함께 출토된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15	<b>한국식 동검</b> 韓國式銅劍 부여 구봉리 외 / 초기 철기 시대	<p>한국식 동검은 모양이 가늘고 뾰족하여 세형 동검細形銅劍이라고도 합니다. 한국식 동검도 요령식 동검과 마찬가지로 칼과 자루를 따로 조조한 후 조합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한국식 동검은 중서부 지역에서 처음 사용되고 청동 거울, 검은 간 토기, 덧띠 토기 등과 함께 주로 돌무지널무덤(積石木棺墓)에서 출토됩니다.</p>	<p>이 유물은 한국식 동검(세형 동검)입니다.</p> <p>요령식 동검과 마찬가지로 칼과 자루를 따로 만든 후 합하여 사용합니다.</p> <p>한반도에서 한국식 동검은 중서부 지역에서 처음 사용되고 청동 거울, 검은 간 토기, 덧띠 토기 등과 함께 주로 돌무지널무덤에서 출토됩니다.</p>	<p>이 유물은 한국식 동검(세형 동검)입니다.</p> <p>요령식 동검과 마찬가지로 칼과 자루를 따로 만든 후 합하여 사용합니다.</p> <p>한반도에서 한국식 동검은 중서부 지역에서 처음 사용되고 청동 거울, 검은 간 토기, 덧띠 토기 등과 함께 주로 돌무지널무덤에서 출토됩니다.</p>	
16	<b>잔무늬 거울</b> 精文鏡 논산 원북리 / 초기 철기 시대	<p>청동 거울은 얼굴을 비추는 용도지만, 청동기 시대에는 권위를 상징하는 도구이기도 하였습니다. 거울은 장식이 없는 매끈한 앞면이 거울로 사용되었으며 뒷면에는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만들어진 거울은 거친무늬 거울로 거울 뒷면 장식이 굵은 선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청동기 제작 기술이 발달하며 잔무늬 거울이 만들어지는데, 잔무늬거울은 세모, 네모, 둥근 무늬 등을 정교하게 배치시킨 것입니다. 잔무늬 거울은 거친무늬 거울 보다 약간 늦은 시기에 나타나는데, 한국식 동검, 옥 꾸미개 등과 같이 출토되기도 합니다.</p>	<p>이 유물은 청동 거울입니다. 청동 거울은 지위를 상징하는 도구입니다.</p> <p>처음 만들어진 거울은 거친무늬 거울로 뒷면 장식이 굵은 선으로 이루어졌습니다.</p> <p>청동기 제작 기술이 발달하며 잔무늬 거울이 만들어지는데, 이 거울은 세모, 네모, 둥근 무늬 등을 정교하게 배치하였습니다.</p>	<p>이 유물은 청동 거울이다. 청동 거울은 지위를 상징하는 도구이다.</p> <p>처음 만들어진 거울은 거친무늬 거울로 뒷면 장식이 굵은 선으로 이루어졌다.</p> <p>청동기 제작 기술이 발달하며 잔무늬 거울이 만들어지는데, 이 거울은 세모, 네모, 둥근 무늬 등을 정교하게 배치하였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17	<p>민무늬 토기</p> <p>無文土器</p> <p>영암 장천리 / 청동기 시대</p>	<p>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점차 농사를 짓기 좋은 곳에 정착하여 마을을 이루고 살았으며, 민무늬 토기를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민무늬 토기는 청동기시대에 사용된 그릇입니다. 민무늬 토기는 일반적으로 무늬가 없지만, 짧은 빗금무늬나 구멍무늬 등이 새겨진 것도 있습니다. 또한 산화철을 바르고 문질러 구워 붉은 빛깔과 광택이 나는 붉은 간 토기도 민무늬 토기에 포함됩니다. 그릇의 모양은 매우 다양한데, 바리나 항아리 등이 많이 확인됩니다. 청동기 시대의 민무늬 토기는 주로 곡식의 저장이나 음식을 담는 식생활 용구로 사용되었습니다.</p>	<p>이 유물은 민무늬 토기입니다.</p> <p>민무늬 토기는 보통은 무늬가 없지만, 일부 짧은 빗금을 새기거나 여러 개의 구멍을 뚫은 토기도 있습니다.</p> <p>주로 곡식을 저장하거나 음식을 담는 식생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p>	<p>이 유물은 민무늬 토기이다.</p> <p>민무늬 토기는 보통은 무늬가 없지만, 일부 짧은 빗금을 새기거나 여러 개의 구멍을 뚫은 토기도 있다.</p> <p>주로 곡식을 저장하거나 음식을 담는 식생활 도구로 사용되었다.</p>	
18	<p>화천</p> <p>貨泉</p> <p>해남 군곡리 / 원삼국 시대</p>	<p>화천(貨泉)은 중국 신(新)나라(7년 ~ 23년) 때 만들어진 동전입니다. 해남 군곡리 조개무지 유적에서는 화천이 출토되어 유적의 연대를 짐작하는데 좋은 자료입니다. 동전의 모양은 둥글며 가운데에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구멍의 오른쪽에는 貨(화) 자가, 왼쪽에는 泉(천) 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화천은 당시 중국과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합니다.</p>	<p>이 유물은 화천(중국 신나라 동전)이다. 구멍의 오른쪽에는 ‘貨(화)’ 자가, 왼쪽에는 ‘泉(천)’ 자가 있습니다.</p> <p>화천은 유적의 연대를 짐작하는 데 좋은 자료로 활용됩니다. 당시 중국과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p>	<p>이 유물은 화천(중국 신나라 동전)이다. 구멍의 오른쪽에는 ‘貨(화)’ 자가, 왼쪽에는 ‘泉(천)’ 자가 있다.</p> <p>화천은 유적의 연대를 짐작하는 데 좋은 자료로 활용된다. 당시 중국과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19	<p>새 무늬 청동기</p> <p>鳥文靑銅器</p> <p>영광 화평리 / 원삼국 시대</p>	<p>새 무늬 청동기는 방패 모양의 청동기에 새 무늬가 새겨진 청동기로 영광 화평리와 고성 동외동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새 무늬 청동기는 윗부분에 山(산)자 모양이 있으며 그 아래에 두 마리의 새가 마주보고 있는데, 영광 화평리의 것은 새의 머리 부분만 보이며 그 아래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고대사회에서 새는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의미로 이해되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청동기는 의례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p>	<p>이 유물은 방패 모양에 새 무늬가 새겨져 있는 청동기입니다. 영광 화평리와 고성 동외동에서 발견됐습니다.</p> <p>새 무늬 청동기의 윗부분에는 ‘山(산)’자 모양이 있고, 그 아래 두 마리의 새가 마주보고 있습니다.</p> <p>영광 화평리 유적에서 발견된 새 무늬 청동기는 새의 머리 부분만 보이며 아래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p> <p>고대 사회에서 새는 이승과 저승을 연결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새 모양 청동기는 의례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p>	<p>이 유물은 방패 모양에 새 무늬가 새겨져 있는 청동기이다. 영광 화평리와 고성 동외동에서 발견됐다.</p> <p>새 무늬 청동기의 윗부분에는 ‘山(산)’자 모양이 있고, 그 아래 두 마리의 새가 마주보고 있다.</p> <p>영광 화평리 유적에서 발견된 새 무늬 청동기는 새의 머리 부분만 보이며 아래는 남아 있지 않다.</p> <p>고대 사회에서 새는 이승과 저승을 연결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새 모양 청동기는 의례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p>	
20	<p>새 모양 토기</p> <p>鳥形土器</p> <p>담양 태목리 / 원삼국 시대</p>	<p>새 모양 토기는 새가 날개를 펼치고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진 토기입니다. 마한의 유적에서는 이러한 모양의 토기가 자주 확인됩니다. 새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어 고대 사회에서는 특별한 대상으로 여겨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의 유물 가운데에는 새와 관련된 것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담양 태목리에서 출토된 새 모양 토기는 액체를 담을 수 있는 아가리가 있고, 날개의 한쪽 끝은 막혀 있으며 한쪽 끝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p>	<p>이 유물은 새가 날개를 펼치고 있는 모양의 토기입니다. 마한 지역에서 특징적으로 발견됩니다.</p> <p>날개의 한쪽 끝은 막혀 있고 다른 쪽 끝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p> <p>새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특별하게 여겨졌을 것으로 짐작됩니다.</p>	<p>이 유물은 새가 날개를 펼치고 있는 모양의 토기이다. 마한 지역에서 특징적으로 발견된다.</p> <p>날개의 한쪽 끝은 막혀 있고 다른 쪽 끝은 구멍이 뚫려 있다.</p> <p>새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특별하게 여겨졌을 것으로 짐작된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21	<p>말 모양 허리띠 고리</p> <p>馬形帶鉤</p> <p>연기 응암리 / 원삼국 시대</p>	<p>말 모양 허리띠 고리는 허리띠의 앞쪽에 부착되어 허리띠를 연결해주는 장식입니다. 띠고리의 모양이 말 모양으로 되어 있어 말 모양 허리띠 고리라 부릅니다. 말의 엉덩이 안쪽에 띠를 걸고, 허리를 휘감은 띠는 말의 가슴 앞에 붙인 걸쇠에 걸도록 한 것입니다. 충청도를 비롯한 중부 내륙 지역에서 다수 출토되고 있으며 마한을 대표하는 유물입니다.</p>	<p>이 유물은 말 모양 허리띠 고리입니다. 허리띠의 앞쪽에 부착해 허리띠를 연결해 주는 장식입니다.</p> <p>충청도를 비롯해 중부 내륙 지역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으며, 마한을 대표하는 유물입니다.</p>	<p>이 유물은 허리띠의 앞쪽에 부착해 허리띠를 연결해 주는 장식이다.</p> <p>충청도를 비롯해 중부 내륙 지역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으며, 마한을 대표하는 유물이다.</p>	
22	<p>검은 간 토기</p> <p>黑色磨研土器</p> <p>광주 수완동 수문 / 초기 철기 시대</p>	<p>검은 간 토기는 흑연이나 망간 등의 광물질을 바르고 문지른 뒤 구운 토기입니다. 그릇은 긴 목이 달린 단지의 모양이며, 표면은 검은색을 띠며 광택이 있습니다. 주로 무덤에서 출토되거나 집자리에서 출토되기도 합니다. 함께 나오는 유물로는 한국식 동검, 덧띠 토기(粘土帶土器) 등이 있습니다. 이 검은 간 토기는 광주 수완동 수문 유적에서 출토된 것으로 움무덤(土壙墓)에서 덧띠 토기와 함께 나왔습니다.</p>	<p>이 유물은 검은 간 토기입니다. 흑연이나 망간 등의 광물질을 바르고 문지른 뒤 구웠습니다.</p> <p>이 유물은 광주 수완동 수문 유적에서 덧띠 토기와 함께 출토되었습니다.</p>	<p>이 유물은 흑연이나 망간 등의 광물질을 바르고 문지른 뒤 구웠다.</p> <p>이 유물은 광주 수완동 수문 유적에서 덧띠 토기와 함께 출토되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23	세 잎 무늬 고리 자루 칼 三葉文環頭刀 나주 복암리 / 삼국 시대	이 유물은 나주 복암리 3호분 96석실에서 출토된 세 잎 무늬 고리 자루 칼입니다. 고리 자루 가운데에 세 잎 무늬가 있어 세 잎 무늬 고리 자루 칼이라 부르고, 금, 은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주 신촌리 9호분에서 출토된 세 잎 무늬 고리 자루 칼과 비슷합니다.	이 유물은 나주 복암리 3호분 96석실에서 출토된 세 잎 무늬 고리 자루 칼입니다. 금과 은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칼은 나주 신촌리 9호분에서 출토된 세 잎 무늬 고리 자루 칼과 비슷합니다.	이 유물은 나주 복암리 3호분 96석실에서 출토된 세 잎 무늬 고리 자루 칼이다. 금과 은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 칼은 나주 신촌리 9호분에서 출토된 세 잎 무늬 고리 자루 칼과 비슷하다.	 
24	새 발 무늬 항아리 鳥足文壺 나주 덕산리 / 삼국시대	새 발 무늬 항아리는 항아리의 겉면에 마치 새 발자국과 같은 무늬가 새겨진 것을 말합니다. 이 토기는 줄무늬가 새겨진 항아리의 몸통에 새 발 무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토기는 마한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며, 영산강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됩니다. 새 발 무늬 항아리는 한반도에서 먼저 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본에서도 발견되고 있어, 영산강 유역과 일본의 교류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유물은 새 발 무늬가 장식된 항아리입니다. 주로 마한 지역에서 발견되며, 영산강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새 발 무늬 항아리는 한반도에서 먼저 나타났고 일본에서도 발견되고 있어서, 영산강 유역과 일본의 교류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이 유물은 새 발 무늬가 장식된 항아리이다. 주로 마한 지역에서 발견되며, 영산강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었다. 새발무늬 항아리는 한반도에서 먼저 나타났고 일본에서도 발견되고 있어서, 영산강유역과 일본의 교류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25	시루 甑 영광 원흥리 / 원삼국 시대	시루는 음식물을 찌는데 사용된 그릇으로 보통 솥 위에 올려놓고 사용합니다. 시루 바닥에는 김이 올라 올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시루는 초기 철기 시대에 처음으로 나타나며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광 원흥리 유적에서 출토된 시루는 바닥에 둥근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으며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이 유물은 시루입니다. 음식을 찌는데 사용하는 그릇으로, 보통 솥 위에 올려놓고 사용합니다.	이 유물은 음식을 찌는 데 사용하는 그릇으로, 보통 솥 위에 올려놓고 사용합니다. 시루 바닥에는 김이 올라올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다. 시루는 초기 철기 시대에 처음으로 발견되며 오늘날에도 사용하고 있다.	
26	아궁이 틀 爐口機 광주 산정동 / 삼국 시대	아궁이 틀은 부뚜막이나 가마 아궁이의 테두리에 붙였던 것입니다. 아궁이 틀은 4세기경 고구려와 백제의 대립과정에서 백제 중심 지역으로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영산강 유역에서는 5세기경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유물은 광주 산정동 유적 집자리에서 나온 아궁이 틀로, 점토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유물은 점토로 만든 아궁이 틀입니다. 부뚜막이나 가마 아궁이의 테두리를 붙였던 것입니다. 아궁이 틀은 4세기경 고구려와 백제의 대립 과정에서 백제 중심 지역으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산강 유역에서는 5세기경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유물은 점토로 만든 아궁이 틀입니다. 부뚜막이나 가마 아궁이의 테두리를 붙였던 것입니다. 아궁이 틀은 4세기경 고구려와 백제의 대립 과정에서 백제 중심 지역으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산강 유역에서는 5세기경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27	겹아가리 쌍단지 二重口緣雙壺 함평 소명동 / 원삼국 시대	겹아가리 단지는 아가리가 겹으로 된 토기로 마한의 유적에서 주로 출토됩니다. 함평 소명동 유적에서는 겹아가리 단지 2개가 붙여진 상태인 겹아가리 쌍단지가 출토되었습니다. 이러한 토기는 일반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독특한 모양입니다.	이 유물은 아가리가 겹으로 된 단지 두 개를 붙인 토기입니다. 주로 마한의 유적에서 출토됩니다. 겹아가리 쌍단지는 일반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모양입니다.	이 유물은 아가리가 겹으로 된 단지 두 개를 붙인 토기이다. 주로 마한의 유적에서 출토된다. 겹아가리 쌍단지는 일반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모양이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28	<p>숫돌 砥石</p> <p>보성 도안리 / 초기 철기 시대</p>	<p>숫돌은 돌이나 옥을 가는 도구로 석기와 옥 꾸미개 제작에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입니다. 이 숫돌은 보성 도안리 집자리에서 출토된 것으로 한쪽 면에 8줄의 홈이 파여 있습니다. 집자리에서 함께 출토된 옥으로 미루어 옥을 갈았던 숫돌이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옥 꾸미개는 원석을 갈아서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과 정성이 요구됩니다. 곱은옥의 경우 먼저 원석을 채취하여 적당한 크기로 잘라낸 다음 대강의 형태를 만듭니다. 원하는 형태가 만들어지면 구멍을 뚫고, 숫돌에 갈아 완성합니다. 구멍을 뚫을 때 고운 모래가루를 넣으면 쉽게 뚫립니다. 대롱옥은 먼저 원석을 길게 잘라 낸 후 원통 모양으로 다듬고 일정한 크기로 자릅니다. 그 다음 구멍을 뚫고, 숫돌에 갈아 완성합니다. 구멍은 주로 양쪽에서 뚫었는데, 구멍 안쪽에는 회전으로 인한 자국이 남아있습니다.</p>	<p>이 유물은 숫돌입니다. 돌이나 옥을 가는 도구로 석기와 옥 꾸미개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p> <p>이 숫돌은 보성 도안리 집터에서 출토된 것으로 한쪽 면에 여덟 줄의 홈이 파여 있습니다. 수정 원석 조각, 수정제 미완성 제품, 곡옥 등이 함께 출토되었는데, 숫돌이 꾸미개를 가공하던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p>	<p>이 유물은 숫돌이다. 돌이나 옥을 가는 도구로 석기와 옥 꾸미개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도구이다.</p> <p>이 숫돌은 보성 도안리 집터에서 출토된 것으로 한쪽 면에 여덟 줄의 홈이 파여 있다. 수정 원석 조각, 수정제 미완성 제품, 곡옥 등이 함께 출토되었는데, 숫돌이 꾸미개를 가공하던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p>	
29	<p>거꾸집 琉璃鎔范</p> <p>담양 태목리 외 / 삼국 시대</p>	<p>이 유물은 유리구슬을 찍어내는 거꾸집입니다. 거꾸집은 흙을 구워 만들었는데, 흙 판에는 유리 용액을 넣는 둥근 홈이 여러 개 파여 있습니다. 둥근 홈 안에는 철심을 꽂는 작은 바늘구멍이 있습니다. 철심은 유리구슬에 구멍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흙 안에 유리용액을 넣으면 철심이 있는 부분은 유리용액이 닿지 않아 구멍이 만들어집니다. 유리구슬은 도가니에서 녹인 유리</p>	<p>이 유물은 유리구슬을 찍어 내는 흙을 구워 만든 거꾸집입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담양 태목리, 광주 선암동, 해남 군곡리 유적 등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유리구슬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p> <p>첫째, 흙판에 유리 용액을 부어 만드는 방법입니다. 도가니(화로에 올려 금속을 녹이는 데 사용하는 그릇)에 녹인 유리 용액을 거꾸집에 부어서 만드니</p>	<p>이 유물은 유리구슬을 찍어 내는 흙을 구워 만든 거꾸집이다. 전남 지역에서는 담양 태목리, 광주 선암동, 해남 군곡리 유적 등에서 출토되었다. 유리구슬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p> <p>첫째, 흙판에 유리 용액을 부어 만드는 방법이다. 도가니(화로에 올려 금속을 녹이는 데 사용하는 그릇)에 녹인 유리 용액을 거꾸집에 부어서 만든</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용액을 거꾸집에 부어 만들지만, 거꾸집의 둥근 홈에 유리 가루나 유리 덩어리를 넣고 열을 가하여 녹인 후 식혀서 만들기도 합니다. 유리구슬 거꾸집은 전남 지역에서는 담양 태목리, 광주 선암동, 해남 군곡리 유적 등에서 출토되었습니다.	다. 유리 용액을 넣는 둥근 홈 안에는 철심을 쫓는 작은 바늘구멍이 있고, 홈에 유리 용액을 넣으면 철심이 있는 부분에 구멍이 생깁니다. 둘째, 거꾸집의 둥근 홈에 유리 가루나 유리 덩어리를 넣고 열을 가해 녹인 후 식혀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 유리 용액을 넣는 둥근 홈 안에는 철심을 쫓는 작은 바늘구멍이 있고, 홈에 유리 용액을 넣으면 철심이 있는 부분에 구멍이 생깁니다. 둘째, 거꾸집의 둥근 홈에 유리 가루나 유리 덩어리를 넣고 열을 가해 녹인 후 식혀서 만드는 방법도 있다.	
30	거꾸집 鐵斧鎔范 광양 도월리 / 원삼국 시대	이 유물은 쇠도끼를 찍어내는 거꾸집이며, 광양 도월리 유적에서 출토되었습니다. 거꾸집은 흙을 구워 만들었는데, 도끼의 날 부분은 넓고 자루가 끼워지는 부분은 좁습니다. 이 거꾸집이 나온 구덩이에서는 도가니의 뚜껑으로 보이는 유물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거꾸집은 당시의 철기 제작 기술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 유물은 쇠도끼를 찍어 내는 거꾸집입니다. 당시의 철기 제작 기술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광양 도월리 출토 거꾸집은 흙을 구워서 만들었는데, 도끼의 날 부분은 넓고 자루가 끼워지는 부분은 좁습니다. 이 거꾸집이 발견된 구덩이에서는 도가니의 뚜껑으로 보이는 유물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광양 도월리 구덩이에서 발견되었다. 이 유물은 흙으로 만든 것으로 쇠도끼를 찍어 내는 거꾸집이다. 도끼의 날 부분은 넓고 자루가 끼워지는 부분은 좁다. 도가니의 뚜껑으로 보이는 유물도 함께 발견되었으며, 당시의 철기 제작 기술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31	세 잎 무늬 고리 자루 칼 三葉文環頭大刀 나주 신촌리 / 삼국 시대	고리 자루 칼은 칼자루의 끝장식이 고리로 된 칼로, 처음에는 고리 안쪽에 장식이 없는 것이 만들어지다가 점차 금, 은, 금동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것이 만들어집니다. 고리 자루 칼은 고리 안에 용이나 봉황 무늬, 세 잎 무늬로 장식된 것도 있으며, 상감 기법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것도 있습니다. 이 고리 자루 칼은 나주 신촌리 9호분에서 출토된 세 잎 무늬 고리 자루 칼입니다.	이 유물은 나주 신촌리 9호분에 출토된 세 잎 무늬 고리 자루 칼입니다. 처음에는 고리 안쪽에 장식이 없는 것을 만들었지만, 점차 금, 은, 동으로 화려하게 장식을 하였습니다. 고리 안에 용이나 봉황 무늬, 세 잎 무늬로 장식된 종류도 있습니다.	이 유물은 나주 신촌리 9호분에 출토된 세 잎 무늬 고리 자루 칼이다. 처음에는 고리 안쪽에 장식이 없는 것을 만들었지만, 점차 금, 은, 동으로 화려하게 장식을 하였다. 고리 안에 용이나 봉황 무늬, 세 잎 무늬로 장식된 종류도 있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32	<b>봉황 무늬 칼자루 끝 장식</b> 銀裝鳳凰文環頭 나주 신촌리 / 삼국 시대	<p>이 유물은 나주 신촌리 9호분에서 출토된 봉황 무늬 칼자루 끝 장식입니다. 이것은 고리 자루 칼의 칼자루 끝에 장식되는 것입니다. 고리 안에 은으로 된 봉황 무늬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유물은 금동관과 금동 신발이 출토된 을관(乙棺)에서 나왔습니다. 삼국시대의 봉황 무늬 고리 자루 칼은 위계가 높은 사람의 무덤에서 주로 출토됩니다.</p>	<p>이 유물은 나주 신촌리 9호분에서 출토된 고리 자루 칼의 칼자루 끝 장식입니다. 고리 안에는 은으로 된 봉황 무늬가 있습니다.</p> <p>삼국 시대의 봉황 무늬 고리 자루 칼은 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의 무덤에서 출토됩니다.</p>	<p>이 유물은 나주 신촌리 9호분에서 출토된 고리 자루 칼의 칼자루 끝 장식이다. 고리 안에는 은으로 된 봉황 무늬가 있다.</p> <p>삼국 시대의 봉황 무늬 고리 자루 칼은 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의 무덤에서 출토된다.</p>	
33	<b>금동 신발</b> 金銅飾履 나주 신촌리 / 삼국 시대	<p>이 신발은 나주 신촌리 9호분의 독널에서 금동관과 함께 출토되었습니다. 금동신발은 금동관의 반대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금동신발은 바닥판 위에 두 장의 옆판을 발등과 발뒤꿈치에서 고정시키고, 옆판의 아랫부분은 접어 바닥판에 연결시켜 만들었습니다. 무늬는 금동관을 두드려 새겼는데, 이 금동신발은 2줄의 점열이 교차되어 마름모꼴의 무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금동신발의 바닥에는 짧은 못이 박혀 있습니다.</p>	<p>이 유물은 나주 신촌리 9호분에서 출토된 금동 신발입니다. 금동관과 함께 출토된 것으로 금동관의 반대편에 놓여 있었습니다.</p> <p>이 신발은 두 장의 옆판을 발등과 발뒤꿈치에 고정시키고, 옆판의 아랫부분은 접어서 바닥판에 연결하여 만들었습니다.</p> <p>무늬는 금동관을 두드려서 새겼는데, 두 줄의 점열이 교차되어 마름모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p> <p>신발의 바닥에는 꽃무늬가 있으며 짧은 못이 박혀 있습니다.</p>	<p>이 유물은 나주 신촌리 9호분에서 출토된 금동 신발이다. 금동관과 함께 출토된 것으로 금동관의 반대편에 놓여 있었다.</p> <p>이 신발은 두 장의 옆판을 발등과 발뒤꿈치에 고정시키고, 옆판의 아랫부분은 접어서 바닥판에 연결하여 만들었다.</p> <p>무늬는 금동관을 두드려서 새겼는데, 두 줄의 점열이 교차되어 마름모 모양을 만들고 있다.</p> <p>신발의 바닥에는 꽃무늬가 있으며 짧은 못이 박혀 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34	<p><b>금동관</b> 金銅冠</p> <p>나주 신촌리 / 삼국 시대 국보 제295호</p>	<p>나주 신촌리 9호분의 독널에서 나온 금동관입니다. 국보 제295호로 지정된 이 금동관은 금동대관(金銅帶冠)과 금동모관(金銅帽冠)이 한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동대관은 띠 모양의 대륜(帶輪)에 나뭇가지모양 장식을 세워 붙인 것으로, 대륜의 정면과 양옆에 세운 3줄의 나뭇가지모양 장식에는 작은 달개(璎珞)가 달려 있습니다. 금동모관은 고깔 모양의 모자로 반원 모양의 금동관 2장을 붙여 만들었습니다. 모자의 안쪽에서 도구를 이용하여 두드려 무늬를 새겼는데, 활짝 핀 꽃과 꽃봉오리 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금동관은 신분을 상징하는 꾸미개로 무덤 주인의 지위를 짐작하게 합니다.</p>	<p>이 유물은 국보 제295호로 나주 신촌리 9호분의 독널에서 발견된 금동관입니다. 금동 대관과 금동 모관이 한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분을 상징하는 꾸미개로 무덤 주인의 지위를 알 수 있는 유물입니다.</p> <p>금동 대관은 띠 모양의 대륜(테두리)에 나뭇가지 모양의 장식을 세워 붙였습니다. 대륜의 정면과 양옆에 세운 3줄의 나뭇가지모양 장식에는 반짝거리는 작은 쇠불이 장식이 달려 있습니다.</p> <p>금동 모관은 고깔 모양의 모자로 반원 모양의 금동관 두 장을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모자의 안쪽에서 도구를 이용하여 두드려 무늬를 새겼는데, 활짝 핀 꽃과 꽃봉오리 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p>	<p>이 유물은 국보 제295호로 나주 신촌리 9호분의 독널에서 발견된 금동관입니다. 금동 대관과 금동 모관이 한 쌍으로 되어 있다. 신분을 상징하는 꾸미개로 무덤 주인의 지위를 알 수 있는 유물이다.</p> <p>금동 대관은 띠 모양의 대륜(테두리)에 나뭇가지 모양의 장식을 세워 붙였다. 대륜의 정면과 양옆에 세운 3줄의 나뭇가지모양 장식에는 반짝거리는 작은 쇠불이 장식이 달려 있다.</p> <p>금동 모관은 고깔 모양의 모자로 반원 모양의 금동관 두 장을 붙여서 만들었다. 모자의 안쪽에서 도구를 이용하여 두드려 무늬를 새겼는데, 활짝 핀 꽃과 꽃봉오리 등이 표현되어 있다.</p>	 
35	<p><b>독널</b> 甕棺</p> <p>함평 신흥동 / 초기 철기 시대</p>	<p>이 유물은 함평 신흥동에서 출토된 독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독널이 처음 사용된 것은 신석기시대부터지만, 본격적으로 사용이 늘어나는 때는 초기 철기시대부터입니다. 초기 철기 시대에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독을 무덤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전남지역과 영산강 유역에서는 2세기까지 2개의 독을 연결하여 만든 소형 독널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p>	<p>이 유물은 독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독널이 처음 사용된 것은 신석기 시대부터지만, 본격적으로 사용이 늘어나는 때는 초기 철기 시대입니다.</p> <p>초기 철기 시대에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독을 무덤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p> <p>전남 지역과 영산강 유역에서는 2세기까지 두 개의 작은 독을 연결하여 만든 독널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p>	<p>우리나라에서 독널이 처음 사용된 것은 신석기 시대부터지만, 본격적으로 사용이 늘어나는 때는 초기 철기 시대이다.</p> <p>초기 철기 시대에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독을 무덤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2세기까지 사용했다.</p> <p>전남 지역과 영산강 유역에서는 두 개의 작은 독을 연결하여 만든 독널이 주로 사용되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36	<p><b>독널</b> 甕棺</p> <p>나주 신촌리 / 삼국 시대</p>	<p>영산강 유역의 독널은 5세기부터 거대한 독널무덤(甕棺古墳)이 중심이 됩니다. 독의 형태는 전형적인 ‘U’ 자 모양입니다. 큰 쪽은 크기는 2m 가까이 커지고, 두 개가 합쳐졌을 때는 3m에 가까울 정도로 대형화됩니다. 겨문거리로 금동관, 금동 신발, 고리 자루 칼 등이 발견되어 영산강 유역 토착 세력의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대형화된 독널은 나주, 영암, 함평, 무안 등 영산강 중하류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p> <p>이 독널은 나주 신촌리 9호분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신촌리 9호분은 영산강 유역 고분 문화 가운데 토착성이 짙게 배어있는 나주 반남고분군의 독널 무덤 가운데 하나입니다. 1917년의 발굴 조사 결과 총 11기의 독널이 확인되었고, 그 가운데 을관(乙棺)에서는 금동관, 금동 신발 등 영산강 유역 독널 무덤 가운데 가장 화려한 겨문거리가 확인되어 무덤 주인이 당시 이 지역 최고의 권력자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p>	<p>이 유물은 나주 신촌리 9호분에서 발견된 독널로, 독널과 함께 금동관, 금동 신발 등 화려한 겨문거리가 발견되어 무덤 주인이 당시 이 지역의 최고 권력자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p> <p>영산강 유역의 독널은 5세기부터 거대한 독널 무덤이 중심이 됩니다. 독의 형태는 ‘U’ 자 모양이고 큰 쪽은 크기가 2m까지 커지고, 두 개를 합쳤을 때 3m에 가까울 정도로 커졌습니다.</p> <p>이렇게 대형화된 독널은 나주, 영암, 함평, 무안 등 영산강 중하류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됩니다.</p>	<p>이 유물은 나주 신촌리 9호분에서 발견된 독널로, 독널과 함께 금동관, 금동 신발 등 화려한 겨문거리(시체와 함께 묻는 물건)가 발견되어 무덤 주인이 당시 이 지역의 최고 권력자였을 것으로 추측된다.</p> <p>영산강 유역의 독널은 5세기부터 거대한 독널 무덤이 중심이 된다. 독의 형태는 ‘U’ 자 모양이고 큰 쪽은 크기가 2m까지 커지고, 두 개를 합쳤을 때 3m에 가까울 정도로 커졌다.</p> <p>이렇게 대형화된 독널은 나주, 영암, 함평, 무안 등 영산강 중하류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된다.</p>	
37	<p><b>독널</b> 甕棺</p> <p>나주 북암리 / 삼국 시대</p>	<p>영산강 유역에서는 6세기 중반부터 백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독널의 모양과 사용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형적인 유(U) 자 모양 독널의 제작과 사용이 줄어들고, 돌을 이용해 독널의 입구를 막는 예도 늘어납니다. 특히 백제식의 굴식 돌방무덤의 등장과 성행에</p>	<p>이 유물은 나주 북암리 3호분 96석실에서 발견된 독널로, 널 안에서 사람 뼈가 발견되었습니다.</p> <p>영산강 유역에서는 6세기 중반부터 백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독널의 모양과 사용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형적인 ‘U’ 자 모양 독널이 줄어들고, 돌</p>	<p>이 유물은 나주 북암리 3호분 96석실에서 발견된 독널로, 널 안에서 사람 뼈가 발견되었다.</p> <p>영산강 유역에서는 6세기 중반부터 돌을 이용해 독널의 입구를 막는 경우는 늘어난다.</p> <p>특히 백제식의 굴식 돌방무덤이 많이</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p>맞물려 새로운 형태의 무덤이 만들어지고 독널의 사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러한 독널 무덤의 소멸 과정은 결국 영산강 유역이 백제의 체제 안으로 완전히 편입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독널은 나주 복암리 3호분 96석실의 독널입니다. 96석실은 돌방 무덤이며 독널 4기가 널로 사용되었습니다. 독널에서는 사람 뼈가 확인되었습니다.</p>	<p>을 이용해 독널의 입구를 막는 경우는 늘어납니다.</p> <p>특히 백제식의 굴식 돌방 무덤(돌로 방을 만들고 그 위에 흙을 쌓아 올려 만든 무덤)이 등장하여 많이 사용되면서 독널 무덤의 사용이 크게 줄어듭니다.</p> <p>독널 무덤이 사라지는 과정은 영산강 유역이 백제의 체제로 바뀌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줍니다.</p>	<p>사용되면서 독널 무덤의 사용이 크게 줄어든다.</p> <p>독널 무덤이 사라지는 과정은 영산강 유역이 백제의 체제로 바뀌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p>	
38	<p><b>독널</b> 甕棺</p> <p>함평 월야리 순촌 / 삼국 시대</p>	<p>이 독널은 함평 월야리 순촌 유적에서 출토되었습니다. 독널은 큰 독널과 작은 독널의 아가리가 꼭 들어맞습니다. 큰 독널에 작은 독널을 밀어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작은 독널은 겹아가리입니다. 독널에는 윗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으며, 구멍을 덮는 덮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멍은 큰 독널과 작은 독널 모두 비슷한 위치에 뚫려 있는데, 이러한 모양의 독널은 영산강 유역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독특한 것입니다.</p>	<p>이 유물은 독널로, 큰 독널에 작은 독널을 밀어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p> <p>독널의 윗부분에는 구멍이 뚫려 있으며, 구멍을 덮는 덮개도 있습니다. 구멍은 큰 독널과 작은 독널 모두 비슷한 위치에 뚫려 있는데, 이러한 모양은 영산강 유역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독특한 것입니다.</p>	<p>이 유물은 독널로, 큰 독널에 작은 독널을 밀어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p> <p>독널의 윗부분에는 구멍이 뚫려 있으며, 구멍을 덮는 덮개도 있다. 구멍은 큰 독널과 작은 독널 모두 비슷한 위치에 뚫려 있는데, 이러한 모양은 영산강 유역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독특한 것이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39	<p>덩이쇠</p> <p>鐵鋌</p> <p>해남 신월리 / 삼국 시대</p>	<p>덩이쇠는 막대 모양의 쇠판으로, 몇 개씩 묶여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덩이쇠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철제품을 만드는 재료로 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철기 제작과 관련된 곳에서 일정한 개수로 묶여진 덩이쇠 다발이 발견되어 이와 같은 사실을 짐작하게 합니다. 덩이쇠는 또한 일정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어져 화폐의 기능도 지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철은 문물 교류의 중요한 품목이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교류를 위해서는 철의 크기를 일정하게 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덩이쇠는 무덤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먼 길을 떠나는 무덤의 주인을 위해 넣어 주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p>	<p>이 유물은 막대 모양의 쇠판인 덩이쇠로, 몇 개씩 묶여 발견됩니다. 크게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p> <p>첫째, 철제품의 재료입니다. 주로 철기 제작과 관련된 곳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가공 재료로 쓰였던 것으로 짐작됩니다.</p> <p>둘째, 화폐입니다. 덩이쇠는 일정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어졌습니다. 고대 사회의 문물 교류에서 철은 중요한 품목이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교류하기 위해 철의 크기를 일정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p> <p>셋째, 노잣돈입니다. 덩이쇠는 무덤에서도 자주 발견됩니다. 먼 길을 떠나는 무덤의 주인을 위해 넣어 주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p>	<p>이 유물은 막대 모양의 쇠판인 덩이쇠로, 몇 개씩 묶여 발견된다. 크게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p> <p>첫째, 철제품의 재료이다. 주로 철기 제작과 관련된 곳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가공 재료로 쓰였던 것으로 짐작된다.</p> <p>둘째, 화폐이다. 덩이쇠는 일정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어졌다. 고대 사회의 문물 교류에서 철은 중요한 품목이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교류하기 위해 철의 크기를 일정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p> <p>셋째, 노잣돈이다. 덩이쇠는 무덤에서도 자주 발견된다. 먼 길을 떠나는 무덤의 주인을 위해 넣어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p>	
40	<p>두 귀 단지</p> <p>兩耳附壺</p> <p>영암 만수리 / 삼국 시대</p>	<p>두 귀 단지는 그릇에 윗부분에 두 개의 귀가 달린 것으로 귀에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뚜껑과 함께 출토되는 경우가 많으며, 뚜껑에 무늬가 새겨진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토기는 3~4세기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대체로 마한 지역과 연결되는 것으로 이 토기가 마한에서 발생하여 주변으로 확산되어 갔음을 보여줍니다. 두 귀 단지는 마한에서 백제로 이어지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p>	<p>이 유물은 두 개의 귀가 달린 단지입니다. 귀에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뚜껑과 함께 출토되는 경우가 많으며, 뚜껑에 무늬가 새겨진 것도 있습니다.</p> <p>두 귀 단지는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서 3~4세기에 집중되어 발견됩니다. 이는 두 귀 단지가 마한에서 발생하여 주변으로 퍼져 나갔음을 보여 줍니다.</p> <p>이 유물은 마한에서 백제로 이어지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p>	<p>이 유물은 두 개의 귀가 달린 단지이다. 귀에는 구멍이 뚫려 있다. 뚜껑과 함께 출토되는 경우가 많으며, 뚜껑에 무늬가 새겨진 것도 있다.</p> <p>두 귀 단지는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서 3~4세기에 집중되어 발견된다. 이는 두 귀 단지가 마한에서 발생하여 주변으로 퍼져 나갔음을 보여 준다.</p> <p>이 유물은 마한에서 백제로 이어지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41	구멍 단지 有孔廣口小壺 나주 북암리 / 삼국시대	구멍 단지는 단지의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고 아가리가 나팔 모양으로 넓게 벌어진 토기입니다. 단지에 뚫려 있는 구멍에는 나무 대롱 등을 꽂아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멍 단지는 몸통에 비해 지나치게 큰 아가리를 가지며 장식성이 뛰어납니다. 그릇에 물결무늬가 새겨지거나 작은 구슬이 붙여진 종류도 있으며, 일부 몸통에 비해 아가리가 지나치게 큰 종류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유물은 구멍 단지로, 제사용 토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릇에 물결무늬가 새겨지거나 작은 구슬이 붙여진 종류도 있으며, 일부 몸통에 비해 아가리가 지나치게 큰 종류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유물은 구멍 단지로, 제사용 토기로 알려져 있다. 그릇에 물결무늬가 새겨지거나 작은 구슬이 붙여진 종류도 있으며, 일부 몸통에 비해 아가리가 지나치게 큰 종류도 발견되고 있다.	
42	원통 모양 토기 圓筒形土器 나주 신촌리 / 삼국 시대	원통 모양 토기는 무덤 축조 과정에서 지냈던 제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독특한 모양의 토기입니다. 주로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장고형 고분(長鼓形古墳)에서 발견됩니다. 독널 무덤 중에서는 신촌리 9호분에서 현재까지 총 52개체의 원통 모양 토기가 확인되었는데 제작 기법, 소재, 설치 방법 등은 물론, 상징과 용도에서 일본의 원통 모양 토기 및 장고형 고분 출토품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유물은 제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원통 모양 토기입니다. 주로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장구형 고분(전통 타악기 장구와 비슷한 모양의 무덤)에서 발견됩니다. 제작 기법, 소재, 설치 방법뿐만 아니라 상징과 용도 면에서 일본의 출토품과 한국의 출토품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유물은 나주 신촌리 9호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제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원통 모양 토기이다. 주로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장구형 고분(전통 타악기 장구와 비슷한 모양의 무덤)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제작 기법, 소재, 설치 방법뿐만 아니라 상징과 용도 면에서 일본의 출토품과 한국의 출토품은 큰 차이가 있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43	<p><b>원통 모양 토기</b></p> <p>圓筒形土器</p> <p>광주 명화동 / 삼국 시대</p>	<p>이 토기는 광주 명화동에서 출토된 원통 모양 토기입니다. 원통 모양 토기는 토기의 모양이 원통으로 생겨 붙여진 이름이며 주로 영산강 유역의 장고형 고분에서 많이 확인됩니다. 광주 명화동 고분은 장고형 고분이며 무덤 주변에는 도랑이 파여져 있습니다. 원통 모양 토기는 무덤 주변의 도랑에서 나왔습니다. 이 원통 모양 토기에는 두 줄의 띠가 돌려져 있으며 띠 아래에는 둥근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표면에는 토기를 만들 때 생긴 무늬가 남아 있습니다. 영산강 유역의 원통 모양 토기는 일본의 것과는 모양과 제작 기법 등에서 차별화됩니다.</p>	<p>이 유물은 원통 모양 토기입니다. 주로 영산강 유역의 장구형 고분에서 많이 발견됩니다.</p> <p>이 토기는 두 줄의 띠가 돌려져 있으며 띠 아래에는 둥근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겉에는 토기를 만들 때 생긴 무늬가 남아 있습니다.</p> <p>영산강 유역의 원통 모양 토기는 일본의 출토품과는 모양과 제작 기법 등이 다릅니다.</p>	<p>이 유물은 원통 모양 토기이다. 주로 영산강 유역의 장구형 고분에서 많이 발견된다.</p> <p>이 토기는 두 줄의 띠가 돌려져 있으며 띠 아래에는 둥근 구멍이 뚫려 있다. 겉에는 토기를 만들 때 생긴 무늬가 남아 있다.</p> <p>영산강 유역의 원통 모양 토기는 일본의 출토품과는 모양과 제작 기법 등이 다르다.</p>	
44	<p><b>구멍 단지</b></p> <p>有孔廣口小壺</p> <p>무안 사창리 덕암 / 삼국 시대</p>	<p>이 단지는 무안 사창리 덕암 고분에서 출토된 구멍 단지입니다. 구멍 단지는 단지의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고 아가리가 나팔 모양으로 넓게 벌어진 토기로 제사용 토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구멍 단지는 물결무늬가 새겨지고 작은 구슬이 붙어 있어 장식성이 뛰어납니다. 아가리에는 두 줄의 띠가 돌려져 있고, 띠 사이에 물결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단지에 뚫려 있는 구멍의 위와 아래에도 물결무늬가 새겨져 있으며, 물결무늬 사이에 작은 구슬이 붙어 있습니다.</p>	<p>이 유물은 단지에 구멍이 뚫린 토기입니다.</p> <p>아가리에는 두 줄의 띠가 돌려져 있고, 띠 사이에는 물결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p> <p>단지에 뚫려 있는 구멍의 위와 아래에도 물결무늬가 새겨져 있으며, 물결무늬 사이에 작은 구슬이 붙어 있습니다.</p>	<p>이 유물은 단지에 구멍이 뚫린 토기이다.</p> <p>아가리에는 두 줄의 띠가 돌려져 있고, 띠 사이에는 물결무늬가 새겨져 있다.</p> <p>단지에 뚫려 있는 구멍의 위와 아래에도 물결무늬가 새겨져 있으며, 물결무늬 사이에 작은 구슬이 붙어 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45	<p><b>받침 모루</b></p> <p>內拍子</p> <p>나주 신도리 외 / 삼국 시대</p>	<p>받침 모루는 토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마한 사람들은 토기를 만들 때 토기의 안쪽에 받침 모루를 대고 겉쪽에서 두들개로 두드리 토기를 다듬었습니다. 두들개는 표면에 무늬를 새기거나 노끈이나 줄을 감아 사용하였는데, 이 때문에 두들개로 토기 표면을 두드리면 토기에 무늬가 새겨집니다. 받침 모루는 대부분 흙을 구워 만들었으며 버섯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토기에 닿는 부분은 대부분 넓적한데, 뾰족하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 받침 모루를 대고 두드리는 것은 토기에 무늬를 넣고, 토기를 단단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p>	<p>이 유물은 토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p> <p>마한 사람들은 토기를 만들 때 토기의 안쪽에 받침 모루를 대고 겉쪽에서 두들개로 두드리 토기를 다듬었습니다.</p> <p>받침 모루를 대고 두드리는 것은 토기에 무늬를 넣고, 토기를 단단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p>	<p>마한 사람들은 토기를 만들 때 토기의 안쪽에 받침 모루를 대고 겉쪽에서 두들개로 두드리 토기를 다듬었다.</p> <p>받침 모루를 대고 두드리는 것은 토기에 무늬를 넣고, 토기를 단단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p>	
46	<p><b>관 꾸미개</b></p> <p>銀製冠飾</p> <p>나주 복암리 / 삼국 시대</p>	<p>나주 복암리에서 출토된 은으로 만든 관 꾸미개입니다. 관 꾸미개는 얇은 은판을 오려 만들었는데, 나뭇가지에 꽃봉오리가 매달려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굵은 가지에는 잔가지들이 달려 있는데, 한 줄만 달려 있기도 하고 두 줄로 달려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양의 관 꾸미개는 부여, 논산, 남원, 나주 지역에서 주로 확인되는데, 관 꾸미개가 출토되는 무덤이 백제의 전형적인 무덤 양식인 굴식 돌방무덤(橫穴式石室墳)이라는 점에서 백제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은으로 만든 관 꾸미개는 『삼국사기』 백제 본기의 “왕은 검은 비단으로 만든 모자에 금꽃으로 장식하였고, 6품 나솔 이상의 관리들은 은꽃으로 장식하였다.” 라는 기록에 나오는 내용과도 일치됩니다.</p>	<p>이 유물은 얇은 은판을 오려 만든 관 꾸미개입니다.</p> <p>백제의 전형적인 무덤 양식인 굴식 돌방무덤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백제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p> <p>은으로 만든 관 꾸미개는 『삼국사기』 백제 본기의 “왕은 검은 비단으로 만든 모자에 금꽃으로 장식하였고, 6품 나솔 이상의 관리들은 은꽃으로 장식하였다.” 라는 기록에 나오는 내용과도 일치합니다.</p>	<p>이 유물은 얇은 은판을 오려 만든 관 꾸미개이다.</p> <p>백제의 전형적인 무덤 양식인 굴식 돌방무덤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백제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p> <p>은으로 만든 관 꾸미개는 『삼국사기』 백제 본기의 “왕은 검은 비단으로 만든 모자에 금꽃으로 장식하였고, 6품 나솔 이상의 관리들은 은꽃으로 장식하였다.” 라는 기록에 나오는 내용과도 일치한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47	장식 자루 칼 圭頭大刀 나주 복암리 / 삼국 시대	장식 자루 칼(圭頭大刀)은 손잡이에 화려한 장식이 있고, 손잡이 끝부분이 각진 칼입니다. 이러한 모양의 칼은 우리나라에서는 나주 복암리 3호분의 5호 석실과 7호 석실에서 2점 출토되었습니다. 5호 석실에서 출토된 것은 손잡이 끝부분에 불꽃 모양의 장식이 붙어 있으며, 7호 석실에서 출토된 것은 손잡이 끝부분에 용무늬, 구름무늬 등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장식 자루 칼은 6세기 말~7세기 초 일본의 고훈 시대(古墳時代) 유적에서 여러 점 출토되고 있어 일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잡이 끝부분이 둥근 칼(圓頭大刀)이 나주 신촌리 9호분 등에서 출토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그 계통을 백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유물은 손잡이에 화려한 장식으로 꾸민 칼입니다. 나주 복암리 3호분의 5호 석실과 7호 석실에서 2점이 출토되었습니다. 5호 석실에서 출토된 것은 손잡이 끝부분에 불꽃 모양의 장식이 있고, 7호 석실에서 출토된 것은 손잡이 끝부분에 용무늬와 구름무늬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칼은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까지 일본의 고훈 시대 유적에서 많이 출토되어 일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물은 손잡이에 화려한 장식으로 꾸민 칼이다. 나주 복암리 3호분의 5호 석실과 7호 석실에서 2점이 출토되었다. 5호 석실에서 출토된 것은 손잡이 끝부분에 불꽃 모양의 장식이 있고, 7호 석실에서 출토된 것은 손잡이 끝부분에 용무늬와 구름무늬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 이 칼은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까지 일본의 고훈 시대 유적에서 많이 출토되어 일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8	관 꾸미개 金製冠飾 나주 복암리 / 삼국 시대	나주 복암리에서 출토된 금으로 만든 관 꾸미개입니다. 이 꾸미개는 얇은 금판을 오려 만들었는데, 무늬가 대칭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쓰임새는 모자를 꾸미는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관 꾸미개는 문헌 기록에 나오는 “왕은 검은 비단으로 만든 모자에 금꽃으로 장식하였다.”라는 기사와도 일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 유물은 얇은 금판을 오려서 만든 관 꾸미개입니다. 금으로 만든 관 꾸미개는 문헌 기록의 “왕은 검은 비단으로 만든 모자에 금꽃으로 장식하였다.”라는 부분과 일치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이 유물은 얇은 금판을 오려서 만든 관 꾸미개이다. 금으로 만든 관 꾸미개는 문헌 기록(『삼국사기』 백제 본기)의 “왕은 검은 비단으로 만든 모자에 금꽃으로 장식하였다.”라는 부분과 일치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49	금동 신발 金銅飾履 나주 북암리 / 삼국 시대	이 신발은 나주 북암리 3호분 96석실에서 출토된 금동 신발입니다. 이 금동 신발은 거북등무늬(龜甲文)가 새겨져 있으며, 물고기 모양의 달개가 달려 있습니다. 거북등무늬는 거북의 등껍질과 비슷한 육각형의 무늬가 연속적으로 배열어진 것을 말합니다. 거북등무늬 사이에는 꽃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무늬는 금동판을 두드려 무늬가 도드라지도록 하였습니다.	이 유물은 거북의 등 무늬와 비슷한 육각형의 무늬로 장식된 금동 신발이다, 거북등무늬 사이에는 꽃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신발의 바닥에는 물고기 모양의 달개(금관 따위에 매달아 반짝거리도록 한 얇은 쇠붙이 장식)가 달려 있습니다.	이 유물은 거북의 등 무늬와 비슷한 육각형의 무늬로 장식된 금동 신발이다, 거북등무늬 사이에는 꽃무늬가 새겨져 있다. 신발의 바닥에는 물고기 모양의 달개(금관 따위에 매달아 반짝거리도록 한 얇은 쇠붙이 장식)가 달려 있다.	 
50	재갈 鐵轡 나주 북암리 / 삼국 시대	재갈(轡)은 말의 입에 물려 말을 제어하는 도구로, 말을 타는 데 꼭 필요한 마구입니다. 재갈은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銜), 재갈의 양 끝에 붙어서 탈락을 방지하는 재갈 멈추개(銜留), 고삐를 매기 위해 재갈의 양 끝에 달려 있는 고삐 이음쇠(引手)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유물은 나주 북암리에서 출토된 재갈로 재갈 멈추개가 둥근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는 마한 사람들은 소와 말을 탈 줄 모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한 사람들이 소나 말을 탈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영산강 유역에서 마구의 출현은 백제 세력의 확산과 관련되어 있어 기록의 내용과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물은 말의 입에 물려 말을 제어하는 재갈입니다. 재갈은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 재갈의 양 끝에 붙어서 탈락을 방지하는 재갈 멈추개, 고삐를 매기 위해 재갈의 양 끝에 달려 있는 고삐 이음쇠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유물은 말의 입에 물려 말을 제어하는 재갈이다. 재갈은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 재갈의 양 끝에 붙어서 탈락을 방지하는 재갈 멈추개, 고삐를 매기 위해 재갈의 양 끝에 달려 있는 고삐 이음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51	<p><b>굽다리 접시</b></p> <p>高杯</p> <p>함평 월계리 석계 / 삼국 시대</p>	<p>함평 월계리 석계고분에서 출토된 굽다리 접시입니다. 굽다리 접시는 접시의 바닥에 굽이 달린 접시입니다. 굽다리 접시는 일상생활에서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되었으며, 제사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굽다리 접시는 굽이 낮고 굽다리에 구멍이 뚫리지 않았는데, 이러한 것은 백제 굽다리 접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굽다리 접시 위에는 뚜껑이 덮여 있습니다.</p>	<p>이 유물은 굽이 달린 접시입니다. 주로 일상생활에서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였고, 일부 제사에서도 사용하였습니다.</p> <p>굽이 낮고 굽다리에 구멍이 뚫리지 않은 모양은 백제 굽다리 접시의 특징입니다. 접시 위에는 뚜껑이 덮여 있습니다.</p>	<p>이 유물은 주로 일상생활에서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였고, 일부 제사에서도 사용하였다.</p> <p>굽이 낮고 굽다리에 구멍이 뚫리지 않은 모양은 백제 굽다리 접시의 특징이다. 접시 위에는 뚜껑이 덮여 있다.</p>	
52	<p><b>팔찌</b></p> <p>釧</p> <p>나주 대안리 / 삼국 시대</p>	<p>나주 대안리에서 출토된 팔찌로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한, 백제 지역에서는 금속 막대를 둥글게 구부리고 톱니모양(鋸齒文)으로 만든 팔찌가 주로 출토되는데, 나주 덕산리 4호분, 나주 신촌리 을관, 해남 만의총 1호분 등에서도 이러한 팔찌가 나왔습니다. 나주 대안리에서 출토된 것은 청동으로 만들어졌는데, 톱니모양 팔찌 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톱니모양 팔찌는 고구려, 신라, 가야 지역에서도 출토되는 것으로, 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팔찌 형식으로 보입니다.</p>	<p>이 유물은 톱니 모양의 팔찌입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졌는데, 톱니 모양의 팔찌 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p> <p>마한, 백제 지역에서는 금속 막대를 둥글게 구부리고 톱니 모양으로 만든 팔찌가 주로 출토됩니다.</p> <p>톱니 모양 팔찌는 고구려, 신라, 가야 지역에서도 출토되며 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팔찌 형식으로 보입니다.</p>	<p>이 유물은 청동으로 만들어진 톱니 모양의 팔찌이다. 톱니 모양의 팔찌 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다.</p> <p>마한, 백제 지역에서는 금속 막대를 둥글게 구부리고 톱니 모양으로 만든 팔찌가 주로 출토된다.</p> <p>톱니 모양 팔찌는 고구려, 신라, 가야 지역에서도 출토되며 고대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팔찌 형식으로 보인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53	<b>말 띠 꾸미개</b> 雲珠 함평 예덕리 신덕 / 삼국 시대	<p>말 띠 꾸미개는 가죽 끈으로 재갈이나 안장을 말에 고정시킬 때 끈의 엇갈리는 곳에 붙이는 장식입니다. 이 말 띠 꾸미개는 함평 예덕리 신덕 고분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양의 말 띠 꾸미개는 백제의 유적에서 주로 확인됩니다. 신덕 고분은 장고형 고분으로 내부가 돌방으로 만들어진 무덤입니다. 무덤에서는 재갈, 유리구슬, 뚜껑 접시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p>	<p>이 유물은 재갈이나 안장을 가죽 끈으로 말에 고정시킬 때 끈의 엇갈리는 곳에 붙이는 장식입니다.</p> <p>이러한 모양은 백제의 유적에서 주로 확인됩니다.</p>	<p>이 유물은 재갈이나 안장을 가죽 끈으로 말에 고정시킬 때 끈의 엇갈리는 곳에 붙이는 장식이다.</p> <p>이러한 모양은 백제의 유적에서 주로 확인된다.</p>	
54	<b>자라 병</b> 扁瓶 해남 용일리 용운 / 삼국 시대	<p>해남 용일리 용운 고분에서 출토된 자라 병입니다. 자라 병은 병의 모양이 자라모양으로 생겨 붙여진 이름입니다. 병은 자라처럼 납작하며 윗부분에는 두 개의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고리에 끈을 연결하여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병은 액체를 담아서 가지고 다니기에 좋습니다.</p>	<p>이 유물은 자라 모양의 병입니다.</p> <p>병은 자라처럼 납작하며 윗부분에는 두 개의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고리에 끈을 연결하여 사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p> <p>이러한 병은 액체를 담아서 가지고 다니기에 좋습니다.</p>	<p>이 유물은 자라 모양의 병이다.</p> <p>병은 자라처럼 납작하며 윗부분에는 두 개의 고리가 달려 있다. 고리에 끈을 연결하여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p> <p>이러한 병은 액체를 담아서 가지고 다니기에 좋다.</p>	
55	<b>말 띠 드리개</b> 杏葉 해남 월송리 조산 / 삼국 시대	<p>말 띠 드리개는 말띠에 매달아 장식하는 것입니다. 이 말 띠 드리개는 해남 월송리 조산 고분에서 출토되었습니다. 말 띠 드리개의 윗부분은 타원모양이며 아랫부분은 마름모꼴입니다. 앞면은 금동판이며 뒷면은 철판이 덧대어져 있는데, 두 장은 테두리에 박힌 못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말 띠 드리개의 맨 위에는 가죽띠에 매달기 위한 꼭지가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모양의 말 띠 드리개는 일본의 고분에서도 확인되고 있는</p>	<p>이 유물은 말 띠에 매달아 장식하는 도구입니다.</p> <p>윗부분은 타원 모양이며 아랫부분은 마름모 모양입니다.</p> <p>앞면은 금동판이고 뒷면은 철판이 덧대어져 있습니다. 앞뒷면 모두 테두리에 못을 박아 고정하였습니다. 맨 위에는 가죽띠에 매달기 위한 꼭지가 있습니다.</p> <p>이러한 모양은 일본의 고분에서도 발견되는데, 백제의 마구가 일본에 영향</p>	<p>이 유물은 말 띠에 매달아 장식하는 도구이다.</p> <p>윗부분은 타원 모양이며 아랫부분은 마름모 모양이다.</p> <p>앞면은 금동판이고 뒷면은 철판이 덧대어져 있다. 앞뒷면 모두 테두리에 못을 박아 고정하였다. 맨 위에는 가죽띠에 매달기 위한 꼭지가 있다.</p> <p>이러한 모양은 일본의 고분에서도 발견되는데, 백제의 마구가 일본에 영향</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데, 백제의 마구가 일본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산 고분에는 말 띠 드리개 외에도 재갈, 발걸이 등의 마구가 확인되었습니다.	견되는데, 백제의 마구가 일본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6	<p><b>본뜬 거울</b></p> <p>倣製鏡</p> <p>해남 월송리 조산 / 삼국 시대</p>	청동 거울은 매끄러운 표면에 얼굴을 비추어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뒷면에는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특히 뒷면에 꾸며진 무늬는 거울이 만들어진 시기 등을 짐작하게 해 줍니다. 삼국시대에는 중국 한나라의 거울인 한경(漢鏡)을 모방하여 크기나 무늬 등을 변형시켜 만든 본뜬 거울이 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거울은 백제에서보다도 5~6세기경 일본 고훈 시대의 무덤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거울은 해남 월송리 조산 고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거울 꼭지 주변에 작은 돌기가 돌아 있습니다.	<p>이 유물은 중국 한나라의 거울인 한경을 모방하여 크기나 무늬 등을 바꾸어 본뜬 거울입니다.</p> <p>삼국 시대 거울은 중국과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뜬 거울은 백제보다 5~6세기경 일본 고훈 시대의 무덤에서 많이 나옵니다.</p>	<p>이 유물은 중국 한나라의 거울인 한경을 모방하여 크기나 무늬 등을 바꾸어 본뜬 거울이다.</p> <p>삼국 시대 거울은 중국과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본뜬 거울은 백제보다 5~6세기경 일본 고훈 시대의 무덤에서 많이 나온다.</p>	
57	<p><b>상서로운 동물 모양 토기</b></p> <p>瑞獸形土器</p> <p>해남 성산리 만의총 / 삼국 시대</p>	이 유물은 해남 성산리 만의총 고분에서 출토된 상서로운 동물 모양 토기입니다. 토기는 머리에 뿔이 달려 있는 상서로운 동물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동물의 뒤편에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토기의 윗부분에는 액체를 담을 수 있는 아가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토기는 신라와 가야에서 많이 확인됩니다. 만의총 고분에서는 백제를 비롯하여 신라와 왜계 유물까지 확인되고 있어 이 무덤의 주인이 대외 교류의 중간자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p>이 유물은 상서로운 동물 모양 토기입니다. 이러한 토기는 신라와 가야에서 많이 확인됩니다.</p> <p>해남 만의총 고분에서는 백제를 비롯하여 신라와 일본계 유물까지 확인되고 있어, 이 무덤의 주인이 대외 교류의 중간자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p>	<p>이 유물은 머리에 뿔이 달려 있는 상서로운 동물 모양을 하고 있으며 뒤에 사람이 앉아 있는 토기이다.</p> <p>이러한 토기는 신라와 가야에서 많이 확인된다.</p> <p>해남 만의총 고분에서는 백제를 비롯하여 신라와 일본계 유물까지 확인되고 있어, 이 무덤의 주인이 대외 교류의 중간자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58	고려 시대의 배 나주선 (복원품) 나주 영산동	<p>나주선(羅州船)은 2004년 영산강 강가에서 배의 꼬리쪽 부재(部材)와 외판(外板) 조각이 발견되어 알려졌습니다. 주변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추가로 여러 편의 선박 부재가 발견되었고, 나주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나주선’ 이라 이름 지어졌습니다. 나주선에 사용된 나무는 느티나무와 상수리나무 등이며 발견된 판재의 크기는 바닥재의 길이가 920cm, 좌우 판재의 길이가 560m에 달합니다. 나주선은 갯벌이 발달한 서해안이나 강에서 운행하는 데 적합한 평저선으로 원래 크기가 35~40m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배는 고려 전기에 제작되어 영산강과 부근 바다를 항해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p>	<p>이 유물은 복원된 나주선입니다. 2004년 영산강 강가에서 배의 꼬리쪽 부재와 외판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주변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추가로 여러 편의 선박 부재가 발견되었습니다. 나주선에 사용된 나무는 느티나무와 상수리나무입니다. 발견된 판재의 크기는 바닥재의 길이가 920cm, 좌우 판재의 길이가 560cm입니다. 이 배는 갯벌이 발달한 서해안이나 강에서 운행하는 데 적합한 평저선(밑바닥이 평평한 배로 물이 얇은 데로 다니기 좋다.)으로 크기가 35~40m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배는 고려 전기에 제작되어 영산강 부근 바다를 항해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p>	<p>2004년 영산강 강가에서 배의 꼬리쪽 부재와 외판 조각이 발견되었다. 주변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추가로 여러 편의 선박 부재가 발견되었다. 이 유물은 복원된 것이다. 나주선에 사용된 나무는 느티나무와 상수리나무이다. 발견된 판재의 크기는 바닥재의 길이가 920cm, 좌우 판재의 길이가 560cm이다. 이 배는 갯벌이 발달한 서해안이나 강에서 운행하는 데 적합한 평저선(밑바닥이 평평한 배로 물이 얇은 데로 다니기 좋다.)으로 크기가 35~40m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배는 고려 전기에 제작되어 영산강 부근 바다를 항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p>	
59	청동 병 靑銅瓶 완도 청해진 / 통일 신라 시대	<p>이것은 완도 청해진(淸海鎭)에서 출토된 청동으로 만든 병입니다. 청해진은 신라 흥덕왕(興德王) 때 당에서 돌아온 장보고(張保皋)가 건설(828년)한 것입니다. 장보고는 청해진을 거점으로 하여 남해와 서해의 해적을 소탕하였고 해로를 평정함으로써 중국과 일본 사이에 이루어지는 국제 무역 활동의 패권을 장악하였습니다. 장보고가 사망(846년)한 후 청해진은 폐쇄되었지만 청해진은 서남해안 교통의 중심지이자 무역의 중계지로서 그 위세를 동북아시아에 떨쳤습니다.</p>	<p>이 유물은 청동 병입니다. 유물이 출토된 청해진은 당에서 돌아온 장보고가 828년에 건설한 곳입니다. 장보고는 청해진을 거점으로 남해와 서해의 해적을 소탕하였고 바닷길을 평정하여 중국과 일본 사이의 국제 무역 활동을 장악하였습니다. 장보고가 846년에 사망한 후 청해진은 폐쇄되었지만 청해진은 서남 해안 교통의 중심지이자 무역의 중계지로서 그 지위를 동북아시아에 떨쳤습니다.</p>	<p>이 유물은 청동 병이다. 유물이 출토된 청해진은 당에서 돌아온 장보고가 828년에 건설한 곳이다. 장보고는 청해진을 거점으로 남해와 서해의 해적을 소탕하였고 바닷길을 평정하여 중국과 일본 사이의 국제 무역 활동을 장악하여 그 지위를 떨쳤다. 846년에 장보고가 사망한 후 청해진은 폐쇄되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60	수막새 圓瓦當 진도 용장성 / 고려 시대	이 수막새는 진도 용장성에서 출토된 것으로 연꽃무늬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연꽃의 중앙은 둥글게 솟아 있으며 꽃잎은 끝부분이 날렵합니다. 용장성은 몽고의 침략에 맞서 싸웠던 삼별초(三別抄)가 거점 지역으로 삼았던 곳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용장성은 성벽의 일부는 바다에 접하고 나머지 구간은 산능선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산성 내부에서 당시의 건물터가 조사되었으며 기와, 토기, 도자기, 동전, 청동 거울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유물은 연꽃무늬가 장식된 수막새입니다. 연꽃의 중앙은 둥글게 솟아 있으며 꽃잎은 끝부분이 날렵합니다. 유물이 출토된 용장성은 몽고의 침략에 맞서 싸웠던 삼별초(고려 무신 정권 때의 특수 군대)의 거점 지역이었습니다. 산성 내부에서 당시의 건물터가 조사되었으며 기와, 토기, 도자기, 동전, 청동 거울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물은 연꽃무늬가 장식된 수막새이다. 연꽃의 중앙은 둥글게 솟아 있으며 꽃잎은 끝부분이 날렵하다. 유물이 출토된 용장성은 몽고의 침략에 맞서 싸웠던 삼별초(고려 무신 정권 때의 특수 군대)의 거점 지역이었다. 산성 내부에서 당시의 건물터가 조사되었으며 기와, 토기, 도자기, 동전, 청동 거울 등이 발견되었다.	
61	동전 銅錢 영암 남해당지 / 조선 시대	이 동전은 영암 남해당지(南海堂址)에서 출토되었습니다. 남해당지는 고려 시대부터 바다와 관련된 해신제(海神祭)를 지내던 곳입니다. 옛 뱃사람들은 거친 풍랑과 다도해의 암초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정기적으로 제사를 올려 항해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남해당지에 대한 조사에서 제단으로 보이는 건물터 등이 확인되었으며 제사에 사용된 그릇과 향로, 동전 등이 수습되었습니다. 동전은 상평통보(常平通寶) 5점, 도광통보(道光通寶) 1점, 관영통보(寬永通寶) 1점, 부식이 심해 확인이 어려운 동전 2점입니다. 이곳에서 확인된 유물들은 고려에서 조선에 걸쳐 있어, 남해당지가 오랜 기간 운영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유물은 상평통보 5점, 도광통보 1점, 관영통보 1점, 부식이 심해 확인이 어려운 동전 2점 등 총 9점의 동전입니다. 유물이 출토된 남해당지는 고려 시대부터 바다와 관련된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입니다. 옛날 뱃사람들은 거친 풍랑과 다도해의 암초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정기적으로 제사를 올려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였습니다. 이곳에서 확인된 유물들은 고려에서 조선까지 걸쳐 있어, 남해당지가 오랜 기간 운영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이 유물은 상평통보 5점, 도광통보 1점, 관영통보 1점, 부식이 심해 확인이 어려운 동전 2점 등 총 9점의 동전이다. 유물이 출토된 남해당지는 고려 시대부터 바다와 관련된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옛날 뱃사람들은 거친 풍랑과 다도해의 암초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정기적으로 제사를 올려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였다. 이곳에서 확인된 유물들은 고려에서 조선까지 걸쳐 있어, 남해당지가 오랜 기간 운영되었음을 보여 준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62	청자 구름 봉황무늬 대접 靑磁雲鳳文大楪 무안 송석리 도리포 / 고려 시대	이 대접은 무안 도리포 앞바다에서 건져 올린 상감 청자입니다. 상감 기법은 자기의 바탕흙에 무늬를 새기고 다른 종류의 흙을 메워 넣는 방법입니다. 대접의 안쪽에는 구름 봉황 무늬가 상감되어 있는데, 중앙의 연꽃무늬 주위로 구름무늬와 봉황 무늬가 배치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접은 고려 말에 주로 만들어졌습니다. 고려 초기 청자의 생산은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11세기 이후에는 남부 지역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강진에서 제작된 청자는 청자 운반선에 실려 바닷길을 따라 개경으로 운반되었습니다. 이 바닷길에 해당하는 전남 신안, 무안 도리포, 군산 비안도 등에서는 도자기를 나르다가 침몰한 선박이 발견되고 있어 이를 통해 고려 시대 청자의 유통 경로 등을 추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유물은 구름, 봉황, 연꽃무늬가 장식된 대접입니다. 강진에서 제작된 청자는 청자 운반선에 실려 바닷길을 따라 개경으로 운반되었습니다. 이 바닷길의 전남 신안, 무안 도리포, 군산 비안도 등에서는 도자기를 운반하다 침몰한 선박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려 시대 청자의 유통 경로 등을 추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유물은 구름, 봉황, 연꽃무늬가 장식된 대접이다. 강진에서 제작된 청자는 청자 운반선에 실려 바닷길을 따라 개경으로 운반되었다. 이 바닷길의 전남 신안, 무안 도리포, 군산 비안도 등에서는 도자기를 운반하다 침몰한 선박이 발견되고 있다. 이를 통해 고려 시대 청자의 유통 경로 등을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63	항아리 壺 태안 마도 / 고려 시대	이 항아리는 태안 마도 1호선에서 나온 것입니다. 항아리의 표면은 짙은 흑갈색이며 아가리의 일부는 떨어져 나간 상태입니다. 태안 마도 1호선은 태안 마도 앞바다에 침몰된 고려 시대의 선박으로 이 안에서 청자, 도기, 곡물 등 다양한 유물이 나왔습니다. 또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기록된 꼬리표도 확인되었습니다. 태안 마도 해역은 조류가 빨라 조운선(漕運船)의 침몰 사고가 빈번한 곳으로 그 흔적들이 문헌 자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도 1호선은 그러한 역사기록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이 유물은 흑갈색이 짙은 항아리입니다. 유물이 발견된 태안 마도 1호선에서는 청자, 도기, 곡물 등 다양한 유물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기록된 꼬리표도 확인되었습니다. 태안 마도 해역은 조류가 빨라 물건을 나르는 배의 침몰 사고가 빈번한 곳으로 그 흔적들이 문헌 자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도 1호선은 이와 같은 역사 기록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이 유물은 흑갈색이 짙은 항아리이다. 유물이 발견된 태안 마도 1호선에서는 청자, 도기, 곡물 등 다양한 유물이 확인되었다. 또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기록된 꼬리표도 확인되었다. 태안 마도 해역은 조류가 빨라 물건을 나르는 배의 침몰 사고가 빈번한 곳으로 그 흔적들이 문헌 자료에도 기록되어 있다. 마도 1호선은 이와 같은 역사 기록을 증명하는 자료이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64	<p><b>메밀</b></p> <p>大麥</p> <p>태안 마도 / 고려 시대</p>	<p>이 곡물은 태안 마도 1호선에서 나온 메밀입니다. 메밀은 생육 기간이 짧으며 건조한 땅에서도 싹이 잘 트고 환경에 적응하는 힘이 강합니다. 열매가 성숙하면 갈색 또는 암갈색을 띠는데 껍질이 단단하여 터지지 않습니다. 태안 마도 1호선에서는 메밀을 비롯하여 벼, 찰, 조, 피, 기장 등 다양한 곡물이 확인되어 고려 시대 식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곡물은 종류별로 포장되어 배의 아래쪽에 실렸습니다. 마도 1호선은 배에서 나온 목간이 판독되어 1208년 봄에 난파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p>	<p>메밀은 생육 기간이 짧으며 건조한 땅에서도 싹이 잘 트고 환경에 쉽게 적응합니다.</p> <p>유물이 출토된 태안 마도 1호선에서는 메밀을 비롯하여 벼, 찰, 조, 피, 기장 등 다양한 곡물이 확인되어 고려 시대 식생활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p> <p>마도 1호선은 배에서 나온 목간을 판독하여 1208년 봄에 난파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p>	<p>메밀은 생육 기간이 짧으며 건조한 땅에서도 싹이 잘 트고 환경에 쉽게 적응한다.</p> <p>유물이 출토된 태안 마도 1호선에서는 메밀을 비롯하여 벼, 찰, 조, 피, 기장 등 다양한 곡물이 확인되어 고려 시대 식생활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p> <p>마도 1호선은 배에서 나온 목간을 판독하여 1208년 봄에 난파되었음이 밝혀졌다.</p>	



## (2) 국립 춘천 박물관 (60편)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1	주먹 도끼 手斧 춘천 금산리 / 구석기 시대	춘천시 금산리 갈둔 유적에서 출토된 주먹도끼이다. 약 10만 년 전 강원 지역에 정착했던 구석기인이 만들어 사용한 도구이다. 이 주먹도끼는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의 기본 형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응회암을 이용해 제작했다. 주먹도끼는 전기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이다.	춘천시 금산리 갈둔 유적에서 출토된 주먹도끼입니다. 약 10만 년 전 강원 지역에 정착했던 구석기인이 만들어 사용하던 도구입니다. 이 주먹도끼는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의 기본 형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응회암을 이용해 제작하였습니다. 주먹도끼는 전기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입니다.	이것은 아슐리안형(주먹도끼의 기본 모양)과 같은 것으로 응회암으로 만들었다. 춘천시 금산리 갈둔 유적에서 발견되었다. 약 10만 년 전 강원 지역에 살던 구석기인이 만들어 사용했다. 주먹도끼는 전기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이다.	
2	흑요석 펜석기 黑曜石 打製石器 양구 상무릉리 / 구석기 시대	양구읍 상무릉리에서 출토된 흑요석으로 만든 펜석기다. 이 흑요석 펜석기는 구석기 시대 만들어졌다. 흑요석은 화산에서 분출된 용암이 굳어져 만들어진 검은색 돌이다. 이 흑요석을 분석한 결과 백두산이 원산지라고 추정되었다. 백두산 흑요석은 양구 외에도 러시아, 일본 홋카이도 등에서도 발견되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의 이동 경로나 교역을 보여 준다.	양구읍 상무릉리에서 출토된 흑요석입니다. 이 흑요석은 펜석기로 구석기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흑요석은 화산에서 분출된 용암이 굳어져 만들어진 검은색 돌입니다. 이 흑요석을 분석한 결과 백두산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백두산 흑요석은 양구 외에도 러시아, 일본 홋카이도 등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의 이동 경로나 교역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 흑요석은 펜석기로 구석기 시대에 만들어졌다. 흑요석은 화산에서 분출된 용암이 굳어져 만들어진 검은색 돌이다. 양구읍 상무릉리에서 출토된 이 흑요석은 분석 결과 백두산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백두산 흑요석은 양구 외에도 러시아, 일본 홋카이도 등에서도 발견된다. 당시 사람들의 이동 경로나 교역을 알 수 있다.	
3	옥 귀걸이 玦狀耳飾 고성 문암리 / 신석기 시대	고성군 문암리 유적에서 출토된 신석기 시대 귀걸이이다. 껏볼에 구멍을 뚫고 거는 고리형태의 귀걸이로 껏볼에 걸리는 부분은 얇은 돌로 갈아 흠을 냈다. 신석기 시대 옥 귀걸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연해주 등 동아시아 지역에 널리 유행했다.	고성군 문암리 유적에서 출토된 신석기 시대의 귀걸이입니다. 껏볼에 구멍을 뚫고 걸 수 있는 고리 모양의 귀걸이입니다. 껏볼에 걸리는 부분은 얇은 돌로 갈아 흠을 내었습니다. 신석기 시대 옥 귀걸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연해주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널리 유행하였습니다.	껏볼에 구멍을 뚫고 걸 수 있는 고리모양의 귀걸이이다. 껏볼에 걸리는 부분은 얇은 돌로 갈아 흠을 내었다. 이 귀걸이는 고성군 문암리 유적에서 출토되었고 신석기 시대의 것이다. 이 옥 귀걸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연해주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유행하였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4	갈판과 갈돌 礮石- 石棒 강릉 하시동리 / 신석기 시대	강릉시 하시동리에서 출토된 갈판과 갈돌이다. 돌을 갈아 만든 갈판과 갈돌은 신석기 시대에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나무 열매나 곡물을 가루로 만드는데 사용한 도구이다. 밑에 놓은 갈판은 지속적인 사용으로 가운데 부분이 살짝 오목하게 들어갔다. 갈판과 갈돌은 이전보다 따뜻해진 신석기 시대에 사람들이 채집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곡물을 얻을 수 있는 농경을 시작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강릉시 하시동리에서 출토된 갈판과 갈돌입니다. 돌을 갈아 만든 갈판과 갈돌은 신석기 시대의 도구로 나무 열매나 곡물을 가루로 만들 때 사용하였습니다. 밑에 놓은 갈판은 가운데 부분이 오목하게 들어가 사용 흔적이 보입니다. 갈판과 갈돌은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채집과 더불어 농경을 시작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돌을 갈아 만든 것으로 신석기 시대에 나무 열매나 곡물을 가루로 만들 때 사용하였다. 이것은 강릉시 하시동리에서 출토된 것이다. 밑에 놓은 갈판은 가운데 부분이 오목하게 들어가 사용 흔적이 보인다. 이 유물은 신석기 시대에 채집과 함께 농사를 시작했음을 알려 주는 자료다.	
5	누른 무늬 토기 押文土器 강릉 지경리 / 신석기 시대	강릉시 지경리에서 출토된 신석기 시대 누른 무늬 토기이다. 신석기 시대에 농경이 시작되면서 생산물을 저장하고 요리하는데 토기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였다. 이 토기는 아가리 부분이 안쪽으로 굽어있으며 바닥은 납작하다. 또한 토기 전면에는 타래 무늬가 있다. 이 무늬는 작은 누름 도구로 일일이 점을 찍어 만든 것이다. 이런 무늬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 준다.	강릉시 지경리에서 출토된 신석기 시대의 누른 무늬 토기입니다. 신석기 시대에 농경이 시작되면서 생산물을 저장하고 요리하는 데 토기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토기는 아가리 부분이 안쪽으로 굽어 있으며 바닥이 납작합니다. 또한 토기 전면에는 타래 무늬가 있습니다. 이 무늬는 작은 누름 도구로 일일이 점을 찍어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무늬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 줍니다.	신석기 시대에 농사가 시작되면서 생산물을 저장하고 요리하는 데 토기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였다. 강릉시 지경리에서 출토된 것으로, 아가리 부분이 안쪽으로 굽어 있으며 바닥이 납작하다. 토기 전면에는 타래 무늬가 있다. 이 무늬는 작은 누름 도구로 일일이 점을 찍어 만든 것이다. 이러한 무늬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 준다.	
6	교동 동굴 출토품 춘천 후평동 / 신석기 시대	춘천시 후평동 교동 동굴에서 확인된 토기와 옥, 석기들이다. 토기의 형태로 보아 신석기 시대 유적으로 보인다. 교동 동굴에서는 이 유물들과 함께 부챗살 모양으로 누워있는 시신 3구가 발견되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동굴을 일종의 무덤으로 사용하였다. 다만 이 동굴 천장의 그	춘천시 후평동 교동 동굴에서 발견한 토기와 옥, 석기들입니다. 토기의 형태로 보아 신석기 시대 유적으로 보입니다. 교동 동굴에서는 이 유물들과 함께 부챗살 모양으로 누워 있는 시신 3구도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동굴을 일종의 무덤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만 이 동	이 유물은 춘천시 후평동 교동 동굴에서 발견되었다. 토기의 형태로 보아 이곳은 신석기 시대 유적으로 추정된다. 교동 동굴에서는 이 유물들과 함께 부챗살 모양으로 누워 있는 시신 3구도 발견되었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을음 등으로 보아 처음에는 살림 공간이었지만 어떤 이유로 나중에 무덤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굴의 천장에 그을음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음에는 살림 공간이었지만 나중에 어떠한 이유로 무덤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동굴을 일종의 무덤으로 사용하였다. 다만 이 동굴의 천장에 그을음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음에는 살림 공간이었지만 나중에 어떠한 이유로 무덤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7	청동 잔무늬 거울 多紐細文鏡 횡성 강림리 / 청동기 시대	횡성군 강림리에서 발견된 청동 거울이다. 형태와 무늬로 보아 청동기 시대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거울 뒷면에는 잔무늬가 새겨져 있으며 2개의 고리가 있다. 이 고리에 줄을 끼워 목에 걸어서 가슴에 오도록 착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동기 시대 청동 거울은 실제 지금의 거울과 같은 용도보다는 햇빛을 반사시켜 착용자의 권위를 높이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횡성군 강림리에서 발견된 청동 거울입니다. 형태와 무늬로 보아 청동기 시대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울 뒷면에는 잔무늬가 새겨져 있으며 두 개의 고리가 있습니다. 이 고리에 줄을 끼워 목에 걸어서 가슴에 오도록 착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동기 시대의 청동 거울은 지금의 거울과 같은 용도보다는 햇빛을 반사시켜 사용자의 권위를 높이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횡성군 강림리에서 발견되었다. 형태와 무늬를 보면 청동기 시대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거울 뒷면에는 잔무늬가 새겨져 있고 두 개의 고리가 있다. 이 고리에 줄을 끼워 목에 걸어서 가슴에 오도록 착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동기 시대의 거울은 지금의 거울과 같은 용도보다는 햇빛을 반사시켜 사용자의 권위를 높이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8	별도끼 星形石斧 춘천 신매리 / 청동기 시대	춘천시 신매리에서 발견된 별도끼다. 이러한 형태의 도끼는 청동기 시대 주로 사용되었다. 사방으로 톱니바퀴처럼 돌기가 튀어나와 있으며 가운데에는 막대 등을 꽂을 수 있도록 구멍을 만들었다. 집단의 우두머리들이 지휘봉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별도끼는 정교한 석기 제작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청동기 시대 발전한 석기 제작 기술을 보여주는 자료다.	춘천시 신매리에서 발견된 별도끼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도끼는 청동기 시대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방으로 톱니바퀴처럼 돌기가 튀어나와 있으며 가운데에는 막대 등을 꽂을 수 있도록 구멍이 있습니다. 집단의 우두머리들이 지휘봉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별도끼는 정교한 석기 제작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청동기 시대에 석기 제작 기술이 발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춘천 신매리에서 발견되었다. 이런 모양의 도끼는 청동기 시대에 주로 사용되었다. 사방으로 톱니바퀴처럼 돌기가 튀어나와 있고 가운데에는 막대 등을 꽂을 수 있도록 구멍이 있다. 집단의 우두머리들이 지휘봉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별도끼는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청동기 시대에 석기 제작 기술이 발전되었다는 것을 알려 주는 자료이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9	<p><b>붉은 간 토기</b></p> <p>赤色磨研土器</p> <p>평창 약수리 / 청동기 시대</p>	<p>평창군 약수리에서 출토된 붉은 간 토기이다.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주머니 형태의 몸통에 한 개의 다리를 가운데 붙였다. 붉은 간 토기는 고운 흙을 이용해 만든 토기 표면에 산화철을 바르고 반들거리게 문질러서 만들었다. 붉은 간 토기는 사용되는 재료와 제작 방식에서 다른 토기와 차이가 있고 주로 무덤에서 출토되어 제사나 의례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p>	<p>평창군 약수리에서 출토된 붉은 간 토기입니다.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주머니 모양의 몸통에 한 개의 다리를 가운데 붙였습니다. 붉은 간 토기는 고운 흙을 이용해 만든 토기 표면에 산화철을 바르고 문질러서 반들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붉은 간 토기는 사용 재료와 제작 방식에서 다른 토기와 차이가 있고 주로 무덤에서 출토되어 제사나 의례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합니다.</p>	<p>평창군 약수리에서 출토되었다.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주머니 모양의 몸통에 한 개의 다리를 가운데 붙였다. 붉은 간 토기는 고운 흙으로 만든 토기 표면에 산화철을 바르고 문질러서 반들거리게 만들었다. 붉은 간 토기는 사용 재료와 제작 방식이 다른 토기와 차이가 있고 주로 무덤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 제사나 의례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p>	
10	<p><b>반달 돌칼</b></p> <p>半月形石刀</p> <p>원주 가현동 / 청동기 시대</p>	<p>원주시 가현동에서 출토된 반달 돌칼이다. 반달 돌칼은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수확 도구이며 일반적인 반달 형태 외에도 긴 배 모양, 타원형, 사각형 등이 있다. 반달 돌칼은 곡식을 수확할 때 사용한 도구로 가운데 구멍에 끈을 매달고 손에 끼워 곡식의 이삭을 딴 것으로 추정된다. 반달 돌칼은 한반도 전역에서 확인된다. 이는 청동기 시대 농경이 일반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 준다.</p>	<p>원주시 가현동에서 출토된 반달 돌칼입니다. 반달 돌칼은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수확 도구이며 일반적인 반달 모양 외에도 긴 배 모양, 타원형, 사각형 등이 있습니다. 가운데 구멍에 끈을 매달고 손에 끼워 곡식의 이삭을 딴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달 돌칼은 한반도 전역에서 확인되는데 이는 청동기 시대에 농경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p>	<p>원주시 가현동에서 출토된 이 반달 돌칼은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수확 도구이다. 일반적인 반달 모양 외에도 긴 배 모양, 타원형, 사각형 등이 있다. 가운데 구멍에 끈을 매달고 손에 끼워 곡식의 이삭을 딴 것으로 추정된다. 반달 돌칼은 한반도 전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청동기 시대에 농사가 일반화되었다는 것을 알려 준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11	<p><b>화살촉과 화살대</b></p> <p>矢</p> <p>정선 여량리 / 청동기 시대</p>	<p>정선군 여량리 아우라지에서 출토된 화살이다. 주변에 반달 돌칼 편이 함께 출토되어 청동기 시대에 제작,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살촉은 돌로 만들었으며, 화살대는 버드나무를 사용해 만들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청동기 시대 화살이 확인된 것은 춘천 천전리와 정선 아우라지 단 두 곳이다. 같은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 청동기 등으로 보아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화살이다.</p>	<p>정선군 여량리 아우라지에서 출토된 화살입니다. 주변에 반달 돌칼 조각이 함께 출토되어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p> <p>화살촉은 돌로 만들었으며, 화살대는 버드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청동기 시대 화살이 확인된 것은 춘천 천전리와 정선 아우라지 단 두 곳입니다. 같은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 청동기 등으로 보아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화살로 추정됩니다.</p>	<p>정선군 여량리 아우라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주변에 반달 돌칼 조각이 함께 출토되어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p> <p>화살촉은 돌로 만들었으며, 화살대는 버드나무로 만들었다.</p> <p>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청동기 시대 화살이 확인된 것은 춘천 천전리와 정선 아우라지 단 두 곳뿐이다.</p> <p>같은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 청동기 등으로 보아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화살로 추정된다.</p>	
12	<p><b>부채 모양 도끼</b></p> <p>扇形銅斧</p> <p>속초 조양동 / 청동기 시대</p>	<p>속초시 조양동 고인돌에서 출토된 부채 모양 도끼다. 청동기 시대 집단 우두머리의 무덤인 고인돌에서 출토되었다. 날 부분이 부채살처럼 펼쳐져 있으며, 소유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용도로 추정된다. 이러한 부채 도끼는 주로 중국 동북 지방에서 비파형 동검과 함께 출토된다. 따라서 이 도끼는 중국 동북 지방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당시 강원도 지방과 다른 지역의 교류를 보여주는 자료다.</p>	<p>속초시 조양동 고인돌에서 출토된 부채 모양의 도끼입니다. 청동기 시대 집단 우두머리의 무덤인 고인돌에서 출토되었습니다. 날 부분이 부채 모양처럼 펼쳐져 있으며, 소유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용도로 추정됩니다.</p> <p>이러한 부채 도끼는 주로 중국 동북 지방에서 비파형 동검과 함께 출토됩니다. 따라서 이 도끼는 중국 동북 지방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당시 강원도 지방과 다른 지역의 교류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p>	<p>속초시 조양동에서 나온 것으로 청동기 시대 집단 우두머리의 무덤인 고인돌에서 출토되었다.</p> <p>날 부분이 부채 모양처럼 펼쳐져 있는데, 소유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용도로 추정된다.</p> <p>이러한 부채 도끼는 주로 중국 동북 지방에서 비파형 동검과 함께 출토된다. 따라서 이 도끼는 중국 동북 지방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p> <p>당시 강원도 지방과 다른 지역의 교류를 보여주는 자료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13	중도식 토기 中島式土器 춘천 중도 / 철기 시대	강원도 각지에서 출토된 중도식 토기다. 청동기 시대보다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져 단단한 민무늬 토기라고도 불린다. 중도식 토기는 한반도 중부 지역에서 철기가 사용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등장하며, 주로 음식을 저장하거나 조리하는데 사용했다. 춘천 중도에서 그 실체가 처음 확인되어 지명을 이름에 사용했다. 여(呂), 철(凸) 자형 집터와 함께 철기 시대를 대표한다.	강원도 각지에서 출토된 중도식 토기입니다. 청동기 시대보다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져 단단한 민무늬 토기라고도 불립니다. 중도식 토기는 한반도 중부 지역에서 철기 사용이 시작되는 시점에 등장하며, 주로 음식을 저장하거나 조리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춘천 중도에서 그 모습이 처음 확인되어 중도라는 지명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呂), 철(凸) 자 형태 집터와 함께 철기 시대를 대표하는 자료입니다.	춘천 중도에서 처음 발견되어 중도라는 지명으로 이름을 붙였다. 청동기 시대보다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져 단단한 민무늬 토기라고도 부른다. 이 토기는 한반도 중부 지역에서 철기 사용이 시작될 때 처음 등장했다. 음식을 저장하거나 조리하는 데 사용하였다. 여(呂), 철(凸) 자 형태 집터와 함께 철기 시대를 대표하는 자료다.	 
14	쇠삽 鐵鍬 춘천 근화동 / 철기 시대	춘천시 근화동에서 출토된 쇠삽이다. 철기 시대에 만들기 시작해 삼국 시대까지 사용되었다. 이 쇠삽은 철기 시대에 사용된 것으로 유(U) 자 형태이며 나무로 만든 삽의 날 부분에 끼워 사용했다. 쇠삽은 선사 시대에 사용한 땅 뒤지개가 발전된 것이다. 쇠삽은 당시에 철기가 농경 도구에까지 사용된 것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춘천시 근화동에서 출토된 쇠삽입니다. 철기 시대에 만들기 시작해 삼국 시대까지 사용되었습니다. 이 쇠삽은 철기 시대에 사용된 것으로 ‘U’ 자 모양이며 나무로 만든 삽의 날 부분에 끼워 사용했습니다. 쇠삽은 선사 시대에 사용한 땅 뒤지개가 발전된 것입니다. 쇠삽은 당시에 철기가 농경 도구로 사용된 것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춘천시 근화동에서 출토된 것으로 철기 시대에 사용된 것이다. ‘U’ 자 모양이고 나무로 만든 삽의 날 부분에 끼워 사용했다. 쇠삽은 선사 시대에 사용한 땅 뒤지개가 발전된 것이다. 쇠삽은 당시에 철기를 농경 도구로 사용했다는 증거이다.	
15	송풍관 送風管 양양 동호리 / 철기 시대	양양군 동호리에서 출토된 송풍관이다. 이 송풍관은 철기 시대에 만들어 사용한 것이다. 송풍관은 철을 만들기 위한 제련로나 정련로 내부로 공기를 불어 넣어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된다. 이 송풍관은 비교적 크기가 작아 단야 시설에 바람을 불어 넣어 온도를 올려 철을 달구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송풍관은 당시 강원 지역에서 철기를 제작하는 기술을 보유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자료다.	양양군 동호리에서 출토된 송풍관입니다. 이 송풍관은 철기 시대에 만들어 사용한 것입니다. 송풍관은 철을 만들기 위한 제련로나 정련로 내부로 공기를 불어 넣어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됩니다. 이 송풍관은 비교적 크기가 작아 금속을 불에 달구어 두드리는 시설에 바람을 불어 넣어 온도를 올릴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송풍관은 당시 강원 지역에서 철기를 제작하는 기술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자료입니다.	양양군 동호리에서 출토되었다. 송풍관은 철을 만들기 위한 제련로나 정련로 내부로 공기를 불어 넣어 온도를 높여 준다. 이 송풍관은 크기가 작아 금속을 불에 달구어 두드리는 시설에 바람을 불어 넣어 온도를 올릴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송풍관은 당시 강원 지역에서 철기 제작이 가능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자료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16	청자 양 모양 그릇 羊形靑磁 원주 법천리 / 삼국 시대	원주시 법천리에서 출토된 청자 양 모양 그릇이다. 4세기 무렵 중국 동진에서 만든 것을 백제가 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 머리 꼭대기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다. 청자 양 모양 그릇은 당시 백제와 동진과의 교류를 보여주며, 백제가 강원 지역에 진출한 자취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원주시 법천리에서 출토된 양 모양의 청자 그릇입니다. 4세기 무렵 중국 동진에서 만든 것을 백제가 수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 머리 꼭대기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청자 양 모양 그릇은 당시 백제와 동진의 교류를 보여 주며, 백제가 강원 지역에 진출한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원주시 법천리에서 출토된 것이다. 양 머리 꼭대기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다. 4세기 무렵 중국 동진에서 만든 것을 백제가 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당시 백제와 동진의 교류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다.	
17	관 銅冠 동해 북평동 / 삼국 시대	동해시 북평동에서 출토된 동관이다. 이 관은 세움 장식으로 보아 6세기 무렵에 제작, 사용된 것이다. 이 동관은 발굴될 당시 인골이 함께 발견되었으며 분석 결과 여성으로 밝혀졌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종종 각종 의례를 담당했다. 이 동관의 주인 역시 비슷한 일을 한 제사장으로 추정된다. 또한 당시 이 동관은 신라가 이 지역을 중요시 생각했음을 보여준다.	동해시 북평동에서 출토된 동관입니다. 이 관은 세움 장식으로 보아 6세기 무렵에 제작, 사용된 것입니다. 이 동관은 발굴될 당시 사람의 뼈와 함께 발견되었으며 분석 결과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각종 의례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동관의 주인 역시 비슷한 일을 한 제사장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당시 이 동관은 신라가 이 지역을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보여 줍니다.	동해시 북평동에서 출토된 이 관은 세움 장식으로 보아 6세기에 제작, 사용된 것이다. 이 관은 발굴될 때 사람의 뼈와 함께 발견되었다. 분석 결과 그 뼈는 여성으로 밝혀졌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각종 의례를 담당하기도 했다. 이 관의 주인 역시 제사장으로 추정된다. 또 이 관은 신라가 당시 이 지역을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보여 준다.	
18	나비 모양 관모 꾸미개 金銅蝶形冠飾 강릉 초당동 / 삼국 시대	강릉시 초당동에서 출토된 나비 모양 관장식이다. 이 관장식은 5세기 신라에서 유행한 것으로 비슷한 시기에 제작, 사용되었다. 금동으로 만들었으며 날개 부분에 조그만 구멍을 여러 개 뚫어 작은 장식을 달았다. 관장식은 관을 장식하기 위한 장신구로 귀족들이 사용했다. 이 외에 금동관 등 장신구들은 당시 신라가 이 지역을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다.	강릉시 초당동에서 출토된 나비 모양의 관장식입니다. 이 관장식은 5세기 신라에서 유행한 것으로 비슷한 시기에 제작, 사용되었습니다. 금동으로 만들었으며 날개 부분에 조그만 구멍을 여러 개 뚫어 작은 장식을 달았습니다. 관장식은 관을 장식하기 위한 장신구로 귀족들이 사용했습니다. 이 외에 금동관 등 장신구들은 당시 신라가 이 지역을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강릉시 초당동에서 출토되었다. 금동으로 만들었으며 날개 부분에 조그만 구멍을 여러 개 뚫어 작은 장식을 달았다. 관을 장식하기 위한 장신구로 귀족들이 사용했다. 이 관장식은 5세기 신라에서 유행한 것이다. 금동관 등 장신구들은 당시 신라가 이 지역을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19	용이 그려진 항아리 壺 동해 북평동 / 삼국 시대	동해시 북평동에서 출토된 토기다. 함께 출토된 토기로 보아 6세기 무렵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붉은색 항아리 형태로 토기 바깥에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해 몸이 긴, 용으로 보이는 동물을 새겨 넣었다. 토기는 삼국 시대 주요 껍묻거리로 당시 사람들은 토기에 새겨진 용이 무덤을 보호하고 무덤 주인이 편안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길 염원한 것으로 보인다.	동해시 북평동에서 출토된 토기입니다. 함께 출토된 토기로 보아 6세기 무렵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붉은색 항아리 형태로 토기 겉에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해 몸이 긴 용으로 보이는 동물을 새겨 넣었습니다. 토기는 삼국 시대에 주요 껍묻거리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토기에 새겨진 용이 무덤을 보호하고 무덤 주인이 편안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길 염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시 북평동에서 출토된 것이다. 붉은색 항아리 겉에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해 몸이 긴 용으로 보이는 동물을 새겨 넣었다. 토기는 삼국 대에 껍묻거리로 많이 사용되었다. 당시 사람들은 토기에 새겨진 용이 무덤을 보호하고 무덤 주인이 편안한 안식을 얻도록 도와주길 염원한 것으로 보인다. 함께 출토된 토기로 보아 6세기 무렵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20	토우 장식 뚜껑 土偶附蓋 강릉 병산동 / 삼국 시대	강릉시 병산동에서 출토된 토기 뚜껑이다. 날카로운 도구로 삼각형의 무늬를 새겼으며 물고기 모양의 토우, 즉 흙 인형을 부착했다. 무늬를 만든 방식으로 보아 5세기 무렵 제작,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토우 달린 토기는 당시 주로 경주 지역에서 출토된다. 따라서 이 토기는 당시 강릉 지역이 신라 중심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다.	강릉시 병산동에서 출토된 토기 뚜껑입니다. 날카로운 도구로 삼각형의 무늬를 새겼으며 물고기 모양의 흙 인형을 붙였습니다. 무늬를 만든 방식으로 보아 5세기 무렵에 제작하여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토우 달린 토기는 주로 경주 지역에서 출토됩니다. 따라서 이 토기는 당시 강릉 지역이 신라 중심지인 경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강릉시 병산동에서 출토된 것이다. 날카로운 도구로 삼각형의 무늬를 새겼으며 물고기 모양의 흙 인형(토우)을 붙였다. 무늬를 만든 방식으로 보면 5세기 무렵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토우 달린 토기는 주로 경주 지역에서 출토된다. 따라서 이 토기는 당시 강릉 지역이 신라 중심지인 경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다.	
21	뿔 모양 잔 角杯 동해 구호동 / 삼국 시대	동해시 구호동에서 출토된 뿔잔이다. 주로 신라, 가야에서 사용한 형태로 6세기 무렵 제작, 사용된 것이다. 굽다리에 뿔 모양 잔을 올리고 고리 장식으로 꾸몄다. 그 형태가 일상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고 무덤에서 출토된다는 점에서 매장 의례에 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강원 지역에서 뿔잔이 출토된 것은 동해시 구호동 유적이 유일하다.	동해시 구호동에서 출토된 뿔잔입니다. 주로 신라, 가야에서 사용한 형태로 6세기 무렵에 제작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굽다리에 뿔 모양 잔을 올리고 고리 장식으로 꾸몄습니다. 그 형태가 일상에서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무덤에서 출토된다는 점에서 매장 의례에 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원 지역에서 뿔잔이 출토된 것은 동해시 구호동 유적이 유일합니다.	동해시 구호동에서 출토된 것이다. 강원 지역에서 뿔잔이 출토된 것은 이 유적이 유일하다. 굽다리에 뿔 모양 잔을 올리고 고리 장식으로 꾸몄다. 모양을 보면 일상에서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무덤에서 출토된다는 점에서 매장 의례에 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로 신라, 가야에서 사용한 형태로 6세기 무렵에 제작한 것이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22	가야계 토기 伽倻系土器 동해 추암동 / 삼국 시대	동해시 추암동에서 출토된 대가야계 토기다. 대가야는 6세기 무렵 번성한 국가로 이 무렵 제작,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 토기 뚜껑 손잡이가 대체로 굽다리 모양인 반면 대가야계 뚜껑 손잡이는 단추로 차이가 있다. 대가야 토기가 동해시에서 확인되는 것은 당시 대가야가 망한 뒤 신라가 대가야 유민을 현재 동해시로 이주시켰기 때문이다. 이 토기는 문헌에 기록되지 않은 대가야 유민의 존재를 알려준다.	동해시 추암동에서 출토된 대가야계 토기입니다. 대가야는 6세기 무렵 번성한 국가입니다. 신라의 토기 뚜껑 손잡이가 주로 굽다리 모양인 반면 대가야계 뚜껑 손잡이는 단추 모양입니다. 대가야 토기가 동해시에서 확인되는 것은 당시 대가야가 망한 뒤 신라가 대가야의 유민을 현재의 동해시로 이주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토기는 문헌에 기록되지 않은 대가야의 유민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동해시 추암동에서 출토된 것이다. 신라의 토기 뚜껑 손잡이는 주로 굽다리 모양인데 대가야계 뚜껑 손잡이는 단추 모양이다. 대가야는 6세기 무렵 번성한 국가이다. 대가야 토기가 동해시 추암동에서 출토된 이유는 당시 대가야가 망한 뒤 신라가 대가야의 유민을 현재의 동해시로 이주시켰기 때문이다. 이 토기는 문헌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대가야의 유민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려 준다.	 
23	호동 壺鐙 춘천 소양로1가 / 통일 신라 시대	통일 신라 삭주(朔州) 행정의 중심이었던 춘천시 근화동에서 발견된 발걸이다. 말을 탈 때 발을 거는 용도로, 발 넣는 부분이 주머니 모양이다. 은입사로 전면(全面)을 화려하게 꾸몄다. 근화동은 봉의산성과 함께 통일 신라 관아가 있던 곳이어서, 당시 관리들이 사용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 신라 삭주 행정의 중심이었던 춘천시 근화동에서 발견된 발걸이입니다. 말을 탈 때 발을 거는 용도로, 발을 넣는 부분이 주머니 모양입니다. 문양을 따라 은실을 새겨 넣은 은입사 기법으로 전체 표면을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근화동은 봉의산성과 함께 통일 신라 관아가 있던 곳으로, 당시 관리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말을 탈 때 발을 거는 용도로 사용했다. 발을 넣는 부분이 주머니 모양이다. 문양을 따라 은실을 새겨 넣은 기법으로 전체 표면을 화려하게 꾸몄다. 통일 신라 삭주 행정의 중심이었던 춘천시 근화동에서 발견되었다. 근화동은 통일 신라 관아가 있던 곳이다. 이것은 당시 관리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24	안압지 출토 목간 木簡 경주 인왕동 / 통일 신라 시대	경주시 안압지에서 출토된 이 목간은 양쪽 가장자리에 홈을 판 것으로 보아 물건에 매단 꼬리표로 여겨진다. 목간은 문자를 기록한 나무 조각을 말한다. 이 목간에는 강원도 고성에서 경주 동궁으로 해산물 젓갈을 보낸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통일 신라 동해안을 따라 북해통(北海通)이라는 길이 마련되어 있어 이 길을 따라 이러한 물품이 오갔을 것이다.	경주시 안압지에서 출토된 이 목간은 양쪽 가장자리에 홈을 판 것으로 보아 물건에 매단 꼬리표로 추정됩니다. 목간은 문자를 기록한 나무 조각을 말합니다. 이 목간에는 강원도 고성에서 경주 동궁으로 해산물 젓갈을 보낸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통일 신라 때 동해안을 따라 ‘북해통’이라는 길이 있어서 이 길을 따라 물건이 오갔을 것입니다.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된 목간이다. 목간은 문자를 기록한 나무 조각을 말한다. 이 목간은 양쪽 가장자리에 홈을 판 것으로 보아 물건에 매단 꼬리표로 추정된다. 이 목간에는 강원도 고성에서 경주 동궁으로 해산물 젓갈을 보낸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통일 신라 때 동해안을 따라 ‘북해통’이라는 길이 있어서 이 길을 따라 물건이 오갔을 것이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25	<p><b>부처</b></p> <p>金銅如來立像</p> <p>양양 강현면 / 통일 신라 시대</p>	<p>설악산 양양군 진전사에서 발견된 불상이다. 다소 늘어진 선각으로 된 옷 주름 표현과 대의(大衣) 끝자락 모습 등에서 통일 신라 9세기 불상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인다. 커다란 손을 아래위로 넓게 벌리고 있는 손 모양은 두려워 말라는 의미와 중생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뜻이다. 통일 신라 9세기 이곳에서 선종(禪宗)이 처음 꽃 피어나던 시기에 만들어진 불상으로 추정된다.</p>	<p>설악산 양양군 진전사에서 발견된 불상입니다. 다소 늘어진 선으로 된 옷 주름 표현과 옷의 끝자락 모습 등에서 통일 신라 9세기 불상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커다란 손을 아래위로 넓게 벌리고 있는 손 모양은 두려워 말라는 의미와 중생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뜻입니다. 통일 신라 9세기 이곳에서 선종이 처음 꽃 피어나던 시기에 만들어진 불상으로 추정됩니다.</p>	<p>이 불상은 설악산 양양군 진전사에서 발견되었다. 늘어진 선으로 된 옷 주름 표현과 옷의 끝자락 모습 등에서 통일 신라 9세기 불상의 전형적인 특징이 보인다. 커다란 손을 아래위로 넓게 벌리고 있는 손 모양은 두려워 말라는 의미와 중생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뜻이다. 통일 신라 9세기 이곳에서 선종이 처음 시작되던 시기에 만들어진 불상으로 추정된다.</p>	
26	<p><b>염거화상탑에서 나온 글을 새긴 동판</b></p> <p>廉居和尚塔誌</p> <p>원주 지정면 / 통일 신라 시대 보물 제1871호</p>	<p>원주시 흥법사에서 옮겨 온 염거화상탑에서 나온 탑지이다. 통일 신라 844년에 돌아가신 염거화상의 입적 연도 등이 쌍구체 필체의 유려한 글씨로 쓰여 있다. 마지막 행에는 통일 신라 46대 문성왕의 이름인 ‘慶膺大王(경응대왕)’이 새겨졌는데, 왕의 이름이 다른 글자보다 작게 쓰여 왕이 승려에게 제자의 예를 표하고자 스스로를 낮추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당시 선종 승려의 위상을 엿볼 수 있다.</p>	<p>원주시 흥법사에서 옮겨 온 염거화상탑에서 나온 탑지입니다. 통일 신라 844년에 돌아가신 염거화상의 입적 연도 등이 쌍구체 필체의 유려한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마지막 행에는 통일 신라 46대 문성왕의 이름인 ‘경응대왕’이 새겨져 있는데, 왕의 이름이 다른 글자보다 작게 적혀 있어 왕이 승려에게 제자의 예를 표하고자 스스로 낮추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시 선종 승려의 위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p>	<p>원주시 흥법사 염거화상탑에서 나온 탑지이다. 이 탑지에는 염거화상이 통일 신라 844년에 돌아가셨다는 내용 등이 쌍구체 필체로 쓰여 있다. 마지막 행에는 통일 신라 46대 왕의 이름인 ‘경응대왕’이 새겨져 있는데, 왕의 이름이 다른 글자보다 작게 적혀 있다. 이것은 왕이 승려에게 제자의 예를 표하고자 스스로 낮추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선종 승려의 위상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p>	
27	<p><b>홍각선사 탑비 조각</b></p> <p>弘覺禪師 塔碑 片</p> <p>양양 서면 / 통일 신라 시대</p>	<p>양양군 선림원 홍각선사(810년경~880)의 탑비의 비석 조각이다. 이 비의 주인공은 국왕의 존경을 받은 고승이었다. 그를 기리는 비문은 왕의 명에 따라 김원이 짓고 승려 윤철이 당시 유행하던 왕희지의 글씨를 모아 886년(정강왕 1년)</p>	<p>양양군 선림원 홍각선사 탑비의 비석 조각입니다. 이 비의 주인공은 국왕의 존경을 받은 고승이었습니다. 비문은 승려 윤철이 당시 유행하던 왕희지의 글씨를 모아 886년에 새겼습니다. 현재의 선림원은 비문에 적힌 역성사로 추정되고 있</p>	<p>양양군 선림원 홍각선사 탑비의 비석 조각이다. 이 비의 주인공은 국왕의 존경을 받은 고승이었다. 비문은 886년 승려 윤철이 당시 유행하던 왕희지의 글씨를 모아 새겼다. 현재의</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에 세워졌다. 현재의 선림원은 비문에 적힌 역성사로 추정되고 있으며, 왕희지의 서법과 통일 신라 선종의 위상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으며, 왕희지의 서법과 통일 신라 선종의 위상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선림원은 비문에 적힌 역성사로 추정되고 있다. 왕희지의 서법과 통일 신라 선종의 위상을 짐작해 볼 수 있다.	
28	작은 탑 蠟石製小塔 양양 서면 / 통일 신라 시대	양양군 선림원 삼층 석탑에서 발견된 것으로, 작은 탑이지만 기단과 탑신, 오묘한 문양 등을 새겼고 그 안에는 신비로운 주문인 다라니를 적어 넣었다. 통일 신라 사람들은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좋아하여 탑을 만들 때 부처의 사리와 함께 작은 탑 77개 혹은 99개를 만들어 봉안하였다. 이 경전대로 탑을 만들면 수명이 연장되고 극락왕생하여 백 천 겁 복락을 받는다고 믿었다.	양양군 선림원 삼층 석탑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작은 탑이지만 기단과 탑신, 오묘한 문양 등을 새겼고 그 안에는 신비로운 주문인 다라니를 적어 넣었습니다. 통일 신라 사람들은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좋아하여 탑을 만들 때 부처의 사리와 함께 작은 탑 77개 혹은 99개를 만들어 봉안하였습니다. 이 경전대로 탑을 만들면 수명이 길어지고 극락왕생하여 행복과 안락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양양군 선림원 삼층 석탑에서 발견되었다. 작은 탑이지만 기단과 탑신도 있고, 특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다. 또 탑 안에는 신비로운 주문인 다라니를 적어 넣었다. 통일 신라 사람들은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좋아해서 탑을 만들 때 부처의 사리와 함께 작은 탑 77개 혹은 99개를 만들어 봉안하였다. 이 경전대로 탑을 만들면 수명이 길어지고 극락왕생하여 행복과 안락을 얻는다고 믿었다.	
29	사자 무늬 수막새 獅子文 圓瓦當 태백 황지동 / 통일 신라 시대	태백시 본적사 터에서 출토된 통일 신라 말 수막새이다. 수막새는 처마 끝을 마감하는 기와로 대부분 화려한 문양이 장식된다, 본적사지 수막새에는 독특한 사자 모습이 새겨져 있다. 불교에서는 거룩한 부처의 두려움 없는 위대한 모습을 동물의 왕인 사자에 비유하여, 부처가 앉는 자리를 사자좌라고도 부른다. 이 수막새에 새겨진 사자는 얼굴이 크게 강조되어 있으나 두려운 모습이라기보다는 친근한 미소를 띠고 있다.	태백시 본적사 터에서 출토된 통일 신라 말 수막새입니다. 수막새는 처마 끝을 마감하는 기와로 대부분 화려한 문양이 장식됩니다. 본적사지 수막새에는 독특한 사자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거룩한 부처의 두려움 없는 위대한 모습을 사자에 비유하여, 부처가 앉는 자리를 사자좌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수막새에 새겨진 사자는 얼굴이 크게 강조되어 있으나 두려운 모습이라기보다는 친근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백시 본적사 터에서 출토된 통일 신라 말 수막새이다. 수막새는 처마 끝을 마감하는 기와로 대부분 화려한 문양으로 장식된다. 이 수막새에는 독특한 사자 모습이 새겨져 있다. 이 수막새에 새겨진 사자는 얼굴이 크게 강조되어 있으나 두려운 모습이라기보다는 친근한 미소를 짓고 있다. 불교에서는 거룩한 부처의 두려움 없는 위대한 모습을 사자에 비유하여, 부처가 앉는 자리를 사자좌라고도 불렀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30	선림원 동종 禪林院 鍾 양양 서면 / 통일 신라 시대	1948년 양양군 선림원 터에서 발견되어 월정사에서 보관되다가 한국 전쟁 때 파손되어 일부만이 전해 오고 있다. 신라 804년(애장왕 5년)에 제작된 것으로 평창 상원사 범종(725), 경주 성덕 대왕 신종(771)에 이어 세 번째로 오래된 종이다. 종 안쪽에 이두(吏讀) 문자로 종을 만든 내력이 남아 있어 통일 신라 9세기 화엄종 승려들이 선종으로 옮겨 간 사실을 전한다.	1948년 양양군 선림원 터에서 발견되어 월정사에서 보관되다가 한국 전쟁 때 파손된 후 일부만 남아있습니다. 신라 804년에 제작된 것으로 725년에 만들어진 평창 상원사 범종, 771년에 만들어진 경주 성덕 대왕 신종에 이어 세 번째로 오래된 종입니다. 종 안쪽에는 이두 문자로 종을 만든 내력이 남아 있어, 통일 신라 9세기에 화엄종 승려들이 선종으로 옮겨 간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유물은 신라 804년에 제작된 것이다. 725년에 만들어진 평창 상원사 범종, 771년에 만들어진 경주 성덕 대왕 신종에 이어 세 번째로 오래된 종이다. 종 안쪽에는 이두 문자로 종을 만든 내력이 적혀 있는데, 통일 신라 9세기에 화엄종 승려들이 선종으로 옮겨 간 사실을 알 수 있다. 1948년 양양군 선림원 터에서 발견되어 월정사에서 보관되다가 한국 전쟁 때 파손된 후 일부만 남아있다.	
31	석가모니불 鐵造釋迦佛坐像 원주 학성동 / 고려 시대	일제 강점기였던 1915년 조선 물산 공진회 전시를 위해 원주시 학성동에서 서 울시 경복궁으로 옮겨진 불상이다. 쇠를 녹여서 만든 철불로, 양손은 부처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취하던 손갖춤을 하고 있다. 통일 신라 말부터 고려 초기는 중국으로부터 선종(禪宗)을 받아들여 지방 문화가 번성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를 대표하는 불상으로, 한 지역에서 다섯 구의 철불이 조성된 예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일제 강점기였던 1915년 조선 물산 공진회 전시를 위해 원주시 학성동에서 경복궁으로 옮겨진 불상입니다. 쇠를 녹여서 만든 철불로, 양손은 부처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취하는 손갖춤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 신라 말부터 고려 초기는 중국으로부터 선종을 받아들여 지방 문화가 번성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대표하는 불상으로, 한 지역에서 다섯 구의 철불이 만들어진 예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쇠를 녹여 만든 불상이다. 양손은 부처가 깨달음을 얻을 때의 손모양을 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인 1915년, 조선 물산 공진회 전시를 위해 원주시 학성동에서 경복궁으로 옮겨졌다. 통일 신라 말부터 고려 초기는 중국으로부터 선종을 받아들여 지방 문화가 번성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의 대표 불상으로, 한 지역에서 다섯 구의 철불이 만들어졌다. 이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32	약사불 鐵造藥師佛坐像 원주 학성동 / 고려 시대 보물 제1873호	일제 강점기 원주시 학성동에서 경복궁으로 옮겨진 불상이다. 고려 시대 10세기경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오른손에 약그릇을 들고 있는 약사불이다. 어깨가 좁은 편이고 몸통이 길쭉하며 손은 유난히 크게 강조되어 있다. 뒷면까지 세부가 잘 표현되어 있고 광배를 꽂았던 축이 남아 있다. 밀랍 주조법을 사용하여	일제 강점기에 원주시 학성동에서 경복궁으로 옮겨진 불상입니다. 고려 시대 10세기경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오른손에 약그릇을 들고 있는 약사불입니다. 어깨가 좁은 편이고 몸통이 길쭉하며 손은 유난히 크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뒷면까지 잘 표현되어 있고 광배를 꽂았던 축이 남아 있습니다. 밀랍 주조법	고려 시대 10세기경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오른손에 약그릇을 들고 있는 부처이다. 어깨가 좁고 몸통이 길쭉하며 손은 유난히 크다. 뒷면까지 잘 표현되어 있고 광배를 꽂았던 축이 남아 있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대형 철조 불상을 주조하였기에 표면이 매끄럽다.	을 사용하여 대형 철조 불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표면이 매끄럽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원주시 학성동에서 경복궁으로 옮겨진 불상이다. 이 대형 철조 불상은 밀랍 주조법을 사용하여 만들어서 표면이 매끄럽다.	
33	<b>비로자나불</b> 石造毘盧遮那佛坐像 원주 본저전동 / 고려 시대	원주시 본저전동에서 경복궁으로 옮겨진 불상이다. 고려 시대 10세기경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중생과 부처, 미혹과 깨달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지권인(智拳印)의 손갖춤을 한 것이 특징이다. 지권인은 왼손 검지를 오른손이 감싼 손 모양이다. 이 불상은 둥글넓직한 얼굴과 물결무늬 옷 주름, 대좌의 천인상과 사자 등 고려 초기 불상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원주시 본저전동에서 경복궁으로 옮겨진 불상입니다. 고려 시대 10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생과 부처, 미혹과 깨달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지권인의 손갖춤을 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권인은 왼손 검지를 오른손이 감싼 손 모양입니다. 이 불상은 둥글넓직한 얼굴과 물결무늬의 옷 주름, 대좌의 천인상과 사자 등 고려 초기 불상의 특징을 잘 보여 줍니다.	고려 시대 10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손 모양은 왼손 검지를 오른손이 감싼 지권인을 하고 있다. 이 손 모양은 중생과 부처, 미혹과 깨달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이 불상은 둥글넓직한 얼굴과 물결무늬의 옷 주름, 대좌의 천인상과 사자 등 고려 초기 불상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원주시 본조전동에서 경복궁으로 옮겨진 불상이다.	
34	<b>문수보살</b> 石造文殊菩薩坐像 강릉 남향진동 / 고려 시대 국보 제124호	국보 124호로, 일제 강점기 강릉시 한송사 터에서 일본으로 반출됐다가 1966년 5월에 반환되었다. 흰 대리석제 문수보살상으로, 오죽헌 시립 박물관의 보살상은 함께 조성된 보현보살로 추정된다. 지혜와 자비행이 구현된 입가의 미소와 너그러운 얼굴, 둥근 어깨와 풍만한 팔다리, 단정하게 앉은 모습 등에서는 통일신라 석굴암 조각 전통이 고려 초까지 이어진 모습을 볼 수 있다.	국보 124호로, 일제 강점기 강릉시 한송사 터에서 일본으로 반출됐다가 1966년 5월에 반환되었습니다. 흰 대리석제 문수보살상으로 오죽헌 시립 박물관의 보살상과 함께 만들어진 보현보살로 추정됩니다. 지혜와 자비가 느껴지는 입가의 미소와 너그러운 얼굴, 둥근 어깨와 풍만한 팔다리, 단정하게 앉은 모습 등에서 통일신라 석굴암 조각의 전통이 고려 초까지 이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흰 대리석으로 만든 문수보살상으로 국보 124호이다. 강릉시 한송사 터에 보현보살과 함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현보살은 오죽헌 시립 박물관에 남아 있고, 문수보살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됐다가 1966년 5월에 국립 춘천 박물관으로 반환되었다. 지혜와 자비가 느껴지는 입가의 미소와 너그러운 얼굴 표정, 둥근 어깨와 풍만한 팔다리, 단정하게 앉은 모습에서 통일신라 석굴암 조각의 전통이 고려 초까지 이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35	관음보살 회양 장연리 / 고려 시대 보물 제1872호	북강원도 회양군 장연리 금강산 인근에서 발견된 보살상이다. 금동으로 만든 이 보살상은 전신을 뒤덮은 화려한 장신구, 높은 관, 커다란 원반형의 귀걸이, 오밀조밀한 이목구비, 대좌의 모양 등에서 중국 원나라 황실을 중심으로 성행하였던 티베트 불교 미술의 요소가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불교 조각은 고려 말 조선 초 조각에 크게 영향을 주었으며, 이 보살상은 이러한 경향의 불상을 대표한다.	북강원도 회양군 장연리 금강산 인근에서 발견된 보살상입니다. 금동으로 만든 이 보살상은 전신을 뒤덮은 화려한 장신구, 높은 관, 커다란 원반형의 귀걸이, 오밀조밀한 이목구비, 대좌의 모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원나라 황실을 중심으로 유행하던 티베트 불교 미술의 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교 조각은 고려 말과 조선 초 조각에 크게 영향을 주었으며, 이 보살상은 이러한 경향의 불상을 대표합니다.	북강원도 회양군 장연리 금강산 인근에서 발견된 보살상이다. 금동으로 만들었다. 전신에 화려한 장신구, 높은 관, 커다란 원반형의 귀걸이, 오밀조밀한 이목구비, 대좌의 모양 등을 보니 중국 원나라 황실에서 유행하던 티베트 불교 미술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런 불교 조각은 고려 말, 조선 초 조각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이 보살상은 이런 경향의 대표 불상이다.	
36	관음보살 金銅觀音菩薩坐像 고려 시대	6.25 참전 군인이었던 찰스 슈미츠의 부인이 1999년에 기증한 환수 문화재다. 철원군 부근에서 한 스님이 이 관음보살상을 슈미츠에게 맡겼다고 한다. 슈미츠는 죽음을 앞두고 한국으로 돌려주라는 유언을 남겼다. 관음보살은 머리에 쓴 관에 화불이 새겨져 있고 정병을 들고 있는 보살상으로 중생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보살이다. 전쟁은 보살님도 피난 가게 만들었고,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는 이를 잘 보관해 달라는 스님과의 약속을 지켜 냈다.	6.25 참전 군인이었던 찰스 슈미츠의 부인이 1999년에 기증한 환수 문화재입니다. 철원군 부근에서 한 스님이 이 관음보살상을 슈미츠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슈미츠는 죽음을 앞두고 한국으로 돌려주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관음보살은 머리에 쓴 관에 화불이 새겨져 있고 정병을 들고 있는 보살상으로, 중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보살입니다. 전쟁은 보살도 피난을 가게 만들었고,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는 이를 잘 보관해 달라는 스님과의 약속을 지켜 냈습니다.	관음보살은 중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보살이다. 이 보살상은 머리에 쓴 관에 화불이 새겨져 있고 정병을 들고 있다. 6.25 때 참전한 미군 찰스 슈미츠의 부인이 1999년에 한국에 돌려준 문화재이다. 철원 부근에서 한 스님이 이 관음보살상을 슈미츠에게 맡겼고, 죽음을 앞둔 슈미츠가 한국으로 돌려주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37	치미 鷗尾 원주 부론면 / 고려 시대	원주시 법천사 터에서 출토된 치미다. 원주 원씨(元氏) 출신인 지광국사 해린(984~1070)이 왕사, 국사로 활약하던 시기인 10~11세기경 법천사가 가장 융성한 시기에 만들어진 기와로 추정된다. 치미는 지붕 용마루 양쪽 끝머리에 높게 얹는 기와다. 끝부분에 날카로운 것이 곧	원주시 법천사 터에서 출토된 치미입니다. 원주 원씨 출신인 지광국사 해린(984~1070)이 왕사, 국사로 활약하던 시기인 10~11세기경 만들어진 기와로 추정됩니다. 이 시기는 법천사가 가장 융성한 시기입니다. 치미는 지붕 용마루 양쪽 끝머리에 높게 얹는 기와입니다. 끝부	원주시 법천사 터에서 출토된 치미이다. 치미는 지붕 용마루 양쪽 끝머리에 높게 얹는 기와이다. 이 기와는 10~11세기경 만들어진 것으로 원주 원씨 출신인 지광국사 해린이 왕사, 국사로 활동하던 때이다. 이때는 법천사가 가장 융성한 시기이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추선 독특한 치미의 모습은 이 시기 법천사의 위상을 짐작해 보게 한다.	분에 날카로운 것이 곧추선 독특한 치미의 모습으로 이 시기 법천사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치미의 끝 부분에 날카로운 것이 곧추선 독특한 모습으로 이 시기 법천사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38	석관 石棺  고려 시대	출토지는 알려지지 않은 석관이다. 고려 시대 상류층에서는 화장한 유골이나 육신을 썩힌 후 뼈만 추려 모시는 석관이 유행하였다. 석관 뚜껑에는 비천상(飛天像)과 꽃이 새겨져 있고, 네 개의 면에는 청룡과 백호, 주작과 현무의 사신(四神)이 죽은 이의 유골을 지켜 주고 있다. 고려 시대 장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전시품이다.	출토지는 알려지지 않은 석관입니다. 고려 시대 상류층에서는 화장한 유골이나 육신을 썩힌 후 뼈만 추려서 모시는 석관이 유행하였습니다. 석관 뚜껑에는 비천상과 꽃이 새겨져 있고, 네 개의 면에는 청룡과 백호, 주작과 현무의 사신이 죽은 이의 유골을 지켜 주고 있습니다. 고려 시대의 장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전시품입니다.	고려 시대 상류층에서는 화장한 유골이나 육신을 썩힌 후 뼈만 추려서 모시는 석관이 유행했다. 이 석관의 뚜껑에는 비천상과 꽃이 새겨져 있고, 네 개의 면에는 청룡, 백호, 주작, 현무의 사신이 죽은 이의 유골을 지켜주고 있다. 이 석관으로 고려 시대의 장례 문화를 엿볼 수 있다.	
39	물고기 무늬 암키와 魚文平瓦  양양 강현면 / 고려 시대	양양군 설악산 진전사에서 출토된 것으로, 지붕을 덮는 암키와이다. 진전사는 도의선사를 통해 통일 신라 선종이 처음 뿌리내린 곳이었으며, 고려 시대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 스님이 출가한 곳이기도 하다. 기와에는 겹마름모 무늬와 물고기 무늬가 얹혀 돌출해 있다. 물고기는 밤낮으로 눈을 감지 않으므로 수행자도 이와 같이 정진하라는 불교의 규범을 문양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양양군 설악산 진전사에서 출토된 것으로, 지붕을 덮는 암키와입니다. 진전사는 도의선사를 통해 통일 신라 선종이 처음 뿌리내린 곳이며, 고려 시대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 스님이 출가한 곳이기도 합니다. 기와에는 겹마름모 무늬와 물고기 무늬가 도드라지게 새겨져 있습니다. 물고기는 밤낮으로 눈을 감지 않으므로 수행자도 이와 같이 정진하라는 불교의 규범을 문양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지붕을 덮는 암키와이다. 양양군 설악산 진전사에서 출토되었다. 진전사는 도의선사를 통해 통일 신라 선종이 처음 뿌리 내린 곳이며, 고려 시대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 스님이 출가한 곳이기도 하다. 고려 시대 기와는 겹마름모 무늬와 물고기 무늬가 도드라지게 새겨져 있다. 물고기는 밤낮으로 눈을 감지 않으므로 수행자도 이와 같이 정진하라는 불교의 규범을 문양으로 나타낸 것이다.	
40	은제 도금 팔찌 銀製鍍金腕釧  고려시대	은으로 만든 이 팔찌는 안에서 바깥쪽으로 무늬를 높게 돌출시킨 타출 기법으로 정교하게 문양을 새겼다. 장식된 문양은 여섯 개의 주 문양을 능화형으로 배치한 뒤 능화문 안에는 서로 엇갈리게 표현된 두 마리의 새와 연화당초를 번갈	은으로 만든 이 팔찌는 안에서 바깥쪽으로 무늬를 높게 돌출시킨 타출 기법을 이용하여 정교한 문양을 새겨 넣었습니다. 여섯 개의 문양을 마름모 모양으로 배치한 뒤 마름모 안에는 서로 엇갈리게 표현된 두 마리의 새와 연화당초를 번갈	은으로 만든 팔찌다. 안에서 바깥쪽으로 무늬를 높게 돌출시키는 기법으로 정교한 문양을 새겨 넣었다. 여섯 개의 문양을 마름모 모양으로 배치한 뒤 마름모 안에는 서로 엇갈리게 표현된 두 마리의 새와 연화당초를 번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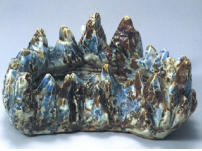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아 가며 장식하였다. 여백에는 닝쿨 형태의 연화당초문을 배치하고 그 주위를 둘러 문양을 더욱 도드라지게 표현하였다. 고려 금속 문화의 화려함을 잘 보여주는 유물이다.	아 장식하였습니다. 여백에는 닝쿨 형태의 연화당초문을 배치하였고 그 주위를 둘러 문양이 도드라지도록 하였습니다. 고려 금속 문화의 화려함을 잘 보여 주는 유물입니다.	장식하였다. 여백에는 닝쿨 형태의 연화당초문을 배치하였고 그 주위를 둘러 문양이 도드라지도록 하였다. 고려 금속 문화의 화려함을 잘 보여 주는 유물이다.	
41	소를 키운 영척 이야기 거울 甯戚飯牛文鏡 홍천 연봉리 / 고려 시대	홍천 연봉리에서 나온 거울로, 유리로 만든 거울이 보급되기 전 널리 사용되던 청동제 거울이다. 거울에는 중국 전국 시대 영척이 제환공에 발탁되기 전에 소를 키웠는데, 소에게 여물을 먹이면서도 소뿔을 두드리며 즐겁게 노래를 불렀다는 고사를 문양으로 새겼다. 고려 청동 거울은 중국에서 수입한 동경을 본떠 만든 것도 있지만 ‘高麗國造’(고려국조), 煌丕昌天(황비창천, 밝게 빛나는 푸른 하늘)이 새겨진 거울 등은 고려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홍천 연봉리에서 나온 거울로, 유리로 만든 거울이 보급되기 전 널리 사용되던 청동제 거울입니다. 거울에는 중국 전국 시대 영척이 환약을 만드는 보직에 발탁되기 전에 소를 키웠는데, 소에게 여물을 먹이며 소뿔을 두드리며 즐겁게 노래를 불렀다는 고사가 문양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고려 청동 거울은 중국에서 수입한 동경을 본떠 만든 것도 있지만, ‘고려국조’, ‘황비창천’이 새겨진 거울 등은 고려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거울은 홍천 연봉리에서 나왔다. 유리로 만든 거울이 보급되기 전 널리 사용하던 청동제 거울이다. 거울에는 ‘중국 전국 시대 영척이 환약을 만드는 보직에 발탁되기 전에 소를 키웠는데, 소에게 여물을 먹이며 소뿔을 두드리며 즐겁게 노래를 불렀다.’는 고사가 문양으로 새겨져 있다. 고려 청동 거울은 중국에서 수입한 동경을 본떠 만든 것도 있지만, ‘고려국조’, ‘황비창천’이 새겨진 거울 등은 고려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42	탑지석 普濟尊者塔誌 원주 태장동 / 고려 시대	원주시 영천사 보제존자 나옹 스님의 탑에서 나온 탑지이다. 이 탑지에는 사리를 주탑과 동탑에 각각 모신 내용과 이를 봉안한 문도들의 이름이 앞뒤에 음각으로 새겨졌다. 스님은 사굴산문 출신으로, 원나라로 유학을 가서 인도 스님 지공(指空)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으며, 고려 공민왕의 예우를 받았다. 1376년 5월 여주 신흥사에서 입적 후 무수히 많은 사리가 수습되어 스님의 숭배 열기가 일어난 당시의 정황을 짐작하게 한다.	원주시 영천사 보제존자 나옹 스님의 탑에서 나온 탑지입니다. 이 탑지에는 사리를 주탑과 동탑에 각각 모신 내용과 이를 봉안한 문도들의 이름이 앞뒤에 음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스님은 사굴산문 출신으로, 원나라로 유학을 가서 인도 스님 지공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고려 공민왕의 예우를 받았습니다. 1376년 5월 여주 신흥사에서 입적 후 무수히 많은 사리가 수습되어 스님의 숭배 열기가 일어난 당시의 정황을 짐작하게 해 줍니다.	이것은 원주시 영천사 보제존자 나옹 스님의 탑에서 나온 탑지이다. 이 탑지에는 사리를 주탑과 동탑에 각각 모신 내용과 이를 봉안한 문도들의 이름이 앞뒤에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나옹스님은 사굴산문 출신으로, 원나라로 유학을 가서 인도 지공스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고려 공민왕의 예우를 받았다. 1376년 5월 여주 신흥사에서 입적 후 무수히 많은 사리가 수습되어 스님의 숭배 열기가 일어난 당시의 정황을 짐작하게 해 준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43	<p><b>향로</b></p> <p>靑 磁陽刻 顧龍文香爐</p> <p>동해 삼화동 / 고려 시대</p>	<p>동해시 삼화동 고려 시대 무덤에서 나온 것으로 고려청자와 백자, 중국 송나라에서 수입된 청자가 함께 출토되었다. 무덤의 규모나 출토 유물의 수준으로 보아 고려 상류 귀족층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다. 향로에는 용이 머리를 돌려 몸 쪽을 바라보는 고통문(顧龍文)이 양각으로 새겨져 있다. 중국의 옛 청동기인 세발술(鼎)을 고려인들의 취향에 맞게 본뜬 세발술 모양 청자 향로로, 이러한 모양의 청자 향로는 주로 개성에서 발견되고 있다.</p>	<p>동해시 삼화동 고려 시대 무덤에서 나온 것으로 고려청자와 백자, 중국 송나라에서 수입된 청자가 함께 출토되었습니다. 무덤의 규모나 출토 유물의 수준으로 보아 고려 상류 귀족층의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p> <p>향로에는 용이 머리를 돌려 몸 쪽을 바라보는 고통문이 양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중국의 옛 청동기인 세발술을 고려인들의 취향에 맞게 본뜬 세발술 모양의 청자 향로입니다. 이러한 모양의 청자 향로는 주로 개성에서 발견됩니다.</p>	<p>향로이다.</p> <p>용이 머리를 돌려 몸 쪽을 바라보는 고통문이 양각으로 새겨져 있다.</p> <p>중국의 옛 청동기인 세발술을 고려인들의 취향에 맞게 본뜬 세발술 모양의 청자 향로이다. 이런 모양의 청자 향로는 주로 개성에서 발견된다.</p> <p>이 향로는 동해시 삼화동 고려 시대 무덤에서 나왔다.</p> <p>고려청자와 백자, 중국 송나라에서 수입된 청자가 함께 출토되었다.</p> <p>무덤의 규모나 출토 유물의 수준으로 보아 고려 상류 귀족층의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다.</p>	
44	<p><b>정병</b></p> <p>白磁淨瓶</p> <p>동해 삼화동 / 고려 시대</p>	<p>동해시 삼화동 고려 시대 무덤에서 나온 것이다. 백자 정병은 깨끗하고 맑은 물을 담는 물병으로, 모양은 몸체 어깨에 물 넣는 곳인 귀매(注口)가 있고, 목 위에는 물 따르는 곳인 첨대(尖臺)가 달려 있어 물을 넣는 곳과 따르는 곳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원래 정병은 수행 생활을 하는 승려들의 마실 물을 담던 수행 도구의 하나였으나, 귀족이나 국가 관리들도 이를 사용하였다. 지방 가마에서 생산된 고려 백자이다.</p>	<p>동해시 삼화동 고려 시대 무덤에서 나온 것입니다. 백자 정병은 깨끗하고 맑은 물을 담는 물병입니다. 몸체 어깨에 물 넣는 구멍인 귀매가 있고, 목 위에는 물을 따르는 첨대가 달려 있어 물을 넣는 곳과 따르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원래 정병은 수행 생활을 하는 승려들의 마실 물을 담던 수행 도구의 하나였으나, 귀족이나 국가 관리들도 사용하였습니다. 이 정병은 지방 가마에서 생산된 고려 백자입니다.</p>	<p>이것은 깨끗하고 맑은 물을 담는 물병이다.</p> <p>몸체 어깨에 물을 넣는 구멍인 귀매가 있고, 목 위에는 물을 따르는 첨대가 달려 있어 물을 넣는 곳과 따르는 곳이 따로 있다.</p> <p>동해시 삼화동 고려 시대 무덤에서 나온 것으로, 지방 가마에서 생산된 고려 백자이다.</p> <p>원래 정병은 수행 생활을 하는 승려들의 마실 물을 담던 수행 도구의 하나였으나, 귀족이나 국가 관리들도 사용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45	<p>영월 창령사 터 나한 寧越 蒼嶺寺址 石造 羅漢 영월 남면 / 고려 시대</p>	<p>영월군 창령사 터에서 발견된 오백 나한상이다. 고려 말 조선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절터에는 기우제 터와 나한전 건물 터도 남아 있다. 나한은 부처의 제자로 산스크리트어인 아르하(Arhat)을 한자로 옮긴 아라한(阿羅漢)의 줄임말이다. 우리의 얼굴이 그대로 투영된 친근한 영월 창령사 오백 나한상들은 만물에 다 부처의 성품이 깃들어 있어서 누구나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조형미로 보여 준다.</p>	<p>영월군 창령사 터에서 발견된 오백 나한상입니다. 고려 말 조선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절터에는 기우제 터와 나한전 건물 터도 남아 있습니다. 나한은 부처의 제자로 산스크리트어인 ‘아르하(Arhat)’을 한자로 옮긴 ‘아라한’의 줄임말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그대로 투영된 친근한 영월 창령사 오백 나한상들은 만물에 모두 부처의 성품이 있어서 누구나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조형미로 보여 줍니다.</p>	<p>영월군 창령사 터에서 발견된 오백 나한상이다. 고려 말 조선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절터에는 기우제 터와 나한전 건물 터도 남아 있다. 우리의 얼굴이 그대로 투영된 친근한 영월 창령사 오백 나한상들은 만물에 모두 부처의 성품이 있어 누구나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조형미로 보여 준다. 나한은 부처의 제자로 산스크리트어인 ‘아르하’을 한자로 옮긴 ‘아라한’의 줄임말이다.</p>	
46	<p>유점사종 楡岾寺鍾 조선 시대</p>	<p>금강산 동쪽에 이름난 절이었던 유점사의 종이다. 고려 시대 민지(閔漬, 1248 ~ 1326)의 유점사기(楡岾寺記)에 의하면, 서역에서 부처 53구(軀)가 무쇠 종을 타고 내려와 강원도 고성에 도착하여 종을 나뭇가지에 걸어 놓고 앉아 신비한 향을 냈다고 한다. 이에 현제(縣宰) 노춘(盧椿)이 부처에게 예배하고, 그 자리에 유점사를 지었다. 여의주를 낀 쌍룡, 양감을 살린 용의 모습 등 조선 초의 뛰어난 조각 기법과 주조 기술을 보여준다.</p>	<p>금강산 동쪽에 이름난 절이었던 유점사의 종입니다. 고려 시대 민지(1248 ~ 1326)의 『유점사기』에 의하면, 서역에서 부처 53구가 무쇠 종을 타고 내려와 강원도 고성에 도착하여 종을 나뭇가지에 걸어 놓고 앉아 신비한 향을 냈다고 합니다. 이에 현의 우두머리인 노춘이 부처에게 절하고 그 자리에 유점사를 지었습니다. 여의주를 낀 쌍룡, 양감을 살린 용의 모습 등 조선 초의 뛰어난 조각 기법과 주조 기술을 보여 줍니다.</p>	<p>금강산 동쪽에 이름난 절이었던 유점사의 종이다. 여의주를 낀 쌍룡, 양감을 살린 용의 모습 등 조선 초의 뛰어난 조각 기법과 주조 기술을 보여 준다. 고려 시대 민지의 『유점사기』에 의하면, 서역에서 부처 53구가 무쇠 종을 타고 내려와 강원도 고성에 도착하여 종을 나뭇가지에 걸어 놓고 앉아 신비한 향을 냈다고 한다. 이에 현의 우두머리인 노춘이 부처에게 절하고 그 자리에 유점사를 지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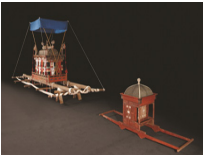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47	<p><b>담무갈 지장보살 현신도</b></p> <p>曇無竭地藏菩薩 現身圖</p> <p>조선 시대 보물 제1887호</p>	<p>고려 태조가 금강산 배점(拜帖)에서 담무갈보살을 보고 예배한 것을 묘사한 그림이다. 1307년에 화가 노영이 그렸다. 담무갈보살은 금강산에서 일만 이천 권속(眷屬)을 거느리며 《금강경》을 설법한다. 담무갈은 불법을 일으킨다는 법기(法起)라는 뜻이다. 화면 위에는 담무갈보살, 아랫부분에는 지장보살과 절하는 인물이 작게 그려졌다. 가장 오래된 금강산 그림으로 고려 시대의 산수화풍을 엿볼 수 있다.</p>	<p>고려 태조가 금강산 배점에서 담무갈보살을 보고 예배한 것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1307년에 화가 노영이 그렸습니다. 담무갈보살은 금강산에서 일만 이천 명의 무리를 거느리며 금강경을 설법합니다. ‘담무갈’은 불법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화면 위에는 담무갈보살, 아래에는 지장보살과 절하는 인물이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금강산 그림으로 고려 시대의 산수화풍을 엿볼 수 있습니다.</p>	<p>1307년 화가 노영이 그린 그림이다. 고려 태조가 금강산 배점에서 담무갈보살을 보고 예배한 것을 묘사한 그림이다. 담무갈보살은 금강산에서 일만 이천명의 무리를 거느리며 금강경을 설법한다. ‘담무갈’은 불법을 일으킨다는 뜻이다. 화면 위에는 담무갈보살, 아래에는 지장보살과 절하는 인물이 작게 그려져 있다. 가장 오래된 금강산 그림으로 고려 시대의 산수화풍을 엿볼 수 있다.</p>	
48	<p><b>금강산 민화 병풍</b></p> <p>金剛山 民畫屏</p> <p>조선 시대</p>	<p>금강산의 명소를 그리고 그 이름을 표시한 금강산도 병풍으로 그린 사람이 알려져 있지 않다. 1폭에 단발령(斷髮嶺)에서 금강산을 바라보는 장면은 금강산 그림의 첫 부분에 자주 그려졌던 소재다. 금강산 초입의 장안사(長安寺)부터 정양사(正陽寺), 표훈사(表訓寺), 유점사(楡岾寺) 등 유명한 금강산 절들과 만폭동(萬瀑洞), 묘길상(妙吉祥) 등이 그려졌다. 조선 후기에 금강산 여행이 유행하면서 금강산 그림도 애호되었다. 금강산 병풍은 금강산의 명소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 8폭, 10폭 등으로 다양하게 제작되었다.</p>	<p>금강산의 명소를 그리고 그 이름을 표시한 금강산도 병풍입니다. 그린 사람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1폭에 단발령에서 금강산을 바라보는 장면은 금강산 그림의 첫 부분에 자주 그려졌던 소재입니다. 금강산 초입의 장안사부터 정양사, 표훈사, 유점사 등 유명한 금강산의 절들과 만폭동, 묘길상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금강산 여행이 유행하면서 금강산 그림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금강산 병풍은 금강산의 명소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 8폭, 10폭 등 다양하게 제작되었습니다.</p>	<p>금강산의 명소를 그리고 그 이름을 표시한 금강산도 병풍이다. 그린 사람은 알려지지 않았다. 1폭에 단발령에서 금강산을 바라보는 장면은 금강산 그림의 첫 부분에 자주 그려졌던 소재이다. 금강산 초입의 장안사부터 정양사, 표훈사, 유점사 등 유명한 금강산의 절들과 만폭동, 묘길상 등이 그려져 있다. 조선 후기에 금강산 여행이 유행하면서 금강산 그림도 인기가 많았다. 금강산 병풍은 금강산 명소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 8폭, 10폭 등 다양하게 제작되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49	<p>산 모양 필세 白磁靑畵山形筆洗</p> <p>조선 시대</p>	<p>붓을 씻는 용도의 청화백자 필세로 금강산의 웅장한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산의 모양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표면을 거칠게 만들고, 발색이 짙은 청화와 철화 안료를 입혔다. 금강산 여행이 크게 유행했던 조선 18세기 이후에는 금강산을 소재로 한 선비들의 문방구류들도 인기를 끌었다. 이러한 필세는 본래의 기능뿐 아니라 선비의 완상품으로 사랑방을 장식했다.</p>	<p>붓을 씻는 용도의 청화 백자 필세로 금강산의 웅장한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산의 모양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표면을 거칠게 만들고, 발색이 짙은 청화와 철화 안료를 입혔습니다. 금강산 여행이 크게 유행했던 조선 18세기 이후에는 금강산을 소재로 한 선비들의 문방구류들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필세는 본래의 기능뿐 아니라 선비들이 사랑방 장식품으로 수집하여 즐겨 보는 용도로도 사용되었습니다.</p>	<p>붓을 씻는 데 사용한 청화 백자 필세이다. 금강산의 웅장한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산의 모양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표면을 거칠게 만들고, 발색이 짙은 청화와 철화 안료를 입혔다. 금강산 여행이 크게 유행했던 조선 18세기 이후에 금강산을 소재로 한 문방구류들도 인기가 많았다. 이런 필세는 붓을 씻는 기능뿐 아니라 선비들이 수집하여 즐겨보는 데 사용되었다.</p>	
50	<p>남여 藍興</p> <p>조선 시대</p>	<p>조선 시대 지위 높은 선비들이 외출할 때 사용했던 덮개 없는 가마로 경치를 감상하며 유람할 때 사용하기에 좋았다. 발받침이 있고 등과 팔을 기댈 수 있는 모양으로 앞뒤에서 여럿이 가마를 뺄 수 있도록 긴 대가 있다. 불교가 억제되었던 조선 시대에는 양반의 금강산 유람에 금강산 절의 승려들이 가마꾼으로 동원되기도 했다. 정선(鄭敼, 1676 ~ 1759)이 1711년에 그린 금강산 그림 신묘년풍악도첩(辛卯年楓嶽圖帖)에는 선비들이 타고 온 가마와 가마꾼 승려들 십여 명의 모습이 보인다.</p>	<p>조선 시대 지위 높은 선비들이 외출할 때 사용했던 덮개 없는 가마입니다. 경치를 감상하며 유람할 때 사용하기 좋았습니다. 발받침이 있고 등과 팔을 기댈 수 있는 모양으로 앞뒤에서 여럿이 가마를 뺄 수 있도록 긴 대가 있습니다. 불교가 억제되었던 조선 시대에는 양반의 금강산 유람에 금강산 절의 승려들이 가마꾼으로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정선이 1711년에 그린 금강산 그림 ‘신묘년 풍악도첩’은 선비들이 타고 온 가마와 가마꾼 승려들 십여 명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p>	<p>덮개 없는 가마로, 조선 시대 지위 높은 선비들이 외출할 때 사용했다. 경치를 감상하며 유람할 때 사용하기 좋다. 발받침이 있고 등과 팔을 기댈 수 있는 모양으로 앞뒤에서 여럿이 가마를 뺄 수 있도록 긴 대가 있다. 불교가 억제되었던 조선 시대에는 양반의 금강산 유람에 금강산 절의 승려들이 가마꾼으로 동원되기도 했다. 정선이 1711년에 그린 금강산 그림 ‘신묘년 풍악도첩’은 선비들이 타고 온 가마와 가마꾼 승려들 십여 명의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51	관동팔경첩 關東八景帖  조선 시대	관동팔경을 그린 작자 미상의 화첩이다. 삼일포, 충석정, 청간정, 낙산사, 죽서루, 망양정, 월송정이 한 폭씩 그려져 있다. 화첩 맨 끝에 정해년(丁亥年)이라고 쓴 글씨가 있는데 화풍으로 보아 1827년경으로 볼 수 있다. 삼일포는 꽃피는 봄의 모습, 낙산사는 여름 경치, 월송정은 눈이 내린 설경 산수로 표현했다. 경쾌한 붓놀림으로 그림을 그리고 분홍, 연두, 하늘색으로 맑게 칠해서 산뜻한 느낌을 준다.	관동팔경을 그린 작자 미상의 화첩입니다. 삼일포, 충석정, 청간정, 낙산사, 죽서루, 망양정, 월송정이 한 폭씩 그려져 있습니다. 화첩 맨 끝에 ‘정해년’이라는 글씨가 있는데 화풍으로 보아 1827년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삼일포는 꽃피는 봄의 모습, 낙산사는 여름 경치, 월송정은 눈이 내린 설경 산수로 표현했습니다. 경쾌한 붓놀림으로 그림을 그리고 분홍, 연두, 하늘색으로 맑게 칠해서 산뜻한 느낌을 줍니다.	관동팔경을 그린 화첩이다. 작자는 알 수 없다. 삼일포, 충석정, 청간정, 낙산사, 죽서루, 망양정, 월송정이 한 폭씩 그려져 있다. 삼일포는 꽃피는 봄의 모습, 낙산사는 여름 경치, 월송정은 눈이 내린 설경 산수로 표현했다. 경쾌한 붓놀림으로 그림을 그리고 분홍, 연두, 하늘색으로 맑게 칠해서 산뜻한 느낌을 준다. 화첩 맨 끝에 ‘정해년’이라는 글씨가 있는데 화풍으로 보아 1827년경으로 볼 수 있다.	
52	곡운구곡도첩 谷雲九曲圖帖  조선 시대	곡운(谷雲) 김수증의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에 있는 유거지와 그 주변의 곡운 구곡을 그린 그림으로 평양에서 활동했던 화가 조세걸이 그렸다. 화첩은 김수증이 쓴 ‘곡운구곡산도(谷雲九曲山圖)’라는 글씨와 유거지를 그린 농수정도(籠水亭圖), 일곡 방화계(榜花溪)부터 구곡 첩석대(疊石臺)까지 구곡 그림 등 총 10점의 그림으로 이루어졌다. 이 그림은 조선 실경 산수화의 이른 예이며,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의 은거지인 무이구곡(武夷九曲)을 전거로 그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그림이다.	조선 시대의 문신 김수증이 벼슬을 그만두고 은거한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주변의 곡운 구곡을 그린 그림입니다. 평양에서 활동했던 화가 조세걸이 그렸습니다. 화첩은 김수증이 쓴 ‘곡운구곡산도’라는 글씨와 농수정도, 일곡 방화계부터 구곡 첩석대까지 구곡 그림 등 총 10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그림은 조선 실경 산수화의 이른 예이며,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의 은거지인 무이구곡을 모티브로 하여 그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그림입니다.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에 있는 곡운 김수증의 유거지와 그 주변의 곡운 구곡을 그린 그림이다. 평양에서 활동했던 화가 조세걸이 그렸다. 화첩은 김수증이 쓴 ‘곡운구곡산도’라는 글씨와 유거지를 그린 농수정도, 일곡 방화계부터 구곡 첩석대까지 구곡 그림 등의 총 10점으로 이루어졌다. 이 그림은 조선 실경 산수화의 이른 예이며,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의 은거지인 무이구곡을 모티브로 하여 그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그림이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53	<p><b>김하종필 설악산도</b> 雪嶽山圖</p> <p>조선 시대</p>	<p>조선 후기 화원 화가 김하종이 그린 것으로, 내금강과 외금강 16폭, 설악산 일대 4폭, 동해안 관동 지방의 경치를 그린 5폭 등 총 25폭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하종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화원 화가 김득신(金得臣, 1754 ~ 1822)의 아들이다. 화첩에서 설악산 그림은 설악쌍폭, 설악경천벽, 계조굴, 설악전도다. 이광문(李光文, 1778 ~ 1838)이 쓴 서문에 김하종이 1815년 그와 함께 금강산과 관동에 가서 경치를 스케치해서 돌아와 이 화첩을 만들었다고 한다.</p>	<p>조선 후기 화원 화가 김하종이 그린 것으로, 내금강과 외금강 16폭, 설악산 일대 4폭, 동해안 관동 지방의 경치를 그린 5폭 등 총 25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하종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화원 화가 김득신(1754~1822)의 아들입니다. 화첩에서 설악산 그림은 설악쌍폭, 설악경천벽, 계조굴, 설악전도입니다. 이광문(1778~1838)이 쓴 서문에 김하종이 1815년 그와 함께 금강산과 관동에 가서 경치를 간추려 그린 후 돌아와 이 화첩을 만들었다고 적혀 있습니다.</p>	<p>조선 후기 화원 화가 김하종이 그렸다. 김하종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화원 화가 김득신의 아들이다. 이 그림은 내금강과 외금강 16폭, 설악산 일대 4폭, 동해안 관동 지방의 경치를 그린 5폭 등 총 25폭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첩에서 설악산 그림은 설악쌍폭, 설악경천벽, 계조굴, 설악전도이다. 이광문이 쓴 서문에 김하종이 1815년 그와 함께 금강산과 관동에 가서 경치를 간추려 그린 후 돌아와 이 화첩을 만들었다고 적혀 있다.</p>	
54	<p><b>신사임당 초충도</b> 傳申師任堂筆草蟲圖</p> <p>조선 시대</p>	<p>신사임당(申師任堂, 1504 ~ 1551)의 그림으로 전하는 꽃, 풀, 벌레 그림이다. 각 폭에 꽃과 풀, 벌레와 나비를 그린 것으로 자수본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는 대상의 특징을 잘 잡아내어 많은 묘사 없이 간결하면서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그녀의 당호(堂號)인 사임당은 유학자들에게 이상적인 어머니상으로 추앙되었던 중국 주나라 문왕(文王)의 어머니 태임(太妊)을 스승으로 삼았다는 뜻을 담고 있다.</p>	<p>신사임당(1504~1551)이 그린 그림입니다. 각 폭에 꽃과 풀, 벌레와 나비를 그린 것으로 자수본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는 대상의 특징을 잘 잡아내어 많은 묘사 없이 간결하면서도 사실적으로 그렸습니다. 그녀의 당호인 사임당은 유학자들에게 이상적인 어머니상으로 추앙되던 중국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을 스승으로 삼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p>	<p>신사임당이 그린 그림이다. 각 폭에 꽃과 풀, 벌레와 나비를 그린 것으로 자수본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는 대상의 특징을 잘 잡아내어 많은 묘사 없이 간결하면서도 사실적으로 그렸다. 사임당이라는 호는 유학자들에게 이상적인 어머니상으로 추앙되던 중국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을 스승으로 삼았다는 뜻을 담고 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55	<p><b>청풍부원군 상여</b> 清風府院君 喪輿</p> <p>조선 시대 국가민속문화재 제120호</p>	<p>숙종이 그의 외할아버지인 김우명(1619~1675)에게 하사한 상여로 현재까지 전해 오는 상여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전시되고 있는 대여(大輿)를 비롯하여 명정대, 만장대, 운삽, 불삽 등 상여 한 벌이 전해진다. 상여의 구조나 생김새로 보아 &lt;세종실록&gt;의 오례(五禮)에 나와 있는 대여의 구조를 간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17세기 왕실 인척의 상여 일괄이 잘 보존된 예로, 조선시대 최상류층의 상장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화재이다.</p>	<p>숙종이 그의 외할아버지인 김우명(1619~1675)에게 하사한 상여로 현재까지 전해 오는 상여 중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전시되고 있는 대여를 비롯하여 명정대, 만장대, 운삽, 불삽 등 상여 한 벌이 전해집니다.</p> <p>상여의 구조나 생김새로 보아 『세종실록』의 오례에 나와 있는 대여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17세기 왕실 인척의 상여가 잘 보존된 예로, 조선 시대 최상류층의 상례(喪禮)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화재입니다.</p>	<p>이 상여는 숙종이 외할아버지인 김우명에게 하사한 것이다.</p> <p>현재까지 전해 오는 상여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p> <p>전시되고 있는 대여를 비롯하여 명정대, 만장대, 운삽, 불삽 등 상여 한 벌이 전해진다.</p> <p>상여의 구조나 생김새로 보아 『세종실록』에 나와 있는 대여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p> <p>조선 17세기 왕실 인척의 상여가 잘 보존된 예로, 조선 시대 최상류층의 장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화재이다.</p>	
56	<p><b>준경묘, 영경묘 제기</b> 濬慶墓永慶墓 祭器</p> <p>조선 시대</p>	<p>삼척에 있는 조선 태조 이성계의 5대조인 이양무의 묘인 준경묘(濬慶墓)와 그 부인 평창 이씨의 묘인 영경묘(永慶墓)의 제기로 대한 제국 시기에 제작되었다. 대한 제국 개창(1897) 1년 후에 삼척의 퇴락한 두 묘에 대한 보고를 받은 고종은 삼척 부사에게 두 묘 주위에 투장된 무덤을 파내고, 정식으로 수호할 것을 지시했다. 대한 제국 시기에 만들어진 황실 제기의 드문 예로 중요하다.</p>	<p>삼척에 있는 조선 태조 이성계의 5대조인 이양무의 묘인 준경묘와 그 부인 평창 이씨의 묘인 영경묘에서 제사 지낼 때 사용된 제기입니다. 대한 제국 시기에 제작되었습니다. 대한 제국 개국(1897) 1년 후에 삼척의 퇴락한 두 묘에 대한 보고를 받은 고종은 삼척 부사에게 두 묘 주위에 몰래 쓰인 다른 무덤을 파내고, 정식으로 수호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한 제국 시기에 만들어진 황실 제기의 드문 예로 중요한 사료입니다.</p>	<p>이 제기는 삼척에 있는 조선 태조 이성계의 5대조인 이양무의 묘인 준경묘와 그 부인 평창 이씨의 묘인 영경묘에서 제사 지낼 때 사용된 것이다.</p> <p>대한 제국 개국 1년 후에 고종은 삼척의 퇴락한 두 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삼척 부사에게 두 묘 주위에 몰래 쓰인 다른 무덤을 파내고, 정식으로 수호할 것을 지시했다.</p> <p>대한 제국 시기에 만들어진 황실 제기의 드문 예로 중요한 사료이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57	<p><b>왕녀 복란 태실 석함과 도자기</b></p> <p>조선 시대</p>	<p>조선 제9대 왕 성종(1469~1494)의 왕녀 복란의 태를 묻은 태실과 그 주위에서 발견된 도자기들이다. 1991년 원주 태장동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지석에는 왕녀 복란이 1486년(성종 17) 10월 13일 진시(오전 7~9시)에 출생하였고, 그 태는 같은 해 12월 29일에 묻었다고 새겨져 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왕손의 태를 잘 보관하는 것이 왕실의 영속과 관계된다고 생각했다.</p>	<p>조선 제9대 왕 성종(1469~1494)의 왕녀 복란의 태를 묻은 태실과 그 주위에서 발견된 도자기들입니다. 1991년 원주 태장동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지석에는 왕녀 복란이 1486년 10월 13일 진시(오전 7~9시)에 출생하였고, 그 태는 같은 해 12월 29일에 묻었다고 새겨져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왕실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기원하면서 왕손의 태를 각별하게 모셨습니다.</p>	<p>조선 시대 성종의 왕녀 복란의 태를 묻은 태실과 그 주위에서 발견된 도자기들이다.</p> <p>1991년 원주 태장동에서 발견되었다.</p> <p>지석에는 왕녀 복란이 1486년 10월 13일에 출생하였고, 그 태는 같은 해 12월 29일에 묻었다고 새겨져 있다.</p> <p>조선 시대 왕실에서는 왕실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기원하면서 왕손의 태를 각별히 모셨다.</p>	
58	<p><b>단종 보인, 정순왕후 보인</b></p> <p>端宗御寶, 定順王后御寶</p> <p>조선 시대</p>	<p>단종과 정순왕후의 보인이다. 단종은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쫓겨나 1457년 강원도 영월로 유배되었다가 죽음을 맞았다. 단종의 비도 부인(夫人)으로 강봉(降封)되고 궁에서 나와 1521년 82세로 생을 마감했다. 단종은 죽은 지 200여 년이 지나 숙종 7년(1681)에 노산대군(魯山大君)으로 추봉(追封)되었고, 숙종 24년(1698) 11월에 왕으로 복위되었다. 단종이 복위됨에 따라 단종과 정순왕후의 어보와 책문을 만들어 신위와 함께 종묘에 배향했다.</p>	<p>단종과 정순왕후의 보인입니다. 단종은 숙부 수양대군에게 쫓겨나 1457년 강원도 영월로 유배된 후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정순왕후는 단종의 부인(夫人)으로 직위가 낮아지고 궁에서 나와 1521년 82세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단종은 죽은 지 200여 년이 지나 숙종 7년(1681)에 노산대군으로 격상되었고, 숙종 24년(1698) 11월에 왕으로 복위되었습니다. 단종이 복위됨에 따라 단종과 정순왕후의 어보와 책문을 만들어 신위와 함께 종묘에 모셨습니다.</p>	<p>단종과 정순왕후의 도장이다.</p> <p>단종은 숙부 수양대군에게 쫓겨나 1457년 강원도 영월로 유배된 후 죽음을 맞이하였다.</p> <p>정순왕후는 단종의 부인으로 직위가 낮아지고 궁에서 나와 1521년 82세로 생을 마감하였다.</p> <p>단종은 죽은 지 200여 년이 지나 숙종 7년(1681)에 노산대군으로 격상되었고, 숙종 24년 11월에 왕으로 복위되었다.</p> <p>단종이 복위됨에 따라 단종과 정순왕후의 도장과 책문(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문서)을 만들어 신위와 함께 종묘에 모셨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 진
59	<p>허목 초상 許穆肖像</p> <p>조선 시대 보물 제1509호</p>	<p>조선 후기의 이름난 문신이며 삼척 부사를 지냈던 미수(眉叟) 허목(1595~1682)의 초상화로 유명한 이명기가 그렸다. 그림 장황 윗단에 있는 변암(樊巖) 채제공(蔡濟恭)(1720~1799)의 발문에 허목을 흠모했던 정조가 정조 1794년(정조 18)에 허목의 초상화를 모사하여 올리도록 했다는 사실이 쓰여 있다. 허목은 60대 후반에 2년 남짓(1660~1662) 삼척 부사로 재임하면서 삼척 최초의 사찬(私撰) 읍지인 『척주지(陟州誌)』를 발간했다.</p>	<p>조선 후기의 이름난 문신이며 삼척 부사를 지냈던 미수 허목(1595~1682)의 초상화입니다. 초상화로 유명한 화가 이명기가 그렸습니다. 그림 위쪽에 있는 변암 채제공(1720~1799)의 글에는 허목을 흠모했던 정조가 정조 18년(1794)에 허목의 초상화를 똑같이 그려 올리도록 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허목은 60대 후반에 2년 남짓(1660~1662) 삼척 부사로 재임하면서 삼척 최초의 개인이 편찬한 읍지인 『척주지』를 발간하였습니다.</p>	<p>미수 허목의 초상이다. 초상화로 유명한 화가 이명기가 그렸다. 허목은 조선 후기 이름난 문신으로, 60대 후반에 2년 남짓(1660~1662) 삼척 부사로 재임하면서 삼척 최초로 개인이 편찬한 읍지인 『척주지』를 발간하였다. 그림 위쪽에 있는 변암 채제공(1720~1799)의 글에는 허목을 존경했던 정조가 정조 18년(1794)에 허목의 초상화를 똑같이 그려 올리도록 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다.</p>	
60	<p>설매와 설피 雪馬, 雪皮</p> <p>조선 시대</p>	<p>오늘날의 스키와 같은 설매는 눈이 많이 오는 강원도 산간 지역의 겨울 필수품이었다. 동그란 모양의 설피는 눈이 많은 고장의 주민들이 겨울철에 신발 바닥에 덧대어 신는 것으로 이것을 신으면 눈이 깊어도 빠지지 않으며 비탈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다. 설피는 노간주나무의 껍질을 벗겨 다듬은 다음 뜨거운 물에 넣고 천천히 힘을 주어가며 타원형으로 구부려서 만들었다.</p>	<p>오늘날의 스키와 같은 설매는 눈이 많이 오는 강원도 산간 지역의 겨울 필수품이었습니다. 동그란 모양의 설피는 눈이 많은 고장의 주민들이 겨울철에 신발 바닥에 덧대어 신는 것으로, 이것을 신으면 눈이 깊어도 빠지지 않고 비탈길에서도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설피는 노간주나무의 껍질을 벗겨 다듬은 다음 뜨거운 물에 넣고 천천히 힘을 주며 타원형으로 구부려서 만들었습니다.</p>	<p>오늘날의 스키와 같은 물건인 설매이다. 눈이 많이 오는 강원도 산간 지역의 겨울 필수품이었다. 동그란 모양의 설피는 눈이 많은 고장의 주민들이 겨울철에 신발 바닥에 덧대어 신는 것으로, 이것을 신으면 눈이 깊어도 빠지지 않고 비탈길에서도 미끄러지지 않았다. 설피(신발)는 노간주나무의 껍질을 벗겨 다듬은 다음 뜨거운 물에 넣고 천천히 힘을 주며 타원형으로 구부려서 만들었다.</p>	

연구 책임자    이상용

공동 연구원    허인영, 이성혜, 손경애

보조 연구원    원태연

담당 연구원    유은숙(주무관)  
                  조주연(연구원)

발행인: 소강춘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695, 전송 02-2669-9737

인쇄일: 2018년 11월 30일

발행일: 2018년 11월 30일

인    쇠: 대성인쇄

※ 이 책은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한국수어 문화 정보 해설 영상 자료  
구축’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